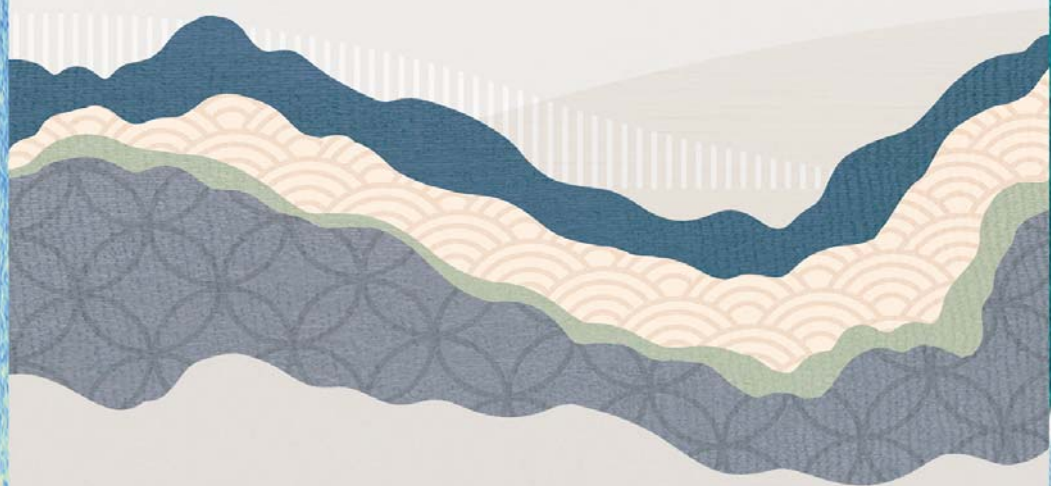


평택문화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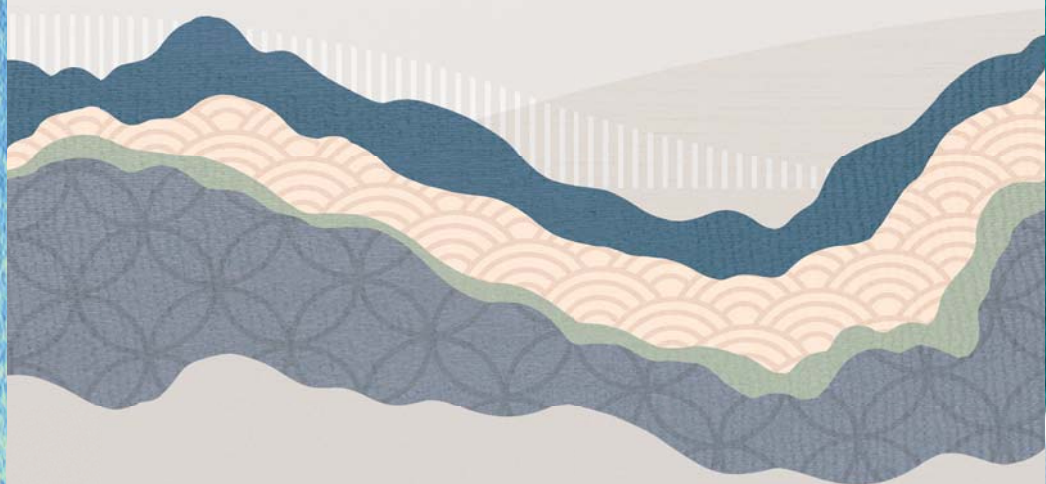
第5輯



2023

평택문화연구

第5輯



깊이 있는 지역학 연구를 위한 ‘평택문화연구’

평택문화원 부설 평택학 연구기관인 ‘평택학연구소’는 2023년 한 해 동안 두 번의 학술대회와 한 번의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평택문화연구》 제5집 발간하며 평택학 연구의 깊이를 더하고자 했습니다.

제17차 평택학학술대회 주제 ‘공간으로 보는 청일전쟁’은 2024년 청일전쟁 130주기를 맞이해 선제적으로 공간 중심 청일전쟁을 조명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18차 평택학학술대회 주제 ‘현대 평택의 사회와 경제’는 제15~16차 학술대회 ‘조선시대 평택의 사회와 경제’, ‘근대 평택의 사회와 경제’에 이어 진행한 시기별 평택의 사회와 경제 연구 시리즈로 체계적 연구의 기초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평택시 지명 및 명칭 사용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진행한 평택학토론회는 지역의 지명과 명칭은 한번 정해지면 잘못되었다 하여도 되돌리기 어렵고 굳어지기 쉬워 평택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명과 명칭 현황을 파악하고 평택의 역사와 문화, 정서를 반영한 지명과 명칭에 대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평택문화연구》 제5집의 특집논문 주제는 ‘평택의 고고학’으로 2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 걸친 평택의 발굴유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논문을 통해서 지역의 고고학을 정리하는데 이바지 하였습니다. 일반논문으로 게재된 5편의 논문은 설화, 실학, 복식, 교육, 종교 등 평택학 연구의 다양성과 확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평택학연구소의 연구활동은 지역학의 꾸준한 발굴, 연구, 콘텐츠화하는 것과 함께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다양한 주제를 발굴, 깊이 있게 연구하여 평택시민이 지역에 대해 관심을 두게 해 평택학의 지평을 넓혀나가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평택문화연구》가 지역학이 깊이 있는 연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노력해주신 자문위원과 연구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평택학연구소의 다양한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목 차

특/집/논/문

평택의 고고학

평택의 고려시대 문화유적 발굴현황과 성과 / 김영숙	009
삼국시대 평택의 철과 솥 생산 / 차순철	027

일/반/논/문

평택 설화 자료의 현황과 과제 / 김은일 · 송지현 · 이은경	063
평택의 실학-진위현 동천장 실학자 남하정을 중심으로 / 임원택	087
평택 농악 복식의 구성과 특징 / 임정미	117
서정리공립보통학교와 송탄의 근대교육 / 황수근	141
근 · 현대 평택지역 천주교의 교세 확장과 발전 / 황우갑	169

평택의 고려시대 문화유적 발굴현황과 성과

김영숙/(재)기남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차 례

- I. 머리말
- II. 평택지역 고려시대 유적현황
- III. 발굴성과 및 향후 과제
- IV. 맺음말

I. 머리말

평택시 일대는 전체적으로 낮은 구릉 지형에 하천을 따라 비옥한 충적지가 넓게 발달해 있고, 서쪽으로는 바다와 맞닿아 있어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많은 문화유산을 남겼으며, 발굴조사를 통해 당시의 문화상이 확인되고 있다. 평택지역의 문화유적은 2019년 학술대회를 통해 선사시대(구석기~청동기)와 역사시대(초기철기~삼국시대)에 대한 발굴성고를 검토하였다.¹⁾ 이에 본고에서는 평택의 문화유적에 대한 정리의 일환으로 역사시대(고려시대)에 대한 발굴성고를 정리하여 평택의 유적 현황을 파악하고,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본고는 경기도 평택시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평택지역에서 2023년 9월까지 발굴조사가 완료되어 발굴조사보고서가 발간된 유적 중 그 성격과 규모가 확인된 고려시대 문화유적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우선 발굴조사현황과 유적의 분포 등을 정리하고,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성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II. 평택지역 고려시대 유적현황

평택에서 발굴조사가 완료되어 발굴조사보고서가 발간된 유적은 128개소²⁾, 그중 고려시대 유구가 확인된 유적은 67개소로 확인된다. 평택지역의 고려시대 유구가 확인된 유적에 대해 유적분류 표준안에 따라 유적의

1) 평택시·평택문화원, 《평택의 문화유적 발굴 현황과 과제》, 2019.

2) 문화재청 협업포털 기준.

성격을 생활유적, 무덤유적, 생산유적, 교통유적, 국방유적으로 나누어 분류하였으며³⁾, 유적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고려시대 유적 중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유적은 농성과 서부 관방산성이다. 농성은 1981년 경기도기념물 제74호(1981.04.17.)로 지정되었으며, 서부 관방산성은 2004년 시·발굴조사 후 2005년 경기도기념물(2005.10.17.)로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외의 다른 유적들은 구제발굴로 조사되어 대부분 발굴조사 후 사업(산업단지, 주택단지 등)이 진행되었으며, 일부만 이전복원 및 현지복원(공원화) 되어 보존·관리되고 있다.⁵⁾

<표 1> 평택지역 고려시대 유적 현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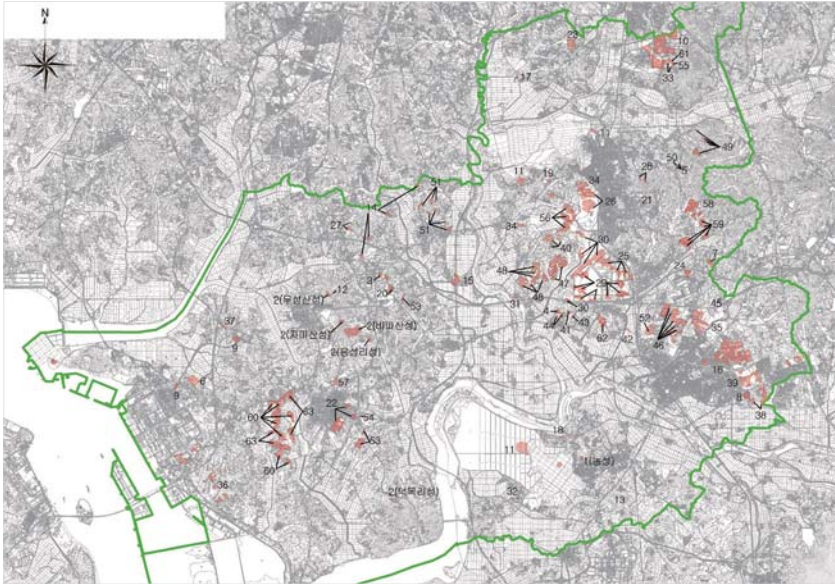
번호	보고서명(유적명)	조사기관	발간일	유적시대	유적성격
1	농성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3	고려	국방
2	서부 관방산성 (무성산성, 자미산성, 비파산성, 용성리성, 덕목리성)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4	삼국~고려	국방
3	토진리유적	경기문화재연구원	2006	청동기 /고려~조선	생활/무덤
4	궁리유적	경기문화재연구원	2006	고려~근세	생활/무덤
5	지산동유적	중원문화재연구원	2006	고려~현대	생활/무덤/생산

- 3) 생활유적 : 수혈식주거지, 지상식건물지(고상식건물지, 굴립주건물지), 수혈, 우물, 구, 환호, 야외노지 등/무덤유적 : 석관묘, 석관묘, 석실묘, 지석묘, 토광묘, 옹관묘, 회곽묘 등/ 생산유적 : 토기가마, 자기가마, 기와가마, 탄요, 제철 관련 유구, 농경유구 등/교통유적 : 도로유적(도로면 및 측구시설, 수레바퀴흔 등)/국방유적 : 성곽(토성, 석성), 해자, 봉수, 진보 등과 성곽 내부 부대시설
- 4) 무성산성지(경기도기념물 제202호), 자미산성지(경기도기념물 제203호), 비파산성지(경기도기념물 제204호), 용성리성지(경기도기념물 제 205호), 덕목리성지(경기도기념물 제206호).
- 5) 청동기시대 주거지 및 환호(소사동유적, 용이·죽백동유적, 평택 화양지구 등)와 석곽묘 및 지석묘(도곡리유적, 수월암리유적), 원삼국시대 토기가마 및 제철로(가곡리유적), 통일신라 기와가마(안중·송담리 유적), 조선시대 토루(방축리·여염리·궁리유적, 석정리장성 등) 등은 발굴조사 후 이전복원 또는 현지복원 형태로 보존·관리되고 있다.

번호	보고서명(유적명)	조사기관	발간일	유적시대	유적성격
6	도곡리유적	세종대학교박물관	2006	통일신라~조선	무덤
7	도일동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2007	통일신라~조선	생활/무덤
8	소사동유적	고려문화재연구원	2008	청동기/원삼국 /고려~조선	생활/무덤
9	도곡리 · 흥원리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고려~조선	생활/무덤
10	갈곶리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통일신라~조선	생활/무덤/생산
11	대추리 · 금각리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원삼국 /나말여초~조선	생활/무덤
12	옥길리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삼국/고려~조선	생활/무덤/생산
13	남산리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청동기 /고려~조선	생활/무덤/생산
14	현곡-율북간 도로 확포장공사 문화유적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08	고려~조선	생활/무덤
15	백봉리유적	기호문화재연구원	2010	백제/고려~조선	생활/무덤/생산
16	소사벌 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2011	청동기~조선	생활/무덤/생산
17	마두리유적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1	구석기/원삼국 /고려~조선	생활/무덤
18	동창리유적	삼강문화재연구원	2011	삼국/나말여초 /조선	생활/무덤
19	당현리유적Ⅱ	가경고고학연구소	2011	청동기 /통일신라~조선	생활/무덤
20	양교리 산41-1번지유적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2	청동기/초기철기 /고려~조선	생활/무덤/생산
21	이충동 유적	세종대학교박물관	2012	고려~조선	생활/무덤/생산
22	안중 · 송담리 유적	한국문화재재단	2013	구석기 /통일신라~근대	생활/무덤/생산
23	수월암리유적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3	청동기 /통일신라~조선	생활/무덤/생산

번호	보고서명(유적명)	조사기관	발간일	유적시대	유적성격
24	칠괴동 분묘유적	한백문화재연구원	2014	고려~조선	생활/무덤
25	장당동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2015	청동기~조선	생활/무덤/생산
26	서정동유적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6	통일신라~조선	생활/무덤/생산
27	고령리유적	중부고고학연구소	2016	고려~조선	생활/무덤/생산
28	지산동 부락산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2016	고려	생활
29	방축리 · 여염리 · 궁리유적	기호문화재연구원	2016	구석기/청동기 /고려~조선	생활/무덤
30	여염리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2017	구석기 /청동기~조선	생활/무덤/생산 /교통
31	해창리유적	경남문화재연구원	2017	고려~조선	생활/무덤
32	본정리유적	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7	고려~조선	생활/무덤
33	가곡리유적	한울문화재연구원	2017	원삼국~조선	생활/무덤/생산
34	서정동 · 두릉리 · 여염리 · 궁리유적	서경문화재연구원	2018	청동기 /고려~조선	생활/무덤/생산 /교통
35	동삭동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2018	신석기~청동기 /고려~조선	생활/무덤
36	희곡리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2018	원삼국~조선	생활/무덤
37	포승 홍원리유적	서경문화재연구원	2018	고려~조선	생활/생산
38	소사동 솔밭말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2019	청동기~조선	생활/무덤/생산
39	용이 · 죽백동유적	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9	청동기~조선	생활/무덤
40	울포리 방죽골유적	가경고고학연구소	2019	신석기~청동기 /고려~조선	생활/무덤
41	궁리 28-4 · 방축리 45-3번지유적	경상문화재연구원	2019	고려~조선	생활/무덤
42	지제동 울성유적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9	청동기/원삼국 ~삼국/고려~조선	생활/무덤/생산
43	방축리유적	충청문화재연구원	2019	고려~조선	생활/무덤/생산
44	궁리 분묘유적	한양문화재연구원	2019	구석기/초기철 기 /고려~조선	생활/무덤
45	칠원동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2016 2020	고려~조선	생활/무덤/생산
46	동삭동 410-1번지유적	한국문화재연구원	2020	청동기 /원삼국~조선	생활/무덤/생산
47	좌교리 · 울포리유적	우리문화재연구원	2020	청동기 /고려~조선	생활/무덤

번호	보고서명(유적명)	조사기관	발간일	유적시대	유적성격
48	좌교리 · 해창리유적	호남문화재연구원	2020	구석기/청동기 ~삼국/고려~조선	생활/무덤/생산 /교통
49	마산리유적	한양문화재연구원	2020	삼국 /고려~조선	생활/무덤/생산
50	자산동2유적	기남문화재연구원	2020	통일신라~조선	생활/무덤/생산
51	울복리 · 한산리 · 어연리유적	한양문화재연구원	2021	청동기~조선	생활/무덤
52	세교동유적	한성문화재연구원	2021	원삼국~조선	생활/무덤
53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6 · 7공구 사업구간 내 유적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21	청동기~조선	생활/무덤/생산
54	대반리 405-148번지 유적 (국비)	기남문화재연구원	2021	고려~조선	생활/무덤
55	가곡리 산36번지 유적	기남문화재연구원	2021	고려~조선	생활/무덤
56	당현리 · 울포리 유적	한백문화재연구원	2022	구석기 /통일신라 /고려/조선	생활/무덤
57	학현리 유적	한양문화재연구원	2022	고려~조선	생활/무덤/생산
58	도일동유적	전남문화재연구원	2022	청동기 /삼국~조선	생활/무덤/생산
59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3구역 유적	한울문화재연구원	2023	청동기~조선	생활/무덤/생산
60	평택 화양지구 유적3	한성문화재연구원	2023	청동기~조선	생활/무덤/생산
61	가곡리 산42-1번지 유적	한라문화재연구원	2023	통일신라~조선	생활/무덤
62	방축리 산164-1번지 유적	한양문화재연구원	2023	청동기~조선	생활/무덤/생산
63	평택 화양지구 유적4	도원문화재연구원	2023	청동기~조선	생활/무덤/생산



〈도면 1〉 평택지역 고려시대 유적 분포도⁶⁾

고려시대 유적은 〈도면 1〉과 같이 평택 전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유적은 주로 저구릉성 산지의 사면과 하단부 평지에 가까운 완경사면에 위치한다. 고려시대 유구만 확인되는 단일유적은 드물며 현재 지산동 부락산유적이 유일하다. 대부분 청동기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한 유적 안에서 긴 기간에 걸쳐 형성된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시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유구가 확인되는 복합유적에서 고려시대 유구가 확인된다. 이는 조사 지역 일대가 인류가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유리한 지형 조건을 갖추고 있어 지속해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평택 전 지역에서 고려시대 유적이 확인되고는 있으나, 유적 안에서 유구의 빈도수는 높지 않은 편이다. 또한 고려~조선시대까지 형성된 유적

6) 평택시, 《평택시 국가귀속유물 조사용역》, 2021, p.3, 도면 1 수정 편집 수록, 유적번호는 〈표 1〉, 〈표 2〉와 동일.

은 18곳으로 이러한 유적도 조선시대의 유구가 주를 이룬다. 동일한 성격의 유구가 확인되는 유적은 2곳으로 확인되는데, 도곡리유적은 통일신라~조선시대의 무덤유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산동 부락산유적은 생활유적이 출토되었다. 고려시대 유적에서 확인되는 유구의 현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평택지역 고려시대 유적 유구현황표

번호	보고서명(유적명)	고려유적 성격	입지	유구	편년
1	농성	국방	평지성	성곽(토축)	주사용시기 고려
2	서부 관방산성 (무성산성, 자미산성, 비파산성, 용성리성, 덕목리성)	국방	테뫼식산성, 포곡식 평산성 평산성	성곽(토축 및 토석혼 축)	주사용시기 고려
3	토진리유적	생활	구릉 동사면 하단부 완경사면 해발 30m	건물지(기단석, 초석, 와적기단, 아궁이 등) 1기	12C
4	궁리유적	생활무덤	구릉 정상부(주거지) 및 북동사면(묘)과 북서사면(수혈) 해발 16~20m 내외	주거지 4기, 수혈 3 기, 구 1기, 석곽묘 1 기, 옹관묘 1기, 토광 묘 6기	주거지 · 묘 10~12C 수혈 14C중엽
5	지산동유적	생활	I 지구 능선 하단부 동쪽 평탄지	건물지(석축열, 와적 층) 1기	10~12C
6	도곡리유적	무덤	구릉의 동쪽과 남쪽 경사면 해발 13~22m	토광묘 7기	9C중엽~12C
7	도일동유적	무덤	구릉 남사면 중단 해발 43m	토광묘 1기	11C후반 ~12C전반
8	소사동유적	무덤	북동구릉 남사면 해발 27m	토광묘 2기 이상	14~15C
9	도곡리 · 흥원리유적	생활	흥원리 능선 사면 해발 10~20m	주거지 9기, 적석유구	11~12C
10	갈곶리유적	생활 무덤 생산	구릉 사면	구들 1기, 수혈 1기, 석곽묘 2기, 토광묘 1기, 기와가마 1기	10~12C
11	대추리 · 금각리유적	생활	대추리 3지점 서쪽 해발 9m	주거지 1기	9C중반 ~10C초반

번호	보고서명(유적명)	고려유적 성격	입지	유구	편년
12	옥길리유적	무덤	구릉 사면 해발 33~38m	석곽묘 2기	9C
13	남산리유적	무덤 생산	구릉 남서사면 해발 19~22m	토광묘 1 기와가마 3기	10~13C
14	현곡-울복간 도로 확포장공사 문화유적	생활 무덤	평지 및 해발 31m 부근 사면	수혈 4기, 토광묘 1기	수혈 14C말 ~15C초 묘 11C
15	백봉리유적	생활 생산	A구역 남동사면 해발 15~20m	건물지 2기(구들) 기와가마 2기 폐와무지 1기 소성유구 2기 수혈 3기	12C후반 ~13C전반
16	소사별 유적	생활 무덤	구릉 정상부 및 사면부	건물지 5기, 토광묘 2기	10~14C
17	마두리유적	생활 무덤	구릉 북사면 해발 18~25m	수혈 6기, 토광묘 2기	고려
18	동창리유적	생활	구릉 정상부 해발 30m 내외	수혈 53기, 담장 기반시설 3기	9C후반~12C
19	당현리유적 II	생활	능선 남사면 상단 해발 50.1m	수혈 1기	고려 추정
20	양교리 산41-1번지유적	생산	구릉 남동사면부 해발 38~39m	소성 1기	고려
21	이충동 유적	생산	구릉 남서 하단부 해발 60m	소성 1기	고려
22	안중 · 송담리 유적	무덤	3지점 남서쪽 해발 23~25m	토광묘 2기	고려
23	수월암리유적	생활무덤	해발 55~65m 구릉 서사면 및 동사면	수혈 6기, 석곽묘 10 기, 토광묘 33기	고려중기~후기
24	칠괴동 분묘유적	무덤	구릉 사면 해발 42m	석곽묘 1기	고려말

번호	보고서명(유적명)	고려유적 성격	입지	유구	편년
25	장당동유적	생활 무덤	구릉 사면 및 말단부 해발 18~42m	수혈 4기, 토광묘 27기	고려 전시기
26	서정동유적	생활 무덤	구릉 정상부 및 남사 면 해발 33~39m	주거지 1기, 수혈 2 기, 토광묘 2기	고려 후기
27	고령리유적	생활 생산	구릉 사면 말단부 해발 29~37m	건물지 3기(석렬, 적 심, 소성, 수혈 등), 노적(제철)	12~13세기 중반
28	자산동 부락산유적	생활	부락산 북사면 해발 61~65m	건물지 5기, 담장 2 기, 축대 2기, 우물 1 기, 석렬 4기, 적석 2 기, 수혈 2기	12C중반 ~14C후반
29	방축리 · 여염리 · 궁리 유적	무덤	33지점 구릉 남사면	토광묘 4기	12세기
30	여염리유적	생활 무덤	구릉 남사면 해발 20~30m 내외	수혈 5기 석곽묘 1기	10~11C초
31	해창리유적	생활	구릉 북동사면 말단부 평지	건물지 2기	12~13C
32	본정리유적	무덤	구릉 남동사면 해발 14~18m	토광묘 11기	10~14C
33	가곡리유적	무덤 생산	남동 완경사면 해발 36~37m 북동사면 해발 50~54m	기와가마 1기 토광묘 2기	고려
34	서정동 · 두릉리 · 여염리 · 궁리유적	생활 무덤 생산	북사면과 남사면 남서사면 해발 38~56m	수혈 21기, 구들 1기 굴립주건물지 1기 제철유구 3기 석곽묘 13기 토광묘 52기 와묘 2기	11~13C후반
35	동삭동유적	생활 무덤	해발 32m 내외 구릉 남동사면 및 사면 말단부 평지	석곽묘 2기, 수혈 2기, 소성 1기	12~13C중반

번호	보고서명(유적명)	고려유적 성격	입지	유구	편년
36	희곡리유적	생활	해발 20m 이하 구릉 사면	수혈 7기, 소성 2기	고려 중기/고려 후기~말기
37	포승 흥원리유적	생활 생산	해발 17~21m 완경사면	건물지 2기, 구들 2기, 소성 7기, 수혈 2기, 구상 1기	12~13C
38	소사동 솔밭말유적	생산	해발 37m 내외의 구릉 남서사면 해발 10~11m	기와가마 1기	10~12C초
39	용이 · 죽백동유적	생활 무덤	해발 21~43m 구릉 정상부 및 사면부	건물지 및 형적 4기, 와적기단 1기, 굴립 주건물지 6기, 초석 적심건물지 2기, 석 렬 1기, 초석 1기, 매 납유구 2기, 소성 4 기, 수혈 24기, 폐와 무지 3기, 구상 5기, 주혈 108기, 석곽묘 2기, 토광묘 1기	12C
40	울포리 방죽골유적	생활무덤	구릉 사면 해발 22~27m	주거지 1기, 수혈 2 기, 토광묘 6기	10~12C
41	궁리 28-4 · 방축리 45-3번지유적	생활	남쪽 완경사면 해발 25~27m	수혈 7기	고려 중기
42	지제동 울성유적	생활 생산	해발 17m 내외 구릉 말단부 평지	수혈 4기, 소성 1기	고려 중기
43	방축리유적	생활	해발 22m 구릉 서쪽 사면부	구상 1기	고려
44	궁리 분묘유적	무덤	해발 14m 이하 완경사면	토광묘 5기	12~13C
45	칠원동유적	생활무덤 생산	구릉 정상부 및 사면 부 해발 29~36m	건물지 11기, 주거지 2기, 수혈 16기, 구 상 9기, 주혈군 2개 소, 기와가마 2기, 토 광묘 53기	생활 12C전후/ 무덤 13C후반 ~14C
46	동삭동 410-1번지 유적	생활 무덤 생산	구릉 남사면 해발 20~30m	주거지 3기, 수혈 25 기, 토광묘 1기, 폐기 장 1기, 원형수혈 5 기, 탄요 1기, 야외노 지 1기	고려

번호	보고서명(유적명)	고려유적 성격	입지	유구	편년
47	좌교리 · 울포리유적	생활 무덤	구릉 사면부 해발 18~23m	수혈건물지 15기, 수 혈 30기, 토광묘 5기	고려
48	좌교리 · 해창리유적	생활 생산 교통	Ⅳ지점 서남쪽 구 릉 사면부 해발 15~21m, Ⅵ지점 구릉 하단부	주거지 7기, 수혈 40 기, 구 4기, 아궁이 1 기, 주공군 1기, 기와 가마 1기, 도로유구 3기	9~11C
49	마산리유적	무덤	구릉 남서사면 해발 59m	토광묘 1기	12C
50	지산동2유적	생활	구릉 사면 하단 해발 43~44m	건물지 1기 수혈 1기	12~13C
51	율북리 · 한산리 · 어연리유적	무덤	구릉 남사면에 주로 분포	석곽묘 3기, 토광묘 10기 이상	고려
52	세교동유적 (분묘가 주를 이룸)	생활	해발 25m 구릉 동사면	수혈 6기	9~10C
53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6·7공구 사업구간 내 유적	생활 무덤	구릉 사면 말단부 해발 20~23m	지산촌Ⅱ 주거지 12 기, 소성유구 3기, 매 납유구 3기, 수혈유 구 42기, 구상 6기/ 송담리 토광묘 1기/ 토진리 수혈 1기	고려 초~중기
54	대반리 405~148번지 유적(국비)	무덤	구릉 남사면 해발 25~26m	토광묘 2기	12C
55	가곡리 산36번지 유적	무덤	구릉 서사면 해발 59m	토광묘 1기	14C이전
56	당현리 · 울포리 유적	생활 무덤	구릉 남서사면 및 북동사면	소성 1기, 석곽묘 5 기, 토광묘 3기	10~13C후반
57	학현리 유적	생산	구릉 하단 해발 24~26m	기와가마 2기	고려 중기
58	도일동유적	생활 무덤	구릉 남동사면 해발 52~59m, 북사면 해발 60~75m	수혈 6기, 구상 5기, 석곽묘 6기, 토광묘 7기	11C후반 ~12C전반

Ⅲ. 발굴성과 및 향후 과제

평택에서 확인된 고려시대 유적 67개소를 유적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생활유적은 건물지, 주거지, 수혈 등이 조사되었으며, 39개소가 확인되었다. 무덤유적은 석곽묘와 토광묘가 주를 이루며, 39개소가 확인된다. 평택에서는 현재까지 생활유적과 무덤유적이 주로 확인되고 있다. 생산유적은 도기가마, 기와가마, 제철유구(금속기 제작유구) 등이 있으며, 평택에서는 자기가마는 출토되지 않았다. 주로 기와가마가 조사되고 있으며 생산유적은 18개소로 확인된다. 고려시대 교통유적(도로유구)은 지금까지 1개소에서만 확인되고 있으며, 국방유적으로는 성곽이 있으며 6개소로 나타난다.

<표 3> 고려시대 유적 성격별 수량 및 목록

유적 성격	수량	유 적 명
생활	39	토진리유적, 공리유적, 지산동유적, 도곡리 · 홍원리유적, 갈곶리유적, 대추리 · 금각리 유적, 현곡·울북간 도로 확포장공사 문화유적, 백봉리유적, 소사벌유적, 마무리유적, 동창리유적, 당현리유적Ⅱ, 수월암리유적, 장당동유적, 서정동유적, 고령리유적, 지산동 부락산유적, 여염리유적, 해창리유적, 서정동 · 두릉리 · 여염리 · 공리유적, 동삭동유적, 희곡리유적, 포승 홍원리유적, 용이 · 죽백동유적, 율포리 방죽골유적, 공리 28-4 · 방축리 45-3번지유적, 지제동 울성유적, 방축리유적, 칠원동유적, 동삭동 410-1번지유적, 좌교리 · 율포리유적, 좌교리 · 해창리유적, 지산동2유적, 세교동유적,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6·7공구 사업구간 내 유적, 당현리 · 율포리 유적, 도일동유적,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3구역 유적, 방축리 산164-1번지 유적
무덤	39	공리유적, 도곡리유적, 도일동유적, 소사동유적, 갈곶리유적, 옥길리유적, 남산리유적, 현곡·울북간 도로 확포장공사 문화유적, 소사벌 유적, 마무리유적, 안중 · 송담리 유적, 수월암리유적, 칠괴동 분묘유적, 장당동유적, 서정동유적, 방축리 · 여염리 · 공리 유적, 여염리유적, 본정리유적, 가곡리유적, 서정동 · 두릉리 · 여염리 · 공리유적, 동삭동유적, 용이 · 죽백동유적, 율포리 방죽골유적, 공리 분묘유적, 칠원동유적, 동삭동 410-1번지 유적, 좌교리 · 율포리유적, 마산리유적, 율북리 · 한산리 · 어연리유적,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6·7공구 사업구간 내 유적, 대반리 405-148번지 유적(국비), 가곡리 산36번지 유적, 당현리 · 율포리 유적, 도일동유적,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3구역 유적, 평택 화양지구 유적3, 가곡리 산42-1번지 유적, 방축리 산164-1번지 유적, 평택 화양지구 유적4

유적 성격	수량	유 적 명
생산	18	갈곶리유적, 남산리유적, 백봉리유적, 양교리 산41-1번지유적, 이충동 유적, 고령리유적, 가곡리유적, 서정동 · 두릉리 · 여염리 · 궁리유적, 포승 흥원리유적, 소사동 솔밭말 유적, 지제동 울성유적, 칠원동유적, 동삭동 410-1번지유적, 좌교리 · 해창리유적, 학현리 유적,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3구역 유적, 방축리 산164-1번지 유적, 평택 화양지구 유적4
교통	1	좌교리 · 해창리유적
국방	6	농성, 무성산성, 자미산성, 비파산성, 용성리성, 덕목리성

생활유적 중 건물지 유적은 토진리유적(경기문화재연구원 2006), 지산동 유적(중원문화재연구원 2006), 백봉리유적(기호문화재연구원 2010), 동창리유적(삼강문화재연구원 2011), 소사별유적(중앙문화재연구원 2011), 지산동 부락산유적(중앙문화재연구원 2016), 고령리유적(중부고고학연구소 2016), 칠원동유적(중앙문화재연구원 2016), 해창리유적(경남문화재연구원 2017), 포승 흥원리유적(서경문화재연구원 2018), 용이 · 죽백동유적(한얼문화재연구원 2019), 지산동2 유적(기남문화재연구원 2020) 등이 대표적이다. 백봉리유적은 사지나 관아지가 아닌 단독으로 조성된 일반 가옥으로 주건물 좌측에 부엌공간을 갖춘 건물지로 보고 있으며, 지산동 부락산유적에서 확인된 건물지와 담장, 축대, 우물, 석렬유구 등은 계획된 하나의 공간 안에서 공간분할이 이루어져 사용된 것으로 고려시대 중 · 후기의 건물배치양식을 살펴볼 수 있다. 지산동2 유적의 건물지는 건물의 평면형태, 위치 등으로 12세기 전반~13세기 중반에 운영되었던 원 또는 그와 관련된 시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수혈은 대부분의 유적에서 확인되는데,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유적으로는 궁리유적(경기문화재연구원 2006), 동창리유적(삼강문화재연구원 2011), 여염리(중앙문화재연구원 2017), 좌교리 · 율포리유적(우리문화재연구원 2020), 좌교리 · 해창리유적(호남문화재연구원 2020), 세교동유적(한성문화재연구원 2021)이

있다. 내부에서 청자, 도기, 철술 등 다양한 유물이 확인되고 있으며, 인접한 건물지 및 주거지와 동시기에 운영되면서 저장 또는 생산 활동의 공간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무덤유적은 주로 구릉의 사면부에 등고선과 직교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두향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기보다 입지해 있는 곳의 구릉 정상부를 향하는 형태가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유적 내 유구의 밀집도가 낮은 경우가 많으며, 다른 시대의 유구와 복합되어 나타나지만, 생활유구와는 영역이 구분되어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유구의 밀집도가 높은 장당동유적(중앙문화재연구원 2015)은 고려 전 시기에 걸쳐 조성되었으며, 서정동·두릉리·여염리·궁리유적(서경문화재연구원 2018)과 칠원동유적(중앙문화재연구원 2016·2020)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조성된 묘역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 궁리유적(경기문화재연구원 2006)에서는 옹관묘 1기, 서정동·두릉리·여염리·궁리유적(서경문화재연구원 2018)에서는 와묘 2기가 확인된다. 출토유물은 자기와 도기뿐만 아니라 피장자의 위치를 가늠하게 하는 동경, 인장, 동전 등 다양한 유물이 확인되고 있다.

생산유적으로는 기와가마가 주로 나타난다. 기와가마는 구릉 사면부와 하단부에서 조성되며, 반지하식 또는 지하식 구조를 갖추고 있다. 2~4기 정도의 소군집을 이루고 있으며, 남산리유적(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갈곶리유적(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백봉리유적(기호문화재연구원 2010), 칠원동유적(중앙문화재연구원 2016), 가곡리유적(한울문화재연구원 2017), 소사동 솔밭말유적(중앙문화재연구원 2019) 등이 대표적이다. 제철관련 유적은 고령리유적(중부고고학연구소 2016)과 서정동·두릉리·여염리·궁리유적(서경문화재연구원 2018)에서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고려시대 유구의 상당 부분은 후대의 석평과 교란 등으로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수량적으로도 적은 편이다. 이에 아직 유구의 형태만으로 시대를 세부적으로 구분하거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청자, 고려백자 등 편년이 가능한 출토유물과 과학적 연대측정을 통해 시기를 판별하고 있다. 정형화된 유구가 아니거나 표지유물이 출토되지 않을 때는 같은 성격의 유구일지라도 시기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는 차후 발굴성과가 축적되어 분석 가능한 데이터가 많아지면 유구에 대한 속성분석 등을 통해 출토 유구의 시대나 성격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교통유적은 역참·도로 등으로, 교통로 상의 유적이거나 도로유구로 판단되는 수레바퀴흔 등의 조사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평택에서는 좌교리·해창리유적(호남문화재연구원 2020)에서 3기가 조사되었다. 도로유구는 유적이 위치한 구릉 하단부에서 진위천변을 따라 구릉을 감싸듯 휘어지는 양상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유구에 관한 형태상의 연구뿐만 아니라 교통로를 통한 교역과 교류에 관한 연구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방유적은 한시기에 사용되고 폐기되는 것보다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오랫동안 수축과 개축을 하면서 지속해서 활용되는 특징이 있다. 조사된 성곽은 고려시대에 이전에 초축되어 고려시대 또는 조선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토축과 토석혼축의 테피식 산성과 평산성으로, 유물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유물까지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다. 성곽은 지금까지 부분적인 조사만 이뤄진 채 지속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유적의 연혁이나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향후 전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유적의 입지 및 배치, 초축시기나 주사용시기 등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IV. 맺음말

고려시대 유적은 평택 전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주로 저구릉성 산지의 사면과 하단부 평지에 가까운 완경사면에 위치한다. 대부분 청동기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한 유적 안에서 긴 기간에 걸쳐 형성된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시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유구가 확인되는 복합유적에서 고려시대 유구가 확인된다. 복합유적 안에서 고려시대 유구의 빈도수는 높지 않은 편으로, 고려시대 유적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드문 편이다. 그러나 최근에 조사된 좌교리·해창리유적에서는 고려시대 유구가 일정구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양상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이러한 조사 사례가 증가하면 고려시대의 세부적인 편년 및 문화상 연구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국시대 평택의 철과 숯 생산

차순철/서라벌문화재연구원 조사단장

차 례

- I. 머리말
- II. 가곡리유적 연구사 검토
- III. 가곡리유적 철생산과 조업시기 검토
- IV. 중서부지방 측구식탄요 연대로 본 가곡리유적
- V. 맺음말

furnance)가 확인된 사례는 화성 기안동유적의 제련로 1기와 화성 기안리 유적의 단야로 12기와 본고에서 다룰 평택 가곡리유적(2단계) 2구의 제철로 2기, 폐기장 2개소, 3구의 제철로)²⁾ 6기와 폐기장 5개소 그리고 가곡리 유적(1단계)의 제련로 1기뿐이며, 유구의 잔존 평면형태를 통해서 원래 모습과 구조를 추정할 수 있는 사례는 가곡리유적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지역의 제철유적으로 소개된 사례를 살펴봐도 대부분 송풍관(送風管, blastpipe, tuyere, twyer), 철재(鐵滓, slag), 철괴(鐵塊), 노벽(爐壁)등과 단조작업과 관련된 완형재(碗形滓, Bowl type slag), 단조 박편(鍛造薄片, Hammer scale), 입상재(粒狀滓, grain slag)가 출토된 경우가 많으며, 토기편에 슬래그가 수착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출토사례로 볼 때 경기도 내 철생산유적에서 철광석이나 사철을 제련하여 괴련철을 생산하는 제련작업보다는 괴련철을 재용해하여 정련작업한 후 주조작업을 하거나 용해로에서 생산된 선철을 이용한 단조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용해로가 확인된 가곡리유적은 경기도 일대에서 이루어진 원삼국시대 철생산 모습과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표준유적의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 동 발굴조사 보고서에서는 2단계 1-5구에서 조사된 노의 성격을 괴련철을 생산하기 위한 제철로로 보았고, 이후 이를 정리한 최영민도 3구에서 조사된 노를 제철로로 보고 있지만 동 보고서에 수록된 금속학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곡리유적(1단계) 1구역 제련로에서 생산된 괴련철을 정련한 정련로로 보고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철광석을 용해하는 공정은 제련작업(제련로), 괴련철을 녹여서 주조하는 공정은 용해작업(정련로)으로 사용한다.(최영민, <29. 평택 가곡리유적(삼강)>, 《한반도의 제철유적Ⅱ》,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한국문화유산협회, 2022, 84쪽.)

II. 가곡리유적 연구사 검토

평택 가곡리유적은 진위2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위치하며 조성부지에 따라서 1단계, 2단계로 구분된 채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³⁾ 당시 조사 성과는 동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보고서가 발간되지 이전부터 주목을 받았으며, 제련, 정련작업과 관련된 논의와 검토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후 발굴조사 보고서가 출간되고 조사내용과 함께 수록된 금속학적 분석 결과는 동 유적에서 이루어진 철생산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를 촉진시켰다. 그리고 동 보고서 고찰에서는 동일 구릉에 접해 1차 공정인 제련로와 탄요의 존재를 소개하면서 이 일대가 대규모 제철생산유적으로 조업시키는 2세기 중후엽부터 조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가곡리유적에 대한 첫 소개는 심재연에 의해 이루어졌다.⁴⁾ 그는 경기남부 지역에서 철생산이 이뤄지고 철기제작을 위한 철소재 유물이 한강유역권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동 유적의 시기를 주구토광묘의 연대보다 이른 시기이므로 중부지역에서 가장 빠른 철생산유적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단 한 개의 유적에 불과하지만 평택지역에서 생산된 철소재가 한강유역의 마을에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김길식은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가곡리 유적과 인접한 평택 수구암리 유적⁵⁾에서 측구식탄요 3기가 조사되었고 유적과 인접하므로 이곳에서 철

3) 평택도시공사·한울문화재연구원, 《평택 가곡리 유적 -평택 진위2 일반산업단지(1단계) 조성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2017. 삼강문화재연구원, 《평택 가곡리 유적 -평택 진위2 일반산업단지(2단계) 조성부지 내 유적 시·발굴조사보고서-》, 2017.

4) 심재연, <‘원삼국시대’ 한강유역의 제문제-토기와 철기 생산을 중심으로-〉, 《백산학보》제107호, 백산학회, 2017, 201~202쪽.

5) 겨레문화유산연구원, 《평택 수월암리 유적-경동나비엔 신공장 부지 문화유적 시·발굴조사 보고서-》, 2013.

생산에 필요한 백탄을 공급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⁶⁾ 그리고 이들 측구식 탄요의 조업연대가 기원후 3세기 이후~삼국시대인 점으로 볼 때, 원삼국시대 후기~백제 한성시기 초기의 경기남부지역 철생산유적 조업시기와 부합하며 상당량의 목탄은 수운을 통해 원거리에 위치한 목탄 생산지에서 공급 받은 것으로 보았다. 가곡리유적의 운영집단은 낙랑계토기가 출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마한 특히 천안, 아산지역을 기반으로 한 목지국과의 연관성을 지적하면서, 마한 중심의 철생산 거점을 이후 백제가 이 지역을 장악하면서 낙랑계 이주민을 배치하여 철생산을 장악한 것으로 보았다.

최영민은 원삼국시대 제철유적의 유형을 1유형(철생산거점), 2지점(철기생산지점), 3유형(지역거점), 4유형(소비취락)으로 구분하고 화성 기안리유적과 평택 가곡리유적을 철생산, 철소재, 단조철기생산이 이루어진 철생산거점으로 보았다.⁷⁾ 그리고 이러한 1유형이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이후 여자형 주거지 분포권을 따라서 확대되어가는 모습을 상정하였다. 그리고 1유형은 사주식주거지(四柱式住居址)와 분구묘가 확인되는 마한문화지역에서만 확인되며 중도문화권지역에서는 단야와 용해주조만 확인되므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경기지역의 철생산은 서해안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했고, 이들에 의해서 중부지방 전체에 대한 철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면서 낙랑으로부터의 철공급 문제를 열어놓았다. 하지만 당시 지역 안에서 소비된 철의 규모로 볼 때, 한 지역이 아닌 해안과 내륙에 위치한 복수의 철생산거점을 생각해야 할 것으로

6) 김길식, <원삼국~백제 한성기 경기남부지역 제철기지 운용과 지배세력의 변화 추이>, 《백제문화》제56권,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7, 95~96쪽.

7) 최영민, 《고대 한반도 중부지역의 제철기술 연구》, 진인진, 2017, 180~181쪽.

생각한다.⁸⁾ 또한 《한반도의 제철유적Ⅱ》중 경기도 내 제철유적 중 가곡리 유적에 대한 원고 내용 중 주구묘와의 중복관계에 근거하여 조업시기를 기원전 2세기 중엽부터 이루어졌으며, 제련과정 중 슬래그와 철을 분리하기 위해 조제재(造渣劑, Slag former)⁹⁾를 첨가했다고 기술하고 있다.¹⁰⁾

이후 가곡리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되고 출토 제철관련 유물에 대한 금속학적 분석이 이루어지면서 유구의 조업시기와 성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먼저 조업시기 문제는 가곡리유적(2단계) 2구 구릉부 동쪽에 위치한 35호 제련로와 그 부산물이 폐기된 54호 폐기장 상부에 중복된 68호~71호 주구묘 사이의 연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김무중은 가곡리(2단계) 2구 69호 주구묘 출토 장검과 철모의 연대를 가곡리Ⅱ 단계로 설정하고 3세기 전엽~3세기 중엽경으로 편년하였다.¹¹⁾ 이러한 연대관으로 본다면 35호 제련로의 조업시기는 최소한 3세기 전엽 이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소배경은 금속학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련로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제련로에서 생성된 철괴나 괴련철을 이용해 철정 등의 운반이 용이한 철소재를 생산한 후 수로를 이용해 주변지역에 공급한 것으로 보았다.¹²⁾ 한편 3구 6호 자연구의 양쪽 사면에서 제철로와 폐기장이 확

8) 후술하겠지만 경기도 양주시에서 영남지역에서 조사된 측구식탄요 중 조업시기가 기원전후 시기로 추정되는 측구식탄요와 유사한 형태의 숯가마가 조사된 점은 백탄의 생산시기가 올라가면서 동시에 철생산유적의 조업시기 역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9) 조제제로 사용된 물질은 석회질로 분석결과 산화칼슘(生石灰, CaO)로 추정되었는데, 조개껍질이나 석회석 등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10)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한국문화유산협회, 《한반도의 제철유적Ⅱ》, 2022, 84~91쪽.

11) 김무중, 〈3. 평택 가곡리 유적 주구묘 출토 토기 검토〉, 《평택 가곡리 유적-평택 진위2 일반산업단지(2단계) 조성부지 내 유적 시·발굴조사보고서-》, 삼강문화재연구원, 2017, 435쪽.

12) 소배경, 〈4. 평택 가곡리 유적 제철로 검토〉, 《평택 가곡리 유적-평택 진위2 일반산업단지(2단계) 조성부지 내 유적 시·발굴조사보고서-》, 삼강문화재연구원, 2017a, 443쪽.

인되었는데, 이 자연구가 매몰된 후 그 위에 주구묘가 만들어지면서 자연구를 파괴했기 때문에 6호, 7호 자연구가 폐기된 이후 주구묘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르면 주구묘와 제철로의 시기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제련노의 명칭을 제철로로 사용했는데 이는 유적 내 작업공정이 제련보다는 괴련철 등을 다시 정련하여 용해 또는 단야작업하기 직전에 철성분을 조정하기 위한 정련과정으로 보았던 점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업시기에 대해서는 마한과 관련된 유적으로 추정하면서 인접한 화성 기안리유적에서 백제 한성시기의 토기가 출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기안리 유적의 조업시기를 3세기 전중엽으로 보는 의견¹³⁾을 따랐다. 그 결과 가곡리유적 54호 폐기장 상부에 중복된 주구묘의 조성시기를 2세기 후반에서 3세기 중엽으로 판단하고, 제련로의 시기를 주구묘보다 빠르거나 동시기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기안리유적에서 출토된 낙랑토기를 근거로 철생산 조업집단을 낙랑계 제철기술의 유입으로 보는 시각을 소개하면서, 백제 한성기 이전에 이미 철생산 기술이 도입되었고 이는 마한 내에서도 제철관련 장인집단이 있었다고 보았다.

가곡리유적(2단계) 부지 내 유적에서 출토된 제철관련 유물에 대한 금속학적 분석을 한 신경환, 이남규, 이재용, 최영민은 시료 분석결과 보고에서 반환원괴(半還元塊, Proto-reduction Lumps)¹⁴⁾를 정련하고 이를 정련단

13) 김무중, <화성 기안리제철유적 출토 낙랑계토기에 대하여>, 《백제연구》40,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2004, 73~97쪽.

14) 우리나라 전근대 제철에서는 제련공정에서 광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용선을 거치지 못하고, 선철(환원괴), 괴련철(반환원괴)등을 생산한 후 이를 다시 용해하여 용선을 생산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때 반환원괴·환원괴와 괴련철·선철의 개념이 혼동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철광석을 환원시키는 제련공정의 특성상 환원이 완료된 환원괴와 그 과정 중의 반환원괴로 구분하는 것이며, 제련공정에서 형성되는 생산품에 한정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신경환·이남규·최영민, 《한국고대 製鍊기술》, 금속기술연구소, 2013; 신경환·김권일·최영민, <석축형제철로(石築型製鐵爐)의 조업방식 연구>, 《야외고고학》제22호, 한국매장문화재협회(현 한국문화유산협회), 2015, 96쪽 각주 18 재인용.)

야공정으로 보내 철소재를 생산하는 정련공정을 위한 반지하식 정련로로 보았다.¹⁵⁾ 또한 반환원괴의 정련이 이루어진 제철유적에서 제련로가 함께 확인되며, 괴련철을 생산하는 기술과 함께 이를 정련하는 기술도 도입되었으며 철생산과 정련이 같은 지역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하지만 철광석이나 유출재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철 제련작업의 존재는 확인할 수 없지만 원료가 되는 반환원괴는 가곡리유적(1단계) 내 제련로에서 확인되기에 이곳에서 제련작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면 추가적인 시료분석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가곡리유적(1단계) 1구역 남측 구릉 경사면 말단부에서 조사된 제련로는 보존결정되어 이전복원 되었다. 철생산유적에 대한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성형미는 제련로에 대한 고고자기연대측정결과를 기원후 290~380년으로 보고했다.¹⁶⁾ 이 연대는 가곡리유적 2단계 2구역에서 조사된 제련로와 폐기장의 조업시기를 2세기 후반 이후로 본 시각에 비해 최소 100년 이상 늦게 보는 연대관을 보여준다.

조남철과 이유나는 제철부산물에 대한 금속학적 연구를 하였다.¹⁷⁾ 분석결과 철재 중 유출재를 분석한 결과 이산화규소(SiO_2)와 산화알루미늄(Al_2O_3)의 함량이 각각 32.29%와 11.9%로 높으며, 산화철(FeO)의 함량이 34.89%인 것으로 보아 고온으로 인해 바탕은 유리질화 된 산화물이며, 산화칼슘(CaO) 함량이 14.18%로 높은 점으로 보아 조재제를 사용한 것으로

15) 신경환·이남규·이재용·최영민, <1. 평택 가곡리 유적 출토 제철관련 유물의 금속학적 분석 및 고찰>, 《평택 가곡리 유적 -평택 진위2 일반산업단지(2단계) 조성부지 내 유적 시·발굴조사보고서-》, 삼강문화재연구원, 2017, 355~390쪽.

16) 성형미, <2. 평택 가곡리 유적에 대한 고고자기적 연구>, 《평택 가곡리 유적 -평택 진위2 일반산업단지(1단계) 조성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평택도시공사·한울문화재연구원, 2017, 597쪽.

17) 조남철·이유나, <3. 평택 가곡리 유적 제철부산물의 금속학적 연구>, 《평택 가곡리 유적 -평택 진위2 일반산업단지(1단계) 조성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평택도시공사·한울문화재연구원, 2017, 599~620쪽.

추정되었다. 그리고 주성분 분석결과 철재에 남아있는 철 성분을 의미하는 전체 철량 값이 낮은 점으로 볼 때, 철 회수율이 높았다고 추정되었다. 철 광석은 이산화티타늄(TiO_2)의 평균 함량이 0.42%로 소량 검출되었고 오산화바나듐(V_2O)의 함량은 아예 검출되지 않거나 0.01% 내외로 검출되어 철 광석을 사용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자철석(磁鐵石, Magnetite)과 적철석(赤鐵石, hematite)가 검출된 점으로 볼 때 자철광과 적철광이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최종규는 가곡리유적의 성격을 검토하면서 기원후 1~3세기에 조성된 주구묘와 분구묘를 구분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에서 조사된 이들 분묘 유형을 소명문화(昭明文化)¹⁸⁾로 규정하고 동 문화의 청당동유형에 속하며, 그 북쪽 한계는 청당동유적의 분포권으로 판단되므로 운양동유형은 이 북쪽 경계를 뛰어넘은 지점에 성립된 동일문화 유형에 속한다고 보고 중도문화권과 다른 문화권이 존재했다고 보았다.



그림 2. 소명문화권(최종규 2016 일부수정)

18) 최종규, 〈昭明文化〉, 《고고학탐구》19, 고고학연구회, 2016. 최종규, 〈1. 평택 가곡리 유적의 문화적인 귀속〉, 《평택 가곡리 유적 -평택 진위2 일반산업단지(2단계) 조성부지 내 유적 시·발굴조사보고서-》, 삼강문화재연구원, 2017, 415~390쪽.

하지만 운양동유형의 성격이 낙랑과 관련된 한과 북방계 유물을 중심으로 한 점에 비해서 청당동유형은 낙랑계 유물을 수용하면서 이를 재지화한 모습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두 유형은 생활문화에 있어 낙랑과의 친연도에서 차이를 가졌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낙랑과의 밀접성 때문에 제철기술이 평택, 화성지역에 전파되어 확산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이 가곡리유적에 대한 여러 분야의 연구를 살펴보면 유적의 조업시기를 2세기 중반 이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3세기대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유적에서 조사된 노의 성격을 제련로 또는 정련로로 보는 문제와 노에서 생산된 철을 철광석을 제련하여 얻은 해면철(海綿鐵, Sponge iron)인가 아니면 이를 다시 정련하여 얻은 괴련철(塊鍊鐵, Bloomery iron)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가곡리유적에 대한 향후 연구는 조업시기와 생산된 철소재가 어느 지역에서 소비되었는가라는 문제로 귀결될 수 밖에 없으며, 당시 평택지역을 중심으로 인접한 화성지역을 아우르는 고대 철생산유적이 입지하게된 사회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적에서 조사된 원삼국시대의 제철로와 폐기장 그리고 그 위에 조성된 분묘군의 조성시기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크며, 당시 지역 내 어디에서 철생산에 필요한 백탄을 공급받았는가라는 문제 역시 중요하다. 평택과 화성 지역에는 당시 백탄을 생산했던 측구식탄요가 다 수 분포하는데, 철생산에 필요한 연료를 어떻게 생산하여 공급했는가라는 문제는 중요하다. 이는 철소재의 공급과 함께 작업에 필요한 철광석이나 해면철 또는 철소재가 어떻게 공급되어 소비되었는가를 알려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본고에서는 평택과 그 주변지역에서 조사된 원삼국시대 철생산유적과 숯생산시설인 측구식탄요의 분포와 특징을 통해서 가곡리유적의 조업시기가 가진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가곡리유적 철생산 조업시기 검토

가곡리유적 내 제련로의 조업시기는 주구묘와의 중복관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가곡리유적(2단계) 2구 구릉부 동쪽에 위치한 35호 제련로와 그 부산물이 폐기된 54호 폐기장 상부에 중복된 68호~71호 주구묘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만들어지 제련로와 부산물 폐기장 상부에 주구묘가 축조되었으며, 분묘의 주구 안에서 송풍관, 슬래그 등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중복관계에 의해서 선축된 제련로와 부산물 폐기장과 후축된 주구묘 사이의 간극이 어떤가에 대한 문제가 계속 논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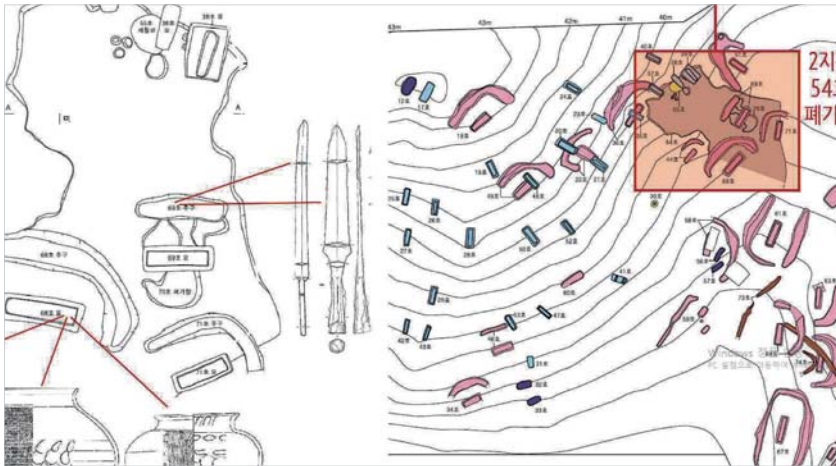


그림 3. 가곡리유적(2단계) 2지구 54호 폐기장과 주구묘 중복상태 (삼강문화재연구원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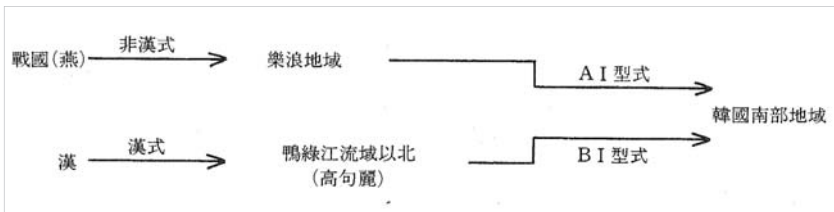


그림 4. 철모의 전파경로(高久健二 1997)

가곡리유적(2단계) 보고서에서는 2구 주구묘에서 출토된 관부(關部)가 돌출된 철모와 철검 등의 출토유물로 볼 때, 분묘의 조성시기를 2세기 후반에 출현하여 3세기 중엽을 전후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시기 철모는 대체로 각각 유관식(有關式)→무관식(無關式), 직기형(直基形)→연미형(燕尾形), 장형(長形)→단형(單形), 편능형계(片菱形系)→능형계(菱形系)로 변화되는 것으로 파악¹⁹⁾되는데, 경기의 김포 운양동유적의 철모에 대해 관부의 모습에 따라서 직기형은 직관형(直關形), 이단관형(二段關形), 관부돌출형(關部突出形)으로 세분되며, 연미형은 단일 형식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변화과



그림 5. 평택 가곡리유적(2단계) 2구 주구묘 출토 철기(삼강문화재연구원 2017)

19) 성정용, 《중서부 마한지역의 백제영역화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정을 파악한 의견²⁰⁾과 철모의 기부형태가 직기형인 것은 전국시대(戰國時代) 연(燕)계통의 비한식(非漢式)으로 연미형인 것은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²¹⁾하거나 직기형 철모의 계보를 전국시대보다는 황하유역권의 한(漢) 문화와 관련시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²²⁾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성과로 볼 때, 본 유적 출토 관부돌출형철모는 중국 전국시대 연계통의 철모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부 단면형태가 렌즈형이나 편능형인 것, 능형에 가까운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연미형은 모두 신부 단면형태가 능형에 가까운 것이다. 늦은 단계의 자료로 연미형 중에는 관부가 형성되지 않은 무관식도 소수 보이는데, 신부 단면형태가 렌즈형이나 편능형인 것은 관부 형태에 따라 직각에 가까우며 공부의 너비가 넓은 것(일단, 이단), 관부가 돌출된 것, 관부가 약한 호형인 것으로 나누고 금강유역 원삼국시대 마한분묘 출토 철모를 분석한 연구²³⁾에 기반하여 가곡리유적의 분묘문화를 천안, 아산지역의 분묘문화와 동일한 것²⁴⁾으로 본 점은 마한지역과의 연관성을 강조한 모습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20) 김길식, <2~3세기 한강 하류역 철제무기의 계통과 무기의 집중유입 배경 -김포 운양동유적 철제무기를 중심으로->, 《백제문화》50,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 2014소, 135~ 175쪽.

21) 高久健二, <한국출토 철모의 전파과정에 대한 연구>, 《고고역사학지》8집, 동아대학교박물관, 1997, 254쪽.

22) 이남규는 위원 용연동 유적 출토품이 전국계의 직기형이기는 하지만, 서북한 지역에서 기원전 3~2세기의 철제 무기들이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낙령 철모의 계보를 전국시대로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이남규, <낙랑 지역 한대 철제 병기의 보급과 그 의미>, 《낙랑문화연구》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20, 동북아역사재단, 2007, 221쪽 각주 74.)

23) 서현주, <금강 유역 원삼국시대 유물양상>, 《금강·한강유역 원삼국시대 문화의 비교연구》 2016s년 호서고고학회·중부고고학회 합동 학술대회, 호서고고학회·중부고고학회, 2016, 117쪽.

24) 소배경, <3. 평택 가곡리 유적의 주구묘>, 《평택 가곡리 유적 -평택 진위2 일 반산업단지(2단계) 조성부지 내 유적 시·발굴조사보고서->, 삼강문화재연구원, 2017b, 42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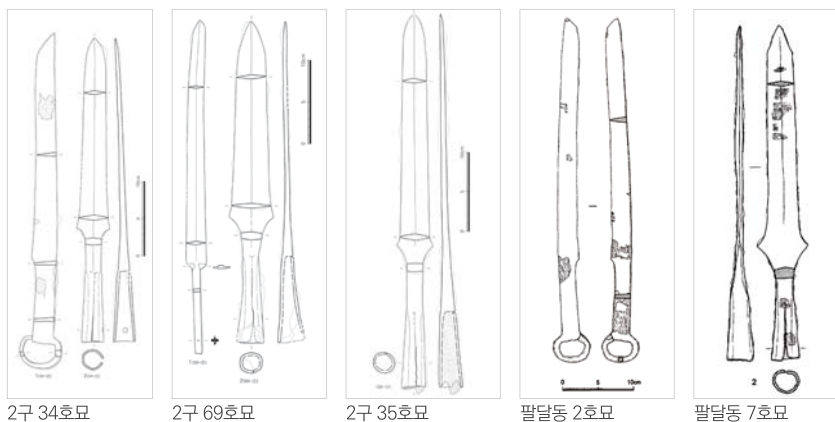


그림 6. 평택 가곡리유적(2단계) 2구 주구묘 출토품과 대구 팔달동유적 출토품 비교

관부가 돌출된 철모의 경우 영남지역에서 확인된 연대²⁵⁾를 참고할 때, 가곡리유적 출토품은 대구 팔달동유적²⁶⁾ 2호, 7호 목곽묘 출토품과 동시기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 분묘의 연대는 신동조의 형식구분 중 I Ac식으로 볼 때, 기원후 2세기 중반~4세기 후반 사이에 위치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가곡리유적 2구 출토 철모는 신부와 관부의 비율이 2:1내외를 유지하는 모습으로 볼 때, 철모 신부의 장신화가 이루어지기 전 모습으로 볼 수 있으므로 2세기 후반경으로 볼 수 있다.

김길식은 한강 하류역에 철제무기가 도입된 시기구분안을 제시하면서 이 시기를 2기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김길식의 편년안에 따르면 1기는 북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평면 5각형의 무경역자형촉, 무경릉형촉, 직기형의 직각관철모, 폭이 좁고 세장한 직각관부에 신부 단면이 편릉형인 철장검 등이 김포 운양동유적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시기로 중도유형문화권역의 산물로

25) 신동조, 《영남지방 원삼국시대 철부와 철모의 분포정형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고고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26) 대구직할시·경북대학교박물관, 《대구 팔달동유적》,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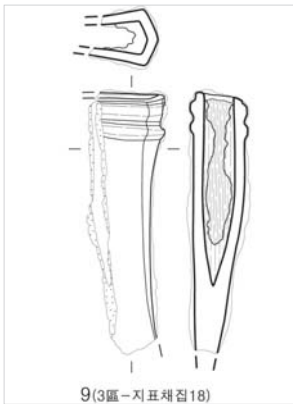


2구 제련로, 폐기장과 주구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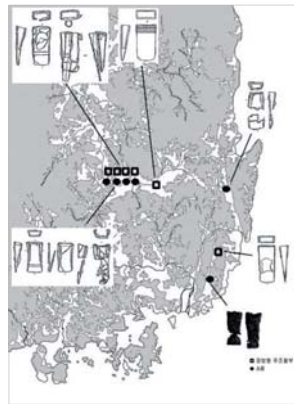


3구 제련로, 폐기장과 주구묘

그림 7. 평택 가곡리유적(2단계) 2구, 3구 유구배치도 부분(삼강문화재연구원 2017)



3구 지표채집품



영남지역 목곽-1기 주조철부 분포도

그림 8. 가곡리 3구 지표채집품과 영남지역 주조철부 분포도(류위남 2009)

추정하면서 그 시기는 2세기 중엽~2세가 후반대로 보고 있다.²⁷⁾의 운양동 유적 II기(3세기)에 상당하는 것으로 볼 때, 이때부터 운양동유적을 중심으로 한 한강 하류역 집단과 마찬가지로 진변한 지역으로부터 대량의 철제 무기들이 유입되어 철제무기의 최성기를 이룬 시기로 볼 수 있다. 추정되

27) 진수정, <5. 가평 대성리유적의 출토유물 원삼국시대를 중심으로>, 《가평 대성리유적》, 기전문화재연구원, 2009.

므로 주구묘의 조성시기는 조금 더 상향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크다.

한지민의 철모 구분안에 따르면 I-2단계로 구분된 김포 운양동 1-11지점 12호 분구묘 출토품과 청주 오송유적 15지점 39호 토광묘 출토 철모를 가곡리 2구 출토품과 비교할 수 있는데, 이 단계의 시간적 범위는 2세기 말엽~3세기 중엽으로 보았다.²⁸⁾ I 단계에서는 철모를 비롯한 동반유물에서 영남지역을 포함한 외부 세력과의 교류가 관찰되었으며 철모가 위세품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상과 같이 가곡리유적에서 출토된 철모를 중심으로 중부지역에서 이루어진 제논의를 살펴본 결과, 2구 주구묘에서 출토된 관부돌출형철모의 시기는 2세기 중엽을 상한으로 한다.



그림 9. 김포 운양동유적 분구묘 출토유물(한강문화재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2013)

다음으로 제련로 폐기장과 주구묘가 중복된 사례를 통해서 철생산유적과 분묘유적 사이의 시간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선축된 2구 55호 제련로와 주변의 54호 폐기장 상부와 주변에는 70호 폐기장과 여러 기의 주

28) 한지민, 《중서부지역 원삼국~백제 한성기 철모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49쪽.

구묘가 중복된 모습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54호 폐기장이 선축된 후 70호 폐기장이 후축되거나 아니면 동시기에 만들어진 것이 삭평으로 인해 각각 구분된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2구 70호 폐기장 상부에는 69호 주구묘가 중복되었고, 54호 폐기장 상부에는 68호, 69호, 71호 주구묘가 중복되었다. 36호 주구묘는 37호 조선묘로 인해 54호 폐기장과의 중복 여부는 분명하지 않지만 주구묘가 배치된 모습으로 볼 때, 목관의 장축방향이 동일하므로 여타 주구묘와 같은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주구묘는 아마도 사방을 구로 둘러싸고 한쪽 또는 양쪽으로 출입구를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데 주구 안에 위치한 목관묘의 장축방향은 동-서 또는 남-북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3구에서는 6호 자연구의 양쪽 사면에서 1호, 2호, 18호, 20호, 21호, 24호 제철로와 19호, 26호, 39호, 40호, 42호 폐기장이 확인되었다. 3구 6호, 7호 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철생산유적이 조업할 당시 반입된 유물로 추정되는데, 토기편, 송풍관편이 중심이다. 이외도 3구 지표채집 유물로 이조돌대주조철부(二條突帶鑄造鐵斧)편 1점이 확인된다. 비록 지표채집품이지만 이 주조철부는 공부 단면형태가 육각형으로 합천 저포리유적 A지구 40호묘, 함안 말산리 3호묘, 김해 대성동 45호묘 출토품이 있으며 공부에 횡돌선 2조와 인부가 선행(扇形)인 형태를 하고 있다. 이러한 주조철부의 기원은 중국 길림성 유수노하심(榆樹老河深)유적²⁹⁾에서 찾고 있으며³⁰⁾, 돌대의 유무에 따라서 시기차가 확인된다. 유위 남은 이러한 주조철부의 출현시기에 대해서 자신의 편년안 중 목곽-1단계로 보고 김해지역에 처음 유입된 후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서부경남지역

29)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榆樹老河深》, 文物出版社, 1987.

30) 김일규, 〈한강 중·하류역의 중도식토기 편년소고〉, 《석헌 정정원교수 정년 퇴임 기념논총》, 2006.

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가진다고 보았다.³¹⁾ 류위남은 말산리 3호묘에서 출토된 주조철부의 연대를 2세기 중후반으로 보는 의견에 대해서 시기가 내려올 것으로 보고 합천 저포리 A지구 40호묘에서 출토된 오이부직구호(五耳付附直口壺)와 철촉의 교차편년을 통해 얻어진 연대가 3세기 2/4분기임을 고려할 때 영남지역에서 출토된 이조돌대 편육각형공부를 가진 주조철부의 사용연대는 3세기 전반으로 보았다. 류위남의 연대관을 받아들인다면 가곡리유적 3구에서 지표수습된 주조철부의 사용시기는 대체로 2세기 중후반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강원도 철원 와수리유적 26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이조구연돌대주조철부와 공부 단면형태가 육각형으로 판단되는 주조철부 그리고 철경부삼각형동촉(鐵莖附三角形銅鏃)으로 볼 때, 사용시기는 기원전 2세기 후반까지 소급할 수 있으며, 무경역자식철촉(無莖逆刺式鐵鏃)으로 보면 그 하한연대는 기원후 1세기 중반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³²⁾ 그리고 최근 조사된 경기도 남양주 금남리유적³³⁾의 초기철기~원삼국시대 목관묘와 가평 달전리유적 목관묘의 존재는 기원전 1세기를 즈음하여 서북한지역의 낙랑군을 위시한 제 군현들과의 연관성을 알려준다.

또한 김포 운양동유적³⁴⁾ 분구묘³⁵⁾에서 출토된 북방계 금제이식, 퇴화된 세형동검³⁶⁾과 관부돌출형철모의 존재와 인천 운남동패총 B지구에서 출토

31) 류위남, <삼한시대 영남지역 출토 주조철부와 판상철부 연구>, 《영남고고학》51호, 영남고고학회, 2009, 61~108쪽.

32) 강원문화재연구소·농업기반공사 철원지사, 《철원 와수리 유적-철원 아수리 신별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 내 시굴조사》, 2006, 119쪽.

33) 부천시·한강문화재연구원, 《남양주 금남리 유적》, 2022.

34) 한강문화재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 운양동 유적 I》, 2013.

35) 분구묘로 보고되었지만 가곡리유적에서 조사된 주구목관묘와 동일한 묘형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주구 안쪽에서 성토된 봉분이 확인되어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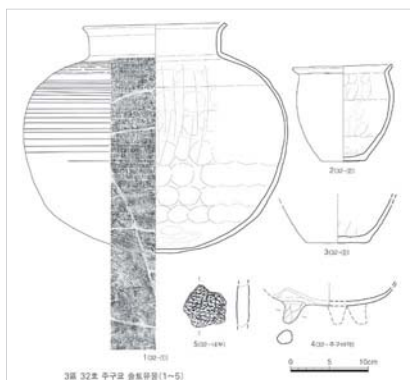
36) 이 세형동검의 연대를 기원전 3세기 후엽으로 추정했지만 공반유물 중 가평 대성리유적에서 출토된 철판을 잘라서 만든 능형화살촉이 공반된 점으로 볼 때 기원후 1세기 이후로 추정된다.

된 중국 화천(貨泉)과 철경부삼각형동축 그리고 철착, 철부와 같은 다양한 철제 공구의 존재³⁷⁾는 서북한지역에서 서해안지역을 따라서 내려오는 한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가 공존되는 모습과 함께 원삼국시대 마한의 재지세력이 백제에 편입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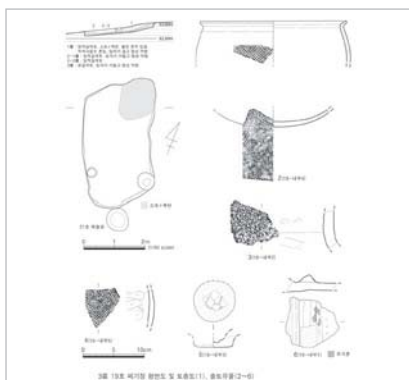
김포 운양동유적 1-11지점 3호 분구묘에서는 이단병식철모와 관부돌출형철모가 공반되며 1-11지점 27호 분구묘에서는 퇴화된 세형동검과 낙랑계토기가 공반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단병식철모의 경우 영남지역 편년관을 기준할 때 2세기 전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운양동 분구묘 I-1기에 속하는 분구묘 중 이단병식철모가 공반되지 않는 분묘의 조성시기는 2세기 전반보다 이른 시기로 올라간다고 추정된다. 또한 세형동검 역시 동 보고서에서는 기원전 3세기경으로 추정했지만 그 연대 역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운양동유적 I 기와 II기의 차이를 철제장검과 환두대도의 부장유무로 구분한 김기옥의 연대관³⁸⁾을 따르면 장검의 길이가 100cm에서 60cm 정도로 줄어들며 관부돌출형철모 중심으로 변화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운양동 분구묘 조성시기는 2세기 중엽~3세기 후반으로 보고있지만, 1-11지구 12호 분구묘의 AMS연대측정결과가 기원전 1세기~기원후 1세기로 나온 점과 동 분구묘의 변화가 1-11-3호에서 12호, 13호, 14호 순서로 변화되는 점으로 볼 때, 1-11-3호 분구묘의 연대는 기원전 1세기 이전까지 올려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편년관은 으로 본다면 가곡리유적의 분구묘는 운양동유적 I-2기와 평행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2세기 중엽으로 본 연대 역시 2세기 전반까지 올려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37) 한국고환경연구소·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인천 운남동 패총》, 2011, 154~155쪽 도면 88~89.

38) 김기옥, <1. 김포 운양동 분구묘>, 《김포 운양동 유적 I》, 한강문화재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 2013, 670~689쪽.



3구 32호 주구묘 출토유물



3구 19호 폐기장과 출토유물

그림 10. 평택 가곡리유적(2단계) 3구 32호 주구묘 및 19호 폐기장 출토유물
(삼강문화재연구원 2017)

IV. 중서부지방 측구식탄요 연대로 본 가곡리유적

가곡리 유적 철생산과 관련된 조업시기는 대체로 기원후 2세기 중엽경으로 보는 것 같다. 이는 2구 54호 폐기장 상부에 중복된 주구묘의 연대에 기반한 연대판이다. 가곡리유적 내 분구묘는 2구가 선행하고 이후 3구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2구 주구묘는 선축된 제련로와 폐기장의 연대를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주구묘와 평행하거나 조금 이른 시기로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2구 55호 제련로와 주변의 54호 폐기장이 만들어진 시기는 주구묘보다 이른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김포 운양동유적에서 관부돌출형철모가 출토되는 시기를 2세기 전반경으로 본다면 가곡리유적 2구 54호 제련로는 그 평면형태와 규모로 볼 때, 이보다 이른 시기인 1세기까지 시기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렇게 제철기술이 도입된 곳은 낙랑군을 위시한 서북한지역의 군현들과 관련시켜봐야 할 것이며, 최근 영남지역에서 조사된 측구식탄요의 연대를 반영한다면 그 시기는 기원전후 시점

까지 올라갈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3구 주구묘는 6호, 7호 자연구가 매몰된 후 그 위에 만들어지면서 중복된 모습이며, 동 보고서 고찰을 따르면 주구묘와 제철로의 시기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였다.³⁹⁾ 다만 3구 32호 주구묘 주구 바닥에서 삼족기로 추정되는 토기편이 출토된 점 그리고 19호 폐기장에서 출토된 돌출형저부 대호편과 여타 토기편으로 볼 때, 조업시기는 2세기 후반 또는 그 이전으로 볼 수 있지만, 주구묘 주구에서 백제 한성기 토기가 출토된 점은 적어도 주구묘가 조성된 이후 어느 시기에 마한지역으로 백제문화가 확산되었음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3구 주구묘의 하한연대는 백제 한성기에 이 지역이 백제영역 안에 포함된 사회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2구에서 조업한 55호 제련로의 연대를 기원전후~기원후 1세기 중엽경으로 올려볼 수 있는 근거자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이 시기 중서부지역 내 집단이 서북한지역의 군현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존재했는가라는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한 《동아시아 고대 철 제련기술 연구 목록집》에 수록된 국내 탄요현황과 필자가 보완한 내용을 토대로 전국에 소재한 목탄요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을 파악한 결과,⁴⁰⁾ 2023년 5월 기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국내에서 발굴조사된 목탄요는 전국적으로 1,978기⁴¹⁾ 이상으로 추정된다.⁴²⁾

39) ·소배경, 앞의 글, 2017a.

40)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동아시아 고대 철 제련기술 연구 목록집》, 2021.

41) ·2023년 11월 현재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한 목록집에 수록된 탄요는 모두 1,678기이며, 이에 필자가 추가로 확인한 300기를 추가하였다. 차순철, 〈철 생산과 철기 제작 연료에 대한 검토〉, 《백제의 성장과 철문화》 2023 한성백제박물관·한국철문화연구회 공동위크숍, 한성백제박물관·한국철문화연구회, 2023, 64~76쪽.

42) ·원삼국~통일신라시대의 측구식탄요 현황은 발굴조사 보고서가 출간되어 그 내용이 확인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 1. 국내 목탄요 현황

지역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특별/광역시/특별자치시							
			경남	경북	울산	광주	대구	부산	대전	세종	서울	인천
수량 (기)	14	456	60	264	154	1	4	5	12	48	10	9

지역	충청도		전라도		제주	계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수량 (기)	88	800	16	33	4	1,978

이중 원삼국~삼국시대의 측구식탄요는 전국적으로 843기가 조사⁴³⁾되었는데, 이중 원삼국시대의 탄요로 보고된 사례 중 조선시대 무측구식탄요 안에서 출토된 유물을 기준으로 삼국시대로 본 사례도 확인⁴⁴⁾되지만, 적어도 측구식탄요의 분포와 측구의 수가 변화하는 모습과 출토유물 그리고 AMS연대측정결과를 통해서 그 시기를 구분할 수 있다. 경기도 일대에서 조사된 원삼국~삼국시대 측구식탄요는 모두 40기가 확인되는데, 그 분포를 살펴보면, 김포, 오산, 평택, 화성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해안지역과 양주, 파주, 용인, 이천, 여주를 중심으로 하는 내륙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탄요의 분포는 지역별로 편중되기보다는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한다고 볼 수 있으며, 교통로를 따라서 탄요가 입지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43) 원삼국~삼국시대 탄요 중 일부 지역에서는 무측구식탄요의 존재가 보고되어 있으며, 충청북도지역과 울산광역시에서는 삼국시대 말에 측구식탄요의 측구가 소멸되거나, 세장방형의 무측구식탄요가 출현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44) 광주 오룡동유적 A지구 17호 주거지 내부에서 확인된 추정 가마는 형태로 볼 때, 조선시대 탄요로 여겨지는데, 10호 유구로 보고된 타원형 수혈 내부에서 굴착흔과 조선시대 유물이 확인된 점은 추정 가마의 시기를 삼국시대 보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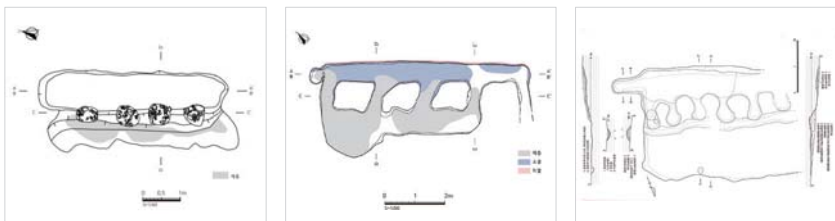
목포대학교박물관·광주광역시, 《광주오룡동유적》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발굴조사보고서1, 1995.

다만 해안지역에서는 삼국시대 철생산과 관련된 유적들이 탄요와 함께 확인되고 있지만, 내륙지역에서는 단야유적 외에는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한계를 보여준다.

표 2. 경기도지역 측구식탄요 현황

지역	김포	안성	여주	양주	오산	용인	이천	파주	평택	화성	계
수량 (기)	3	1	2	5	5	1	5	2	5	13	41

결국 탄요의 조성목적인 백탄의 생산과 그 소비처인 철생산유적과의 상관관계를 연결할 수 있다면, 한성백제기 경기도지역의 철생산 거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탄요의 형태변화를 통한 조업시기비정을 통해 철생산 기술의 유입경로와 운영집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주 부곡리 산36-1번지 1구역 1호

양주 부곡리 산36-1번지 1구역 5호

화성 기안리유적

그림 11. 양주 부곡리 산36-1번지 유적과 화성 기안리유적의 측구식탄요

이중 평택과 인접한 화성지역에서 조사된 삼국시대 측구식탄요는 모두 18기로 전체의 43.9%로 중심연대는 3세기로 추정된다. 하지만 경기도 지역에서 조사된 삼국시대 측구식탄요 중 양주 부곡리 산36-1번지 유적 1호 측구식탄요는 측구를 만들면서 적심처럼 돌을 채운 모습이 확인되며, 측구의 수가 5개로 다른 탄요들에 비해 수가 작다. 또한 화구가 유실된 것으로 보았지만 소성실의 깊이가 더 낮은 점으로 볼 때, 화구에서 소성실로 완전

하게 올라가는 일반적인 형태와 차이를 보여준다. 앞서 영남지역의 측구식 탄요 조사사례로 볼 때, 측구의 수는 살펴보면 초기의 경우 2~5개 정도에서 점차 6~8개 내외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⁴⁵⁾ 그러므로 양주 부곡리 산36-1번지 유적 1호 측구식탄요는 측구가 3개로 현재까지 발굴조사된 사례 중 가장 이른 형식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동 유적 2호 측구식탄요 역시 극세장방형의 소성실을 갖추었지만 측구의 수가 4개인 점으로 볼 때, 모두 초기형 측구식탄요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유적 북동쪽 약 13km 지점에 위치한 양주 옥정동유적⁴⁶⁾ 2구역에서 제철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원삼국~삼국(백제)의 소구경송풍관과 토제용범, 철판 등이 확인되어 단야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추정된 점⁴⁷⁾으로 볼 때, 당시 철생산과 관련된 탄요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유적을 제외한 다른 유적에서 조사된 삼국시대 탄요를 살펴보면 대부분 측구의 수가 8개~16개로 그 수가 차이를 보여주며, 이는 시기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기도에서 조사된 측구식탄요의 분포를 살펴보면 조사한계는 있지만 지역별로 비교적 고르게 확인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당시 탄요의 조업이 인접한 철생산 또는 철기제작공방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임을 짐작하게 한다. 특히 화성 기안동유적⁴⁸⁾ IV지점에서는 제련로 1기와 폐기장 5기가 확인되었고, 기안리유적⁴⁹⁾에서는 측구식탄요 외에도 단야로

45) 최근 영남지역에서 조사된 측구의 수가 2~3개인 측구식탄요의 조업시기는 기원전 1세기 중반부터 기원후 1세기 경으로 AMS연대측정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며, 공반유물 역시 초기철기시대 유물인 두, 점토대토기 등이 보고되고 있다.

46) 한국문화유산연구원, 《양주 옥정동 유적》, 2012.

47)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한국문화유산협회, 〈16. 양주 옥정동유적〉, 《한반도의 제철유적Ⅱ》, 2022, 55~56쪽.

48) 국립중앙박물관, 《화성 기안동 제철유적-홍익대학교 실습부지내 학술발굴조사 보고서-》, 2016.

49) 기전문화재연구원·(주)풍성주택, 《화성기안리 유적-풍성아파트 건립부지내 유적 시, 발굴조사보고서-》, 2007.

12기, 공방지 5기, 폐기소토부와 배소작업을 한 철광석, 철재, 단조박편, 입상재, 송풍관 등이 확인⁵⁰⁾된 점은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며, 마을 또는 지역단위로 소규모 철 또는 철기생산과 단조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결국 탄요의 입지와 분포를 통해서 부근에 철생산 및 가공작업을 담당한 공인집단을 추정할 수 있지만, 이들의 성격을 국가의 일관된 관리 아래에서 조업에 종사한 집단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평택 가곡리유적에서는 측구식탄요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인접한 평택 수구암리유적에서 삼국시대 측구식탄요가 3기가 조사된 점으로 볼 때, 그 조업시기는 3세기를 하한연대로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가곡리유적의 철생산 유구의 조업시기를 김초 운양동유적 I-2기와 평행하게 본다면 적어도 기원후 2세기 중후엽경⁵¹⁾ 이전으로 올려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연대관이 타당하다면 제철로에 공급할 백탄을 생산하는 측구식탄요 역시 그 연대를 올려봐야 할 당위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표 3. 국내 초기 숯가마 조사현황

유적	규모(cm)			측구	경사	연대측정결과	출토유물
	길이	너비	깊이				
군위 화계리고분군 III	(580)	70~100	50	2	6°	1870±30B.P. 1860±30B.P.	무문토기, 지석
경주 하구리유적 (산11, 11-1) 1호	700	104	25	3	2°	2100±50B.P.	
경주 하구리유적 (산11, 11-1) 4호	(618)	192	3~9	3	2°		
경주 하구리유적 (산12-2번지) D구역 6호	(778)	100~114	40	(3)	3~5°		두형토기 배신

50) 신경환·이남규·최영민·김영화, <화성 기안리 제철유적 출토 제철관련 유물의 금속학적 분석 및 고찰>, 《과기고고》제25호, 아주대학교박물관·인문과학연구소·디지털역사연구센터, 2019, 1~40쪽.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한국문화유산협회, <36. 화성 기안리유적>, 《한반도의 제철유적Ⅱ》, 2022, 105~106쪽.

51)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한국문화유산협회, 위의 책, 2022, 84쪽.

유적	규모(cm)			축구	경사	연대측정결과	출토유물
	길이	너비	깊이				
경주 하구리유적 (산12-2번지) D구역 7호	591	102~ 120	78	2	4°	A.D.400±15	무문토기, 와질토기 옹, 두형토 기
경주 소현리유적 나-1구역 4호	515	113	71	2	3°		
경주 소현리유적 나-2구역	757	175	25	5	3°		사이부직 구호
경주 신당리유적 (산32-4번지) 1호	726	224	74	3	3°		
경주 신당리유적 (산32-4번지) 2호	732	340	75	4	2°		
경주 신당리유적 (산32-4번지) 3호	920	435	74	4	4°		양이부 장동용
경주 검단리 유적 (산38번지) I 구역 1호	775	113	37	4	5°	1990±40B.P. 2260±40B.P. A.D.300±40.	
경주 검단리 유적 (산38번지) II 구역 1호	948	82	21	4	2°	A.D.320±10	
대구 봉무동유적 1호	(475)	142	59	-	12°		
대구 봉무동유적 2호	529	136	72	2	2°		장동용
대구 검단동유적 I 구역 3그리드 1호	747	227	25	4	수평		
대구 검단동유적 II 구역 4그리드 1호	818	110	20	4	수평	B.C.200~A. D.20	토기편1, 송풍관편6
대구 검단동유적 II 구역 5그리드 1호	712	192	60	2	수평	B.C.240~40	
대구 검단동유적 II 구역 5그리드 2호	972	118	12	5	수평		토기편7
대구 검단동유적 II 구역 5그리드 3호	744	164	56	3	수평	B.C.180~A. D.60	연마석1
대구 검단동유적 II 구역 6그리드 1호	714	170	44	5	수평	B.C.210~30	
청도 무릉리 312번지 유적 숲가마	714	170	44	5	수평	B.C.210~30	
울산 창평동유적 KY002	(204)	255	28		9~10°	2042±26B. C.A.D.250~370	
밀양 사포리유적 가구역1호	1170	130	31	4	2°		
밀양 사포리유적 가구역 3호	1162	144	51	4	2~6°	2200±50B.P.	송풍관편1
밀양 사포리유적 다구역 10호	(824)	170	9	4	5°	2020±50B.P.	

유적	규모(cm)			축구	경사	연대측정결과	출토유물
	길이	너비	깊이				
밀양 전사포리유적 가구역 1호	974	116	54	3	6°	A.D.400±15	
밀양 전사포리유적 가구역 2호	(385)	119	21	3	3°	A.D.315±15	
밀양 전사포리유적 가구역 3호	(400)	155	5	3	-		
밀양 전사포리유적 가구역 4호	(1036)	158	48	4	6°		
양주 부곡리 산36-1번지 1구역 1호	(499)	102	20	5	2°		
양주 부곡리 산36-1번지 5구역 1호	690	63	24	4	수평		

한반도 내에서 축구식탄요가 조사된 지역은 중·남부지역으로 북한지역에서는 발굴조사사례가 확인되지 않아서 백탄생산기술이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추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축구식탄요의 조업시기가 기원전 2~1세기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두되면서 적어도 기원전 후부터는 백탄생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게 되었다.

앞서 경기도 일대에서 조사된 원삼국~삼국시대 축구식탄요 41기의 분포를 살펴보면 대체로 김포, 오산, 평택, 화성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해안지역과 양주, 파주, 용인, 이천, 여주를 중심으로 하는 내륙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지역에서 조사된 축구식탄요는 5기 내외 정도로 고르게 분포한다고 여겨지지만, 평택지역에서 5기 그리고 화성에서 13기의 축구식탄요가 조사된 점으로 볼 때, 일부 지역에서는 백탄생산을 전담하는 생산구조가 존재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전업생산집단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역 내 소요량을 생산하는 구조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는 당시 교통로를 따른 백탄의 수송과 공급과도 연결시켜 볼 수 있으므로, 교통로와 인접한 지역에 주로 탄요가 입지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다만 해안지역에서는 삼국시대 철생산과 관련된 유적들에서는 탄요가 함께 확인되지만, 내륙지역에서는 철생

산유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은 한계이다. 이런 분포상으로 볼 때, 서해안지역과 교통으로 연결되는 가곡리유적에서 철생산유적이 확인된 점은 해안을 따라서 철구식탄요가 확산되는 모습과 연결되는 모습이며 55호 제련로의 형태가 중국 공헌 철생구유적⁵²⁾에서 조사된 초강로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는 점 역시 한의 철생산기술이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남부지역에서 이루어진 철생산과 관련하여 그 주체를 낙랑을 위시한 서북한 지역의 군현이 지역 내 철생산을 직접 통제했다고 보는 의견⁵³⁾과 환령지말(桓靈之末, A.D.146~189)의 혼란기에 중국 군현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마한의 화성지역에 정착하여 제철조업에 종사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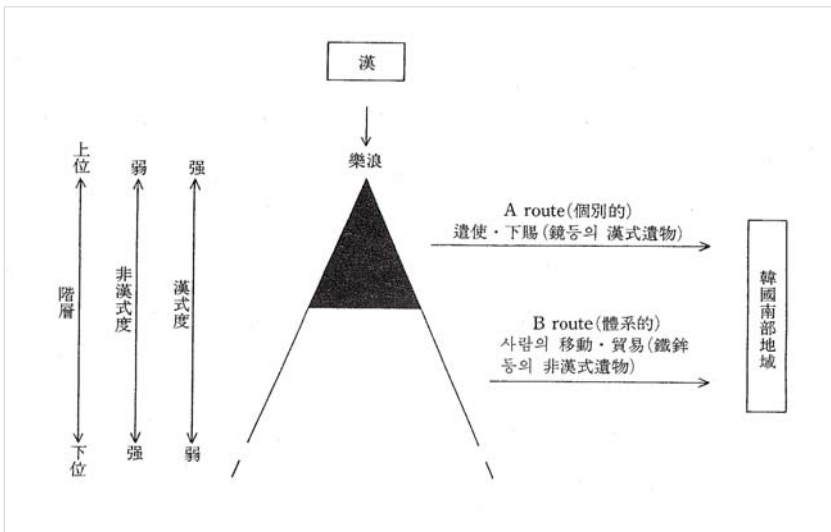


그림 12. 낙랑지역에서 한국 남부지역으로의 전파모델高久健二 1997)

52) 河南省文化局文物工作隊, 《鞏縣 鐵生溝》,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編輯 文物出版社出版, 1962.

53) 이남규, 앞의 논문, 2007.

으로 보는 의견⁵⁴⁾이 있지만, 내륙지역인 양주에서 조업시기가 기원후 1세기 후반~2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측구식탄요가 조사된 점을 고려한다면, 이미 한반도 중부 및 남부지역에 철생산과 백탄생산기술이 함께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철생산문화가 확산된 이유는 서북한지역 내 군현과의 교역 및 교류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데, 최종규가 소명문화모델에서 지적한 것처럼 중서부해안지역에서 중부내륙 그리고 영남지역으로 확산되어가는 문화흐름과 해안선을 따라서 영남지역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중심으로 철기문화가 확산된 모습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시기 중서부지역에서 조사된 측구식탄요가 많지 않지만 경주, 대구, 밀양, 울산 등 해안에서 내륙으로 수운을 따라서 이들 기술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영남지역 편년을 기준으로 볼 때, 평택 가곡리유적의 철생산 조업시기는 2세기 중반 이전이며 양주 부곡리 산36-1번지 유적의 측구식탄요의 조업시기와 함께 연동시킨다면 영남지역의 편년과 동일한 기원전 1세기 중반~기원후 1세기 중반경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V. 맺음말

평택 가곡리유적은 중서부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조업한 철생산유적이지만 그 조업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다. 유적에서 조사된 주구묘의 축조시기를 김포 운양동유적에서 나타난 관부돌출형철모의 변화 모습과 함께 살펴본 결과 주구묘 조성시기를 운양동유적 I-2기의 특징에

54) 김무중, <화성 기안리제철유적출토 낙랑계 토기에 대하여>, 《백제연구》제40호, 충남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01, 73~97쪽.

정인성, <연계 철기문화의 확산과 그 배경>, 《영남고고학》74호, 영남고고학회, 2016, 4~33쪽.

맞추어서 2세기 중반경으로 보는 시각은 대구 팔당동유적 출토품과의 비교를 통해 재확인하였다. 다만 2구 내 철생산유적의 조업시기는 평택 하구암리유적에서 조사된 측구식탄요의 연대로 볼 때, 2세기 후반~3세기 이전으로 볼 수 있지만, 두 유적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크다. 특히 김포 운양동유적 분구 출토 철기와 비교문제와 양주 부곡리 산36-1번지 유적에서 조사된 이른 시기의 측구식탄요 연대를 영남지역과 비교한 결과 중서부지역에서 백탄생산이 이루어진 시기는 영남지역 초기 측구식탄요의 조업시기인 기원전 1세기 중반~기원후 1세기 중반 사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므로, 양 지역에서 측구식탄요를 통한 백탄생산이 함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김포 운양동유적에서 중국 한, 북방, 영남지역의 문화상이 복합적으로 확인된 점으로 볼 때, 평택 가곡리유적은 서북한지역에 위치한 낙랑으로 대표되는 군현세력을 통해서 철생산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 시기는 중국 공현 철생구유적에서 조사된 초강로와 계보를 같이하며, 영남지역에서 조사된 측구식탄요의 상한연대와 거의 일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가곡리유적에서 철생산이 이루어진 시기는 기원후 2세기 이전 즉 늦어도 기원후 1세기 중반까지 그 연대를 올려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국문요약〉

평택 가곡리유적은 중서부지역에서 이루어진 초기 철생산유적으로 폐기장 상부에 중복된 마한시기의 주구묘로 인해 그 조업시기에 대해서 2세기 중엽 이전으로 보는 의견과 2세기 중엽 이후 또는 3세기경으로 보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중서부지역에서 조사된 주구묘 출토 철기 중 관부돌출형 철모의 변화상과 영남지역에서 조사된 측구식탄요의 형식변화와 AMS연대 측정결과로 볼 때, 중서부지방을 통한 철과 숯생산기술이 한반도 중서부와 남동부지역에 확산되었다고 추정된다.

영남지역의 초기 측구식탄요의 AMS연대측정결과와 출토유물을 살펴보면 그 조업시기를 기원전 1세기 중엽~기원후 1세기 중엽 사이로 볼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기존에 기원후 2세기 중엽으로 보던 가곡리유적 2구 55호 제련로와 54호 폐기장의 조성시기는 기원후 1세기 중엽까지 올려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 가곡리유적, 철생산, 제련로, 백탄, 측구식탄요

〈참고문헌〉

1. 단행본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한국문화유산협회, 《한반도의 제철유적Ⅱ》, 2022.

최영민, 《고대 한반도 중부지역의 제철기술 연구》, 진인진, 2017.

2. 논문

김기옥, 〈1. 김포 운양동 분구묘〉, 《김포 운양동 유적 I》,
한강문화재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 2013.

김길식, 〈2~3세기 한강 하류역 철제무기의 계통과 무기의 집중유입
배경 -김포 운양동유적 철제무기를 중심으로-〉, 《백제문화》50, 공주대학
교 백제문화연구소, 2014.

김길식, 〈원삼국~백제 한성기 경기남부지역 제철기지 운용과 지배세력의
변화 추이〉, 《백제문화》제56권,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7.

김무중, 〈화성 기안리제철유적출토 낙랑계 토기에 대하여〉, 《백제연구》
제40호, 충남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01.

김무중, 〈3. 평택 가곡리 유적 주구묘 출토 토기 검토〉, 《평택 가곡리
유적 -평택 진위2 일반산업단지(2단계) 조성부지 내 유적 시·발굴조사보
고서-》, 삼강문화재연구원, 2017.

김일규, 〈한강 중·하류역의 중도식토기 편년소고〉, 《석헌 정징원교수
정년퇴임 기념논총》, 2006.

류위남, 〈삼한시대 영남지역 출토 주조철부와 판상철부 연구〉, 《영남고고

학》51호, 영남고고학회, 2009.

서현주, <금강 유역 원삼국시대 유물양상>, 《금강·한강유역 원삼국시대 문화의 비교연구》2016s년 호서고고학회·중부고고학회 합동 학술대회, 호서고고학회·중부고고학회, 2016.

성정용, 《증서부 마한지역의 백제영역화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성형미, <2. 평택 가곡리 유적에 대한 고고지자기적 연구>, 《평택 가곡리 유적 -평택 진위2 일반산업단지(1단계) 조성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평택도시공사·한울문화재연구원, 2017.

소배경, <3. 평택 가곡리 유적의 주구묘>, 《평택 가곡리 유적 -평택 진위2 일반산업단지(2단계) 조성부지 내 유적 시·발굴조사보고서-》, 삼강문화재연구원, 2017a.

소배경, <4. 평택 가곡리 유적 제철로 검토>, 《평택 가곡리 유적 -평택 진위2 일반산업단지(2단) 조성부지 내 유적 시·발굴조사보고서-》, 삼강문화재연구원, 2017b.

신경환·이남규·최영민, 《한국고대 鑄鍊기술》, 금속기술연구소, 2013.

신경환·김권일·최영민, <석축형제철로(石築型製鐵爐)의 조업방식 연구>, 《야외고고학》제22호, 한국매장문화재협회(현 한국문화유산협회, 2015.

신경환·이남규·이재용·최영민, <1. 평택 가곡리 유적 출토 제철관련 유물의 금속학적 분석 및 고찰>, 《평택 가곡리 유적 -평택 진위2 일반산업단지(2단계) 조성부지 내 유적 시·발굴조사보고서-》, 삼강문화재연구원, 2017.

신경환·이남규·최영민·김영화, <화성 기안리 제철유적 출토 제철관련 유물

의 금속학적 분석 및 고찰), 《과기고고》제25호, 아주대학교박물관·인문과학연구소·디지털역사연구센터, 2019.

신동조, 《영남지방 원삼국시대 철부와 철모의 분포정형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고고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심재연, 〈‘원삼국시대’ 한강유역의 제문제-토기와 철기 생산을 중심으로-〉, 《백산학보》제107호, 백산학회, 2017.

이남규, 〈낙랑 지역 한대 철제 병기의 보급과 그 의미〉, 《낙랑문화연구》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20, 동북아역사재단, 2007.

정인성, 〈연계 철기문화의 확산과 그 배경〉, 《영남고고학》74호, 영남고고학회, 2016.

조남철·이유나, 〈3. 평택 가곡리 유적 제철부산물의 금속학적 연구〉, 《평택 가곡리 유적 -평택 진위2 일반산업단지(1단계) 조성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평택도시공사·한울문화재연구원, 2017.

진수정, 〈5. 가평 대성리유적의 출토유물 원삼국시대를 중심으로〉, 《가평 대성리유적》, 기전문화재연구원, 2009.

차순철, 〈철 생산과 철기 제작 연료에 대한 검토〉, 《백제의 성장과 철문화》 2023 한성백제박물관·한국철문화연구회 공동워크숍, 한성백제박물관·한국철문화연구회, 2023.

최종규, 〈昭明文化〉, 《고고학탐구》19, 고고학연구회, 2016.

최종규, 〈1. 평택 가곡리 유적의 문화적인 귀속〉, 《평택 가곡리 유적 -평택 진위2 일반산업단지(2단계) 조성부지 내 유적 시·발굴조사보고서-》, 삼강문화재연구원, 2017.

한지민, 《중서부지역 원삼국~백제 한성기 철모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高久健二, 〈한국출토 철모의 전파과정에 대한 연구〉, 《고고역사학지》8집, 동아대학교박물관, 1997.

3. 발굴조사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소·농업기반공사 철원지사, 《철원 와수리 유적-철원 아수리 신별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 내 시굴조사》, 2006.

국립중앙박물관, 《화성 기안동 제철유적-홍익대학교 실습부지내 학술발굴조사 보고서-》, 2016.

기전문화재연구원·(주)풍성주택, 《화성기안리 유적-풍성아파트 건립부지내 유적 시, 발굴조사보고서-》, 2007.

대구직할시·경북대학교박물관, 1993, 《대구 팔달동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광주광역시, 《광주오룡동유적》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발굴조사보고서1, 1995.

부천시·한강문화재연구원, 《남양주 금남리 유적》, 2022.

삼강문화재연구원, 2017, 《평택 가곡리 유적 -평택 진위2 일반산업단지(2단계) 조성부지 내 유적 시·발굴조사보고서-》.

평택도시공사·한울문화재연구원, 2017, 《평택 가곡리 유적 -평택 진위2 일반산업단지(1단계) 조성부지 유적 발굴조사-》.

한강문화재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 운양동 유적 I》, 2013.

한국고환경연구소·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인천 운남동 패총》, 2011.

한국문화유산연구원, 《양주 옥정동 유적》, 2012.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榆樹老河深》, 文物出版社, 1987.

河南省文化局文物工作隊, 《鞏縣 鐵生溝》,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編輯 文物出版社出版, 1962.

평택 설화 자료의 현황과 과제

김은일/충북대학교 초빙교수(제1저자)

송지현/충북대학교 박사과정수료(제2저자)

이은경/충북대학교 강사(교신저자)

차 례

- I. 평택은 설화가 없는가?
- II. 평택 설화 연구의 현황
- III. 평택 설화 자료의 현황
- IV. 평택 설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

I. 평택은 설화가 없는가?

본 연구는 평택의 설화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써, 평택 설화 자료의 현황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화¹⁾는 구비문학의 하위유형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를 뜻한다. 소설과 달리 기록 문학적 복잡성은 부족하지만, 일정한 이야기의 구조를 바탕으로 전승자의 의도에 따라 가변적으로 전승되는 것이 특징이다. 설화는 다시 신화, 전설, 민담으로 나누는데, 이때 지역에서 전승되는 설화는 주로 ‘전설’에 해당한다. 전설은 증거물을 바탕으로 지리적 특징, 명칭의 유래, 습관의 기원 등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설화를 통해 설화를 전승하는 집단의 삶의 양태, 생활 방식 및 의식 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즉, 설화 연구는 지역학 연구에서 유의미한 기능을 한다.

평택 지역은 구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의 삶을 품은 곳이다. 특히 아산만과 같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철기문화를 소유한 고조선계 주민들이 한반도 남쪽에 유입되는 입구 역할을 하고 있어 다양한 문화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 삼국시대에는 백제 → 고구려 → 신라 순으로 지배세력이 변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숨 막히는 민초들의 삶이 배어 있었을 것이다. 평택에는 크고 작은 포구가 있어 ‘물’과 관련된 문화와 교통의 요지라는 특성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많은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 설화의 실체를 확인하기 쉽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진행된 연구도 찾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2000년대까지 진위, 평택, 송탄, 팽성 등의 결합, 미군 부대의 설치, 도시화와 급격한 발전 등 복잡한 변화를 겪으면서 설화 자료를 유실했거나 미처 기록을 남기지

1) 설화 및 전설에 대한 일반론적인 내용은 다음의 책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2023, 37-78쪽.

못한 까닭에 설화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자료가 없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은 아니다. 여러 지역의 통폐합과 급격한 인구 유입에 따른 신도시 건설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자료가 종합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까닭에 설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런 까닭에 본 연구에서는 평택 설화의 본격적인 연구를 하기에 앞서 자료의 수집과 정리가 시급한 과제를 확인하고, 향후 평택 설화의 학문적 연구가 진행될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2장에서는 평택 설화 연구의 현황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평택 설화 자료의 개황을 제시한 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4장에서 평택 설화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언하는 것으로 구성할 것이다.

II. 평택 설화 연구의 현황

설화는 구비문학의 하위 유형으로, 민요, 무가 등과 함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는 특성을 지닌다. 민요가 ‘음악’의 형태로, 무가가 ‘무가 연행’의 형태로 예술성을 지닌다면 설화는 언어의 형태로 예술성을 지니는 문학장르이다. 이러한 구비문학은 그 지역에서 전승되어 오면서 지역민들의 집단 의식과 삶의 양태를 지니며 지역성을 띄게 된다. 이에 구비문학에 대한 연구는 글로컬시대의 기초학문으로 기능하고 있다. 즉, ‘평택다움’을 확인하는 주요한 매개체가 구비문학 자료이며, 이 자료를 통해 평택의 지역성을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평택이 인구수 50만이 넘는 규모의 도시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편은 아니다. 예를 들어, 평택은 평택 농악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농악 전수관을 운영하고 이를 콘텐츠화 하여 현대 대중에게도 알음알음 알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민요와 관련한 논의²⁾는 그 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적으며 그조차도 문학적 관점, 공연적 관점 등의 다각도에서 바라본 총체적 시각의 연구에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밖에 평택의 무속³⁾을 살펴본 논의도 있다. 이 역시 문학이나 ‘예술’로서 무속을 살펴보았다기보다는 무속 그 자체의 특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 ‘평택학’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아직 기초단계라 할 수 있다.

설화 연구 역시 비슷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평택의 설화 연구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현재까지의 평택 설화 관련 연구를 조망하고자 한다. 한국연구정보서비스에 탑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평택의 설화와 관련된 연구의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손동인(1981), 〈평택군 현덕면의 전래 동화 : 특히 그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논문집》16, 仁川教育大學校.
 - (2) 김정희(1988), 〈평택 심복사〉, 《강좌미술사》1, 한국불교미술사학회(구 한국미술사연구소).
 - (3) 이흥환(1995), 〈땅이름에 깃든 이야기(5)/경기도 평택(平澤) : 팔무시(八無地) 벌이 ‘물절’돼〉, 《대한토목학회지》43, 대한토목학.
 - (4) 이흥환(1995), 〈땅 이름에 깃든 이야기(6) : 경기도 평택(平澤)-(2) - 아산(牙山)이 깨어나, 평택(平澤)이 무너지나!〉, 《대한토목학회지》43, 대한토목학회.
 - (5) 이흥환(1995), 〈땅이름에 깃든 이야기(11)/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창
-
- 2) 정동화, 〈평택 지방의 민요고:현덕면을 중심으로〉, 《논문집》17, 인천교육대학교, 1983; 김순제, 〈평택군과 김포읍의 상두꾼 소리〉, 《한국민요학》4, 한국민요학회, 1996; 최자운, 〈경기도 평택시 이민조 민요 가창자 연구〉, 《남도민속연구》35, 남도민속학회, 2017; 태혜신, 정복철, 《평택농악 판제 짝찍이춤(연풍대)의 주요 특징과 변천과정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71, 한국사회체육학회, 2018.
 - 3) 홍태한, 〈평택지역의 무속(巫俗) 연구〉, 《국제어문》17, 국제어문학회, 1996; 이용범, 〈평택무속의 일반성과 특수성〉, 《한국무속학》23, 한국무속학회, 2011.

자는 ‘쇠붙이’요 쓸개는 ‘돌’이라), 《대한토목학회지》44, 대한토목학.

- (6) 이흥환(1996), 〈땅이름에 깃든 이야기(14)/경기도 평택시 비전동-‘비앞동’ 땅 이름처럼 충혼탑, 반고탑이 세워져〉, 《대한토목학회지》44, 대한토목학.
- (7) 김대숙(2002), 〈평택의 역사와 전설〉, 《論文集》, 평택대학교.
- (8) 김호귀(2021), 〈심복사 우보살의 구도와 공덕의 의미 고찰〉, 《한국교수불자 연합학회지》27, 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
- (9) 충남발전연구원(2003), 〈충남의 전설 : 한진나루와 영웅바위〉, 《열린충남》 22, 충남발전연구원

각 연구의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손동익(1981)은 평택의 설화에 대한 채집과 분석을 시도했다는 의의가 있으나 현덕면이라는 지역의 한정과 설화 중 민담을 채집함으로써 평택 지역의 특성이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김정희(1988)는 불상과 석탑, 소무덤을 소개하는 중에 설화를 언급하고 있다. 세 어부가 파손된 배를 건져낸 것에서 심복사를 지었다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나 기행문의 한 형태로 작성한 것으로 본격적 논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3),(4),(5),(6)은 모두 이흥환이 대한토목학회지에 연재한 글이다. 이흥환은 경기도 평택시 이외에도 다른 지역의 지명을 조사하여 소개하고 있다. 그중 평택 자체의 지명 유래, 영웅바위, 금바위 전설, 비전동의 유래 등을 다루는데 평택에서 실제로 전해오는 내용과는 다른 실상을 소개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7) 김대숙(2002)은 지역 전설과 인물 전설로 나누어 평택 전설의 줄거리를 소개했다. 13개의 지역 전설과 7개의 인물 전설을 제시하고 평택 지역 전설의 특징을 ‘교통의 요지와 물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인물 전설이 지역 전설에도 포함되는 바 층위의 분류에서 문제가 발견되며 평택 지역 전체의 전설에 대해 조망하지 못한 채 범박한 특징을 도출했다는 한계가 있다.

(8) 김호귀(2021)는 심복사 창건설화를 중심으로 불교에서 ‘소’가 지니는 의미를 찾고 있다. 심복사의 창건설화를 ‘소’에 한정 하여 봄으로서 평택의 심복사가 지니는 의미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소가 바닷가에 있었다는 설정에서 지니는 지역적 의미를 확인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적 관점만 보인다는 점에서 아쉽다.

(9) 충남발전연구원(2003)은 영웅바위의 전설을 소개하면서 충남의 전설로 다루었다. 실제로 영웅바위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와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의 중간에 있다. 이런 까닭에 충남에서는 영웅바위를 당진의 것으로 보고 그 전설을 당진의 전설로 소개하고 있다. 평택과 접경 지역에 있는 전설을 소개하면서 온전히 당진의 전설로 설명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평택은 인구 약 58만의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평택에 대한 지역학적 기초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설화와 관련된 연구는 지엽적이고 단편적이라 아쉽다. 평택 설화의 연구가 더 나아가지 못한 까닭은 연구 자료의 부재에 있다고 하겠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평택 설화 자료의 현황을 정리하고자 한다.

Ⅲ. 평택 설화 자료의 현황

평택의 설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기초 자료가 있어야 한다. 평택 설화 자료는 많은 편이지만, 자료가 산재(散在)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평택 설화 연구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던 것도 종합된 설화 자료집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평택의 구비문학이 수록된 자료집 중, 설화를 다루는 경우를 확인하여 평택 설화를 종합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평택 설화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집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번호	연도	제목	번호	연도	제목
1	1981	내 고장 전통 가꾸기	16	2010	경기도 역사와 문화 설화와 민담
2	1984	평택군지	17	2011	안중읍지
3	1985	송탄문화(창간호)	18	2014	평택시사(4권)
4	1988	우리 고장의 얼	19	2014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5	1993	송탄시의 민속과 설화	20	2015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6	1994	송탄시사	21	2016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7	1999	진위면지	22	2016	한국구비문학대계(평택시)
8	2001	평택시사(상)	23	2017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9	2004	경기도 민속지; 설화	24	2017	청북읍지
10	2005	평택의 마을과 지명 이야기1	25	2018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11	2007	평택의 마을과 지명 이야기2	26	2019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12	2008	평택의 마을과 지명 이야기3	27	2019	포승읍지
13	2007	고덕면지	28	2020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14	2009	평택민속지(상)	29	2021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15	2010	팽성읍지	30	2022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평택의 설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집은 총 30개로 대체로 평택문화원에서 발간하였다. 이는 ‘경기도메모리 디지털 아카이브’⁴⁾에서 모두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설화가 확인되는 가장 오래된 자료는 1981년에 나온 《내 고장 전통 가꾸기》이다. 그밖에 시군지나 마을지에서 설화를 수록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진행하고 있는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에도 간간이 설화를 확인할 수 있다. (9)와 (16)은 경기도에서 발간한 자료집에 평택의 설화를 포함하는 형식으로, 평택에서 기존에 발간한 도서에 의존하고 있다. 우선 각 자료집에 설화가 수록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내 고장 전통 가꾸기》(1981)

《내 고장 전통 가꾸기》평택군 편은 1980년대 내 고장 전통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책이다. 평택군의 연혁과 고장을 빛낸 인물, 유적과 유물, 유서 깊은 나무 등 평택과 관련된 문화유산을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인물이나 유적, 나무와 관련된 설화를 포함하기도 하였다. 총 16편의 설화를 수록하였다.

(2) 《평택군지》(1984)

《평택군지》‘제9편 고적·민속·전설’ 속의 ‘제6장 전설’에 65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바위나 나무 등 자연물과 관련된 설화가 많다. 평택 지역의 설화를 모아놓은 초창기의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바위의 소재지, 크기, 나무의 수령 등 기본적인 정보만 제시한 경우도 상당수 있다. ‘은행나무’와 ‘홍풍을 점치는 은행나무’는 《내 고장 전통 가꾸기》(1981)의 ‘은행나무에 서린 사연’, ‘농사의 홍풍을 점치는 은행나무’의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

4) <https://memory.library.kr/>

(3) 《송탄문화》(창간호, 1985)

《송탄문화》는 1985년부터 송탄문화원에서 1994년까지 발행한 정기간행물이다. 총 12편의 간행물 중 1985년에 발행한 창간호 ‘내 고장 설화와 풍습의 유래’ 편에 7개의 설화가 실려 있다. 그러나 엄나무와 땡나무 전설은 전설이라기보다는 나무를 심은 연혁 및 유래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4) 《우리 고장의 얼》(1988)

《우리 고장의 얼》은 1988년 평택군에서 인물, 전설, 지명, 문화재 등의 향토문화자료를 정리한 책이다. 제2편 ‘우리 고장의 전설’에 45편의 설화가 실려 있다. 《내 고장 전통 가꾸기》와 《평택군지》에 있는 자료를 대다수 참고하였다.

(5) 《송탄시의 민속과 설화》(1993)

《송탄시의 민속과 설화》는 1993년에 송탄시와 송탄시 향토사연구소에서 토속신앙, 민속, 민요, 설화 등을 집대성하여 발간한 책이다. 1920년대 생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1994년에 발간된 《송탄시사》의 모태에 해당하는 책이다. 제2부 설화, 제2장 유형설화에 7편, 제3장 무형설화에 10편, 총17편을 수록하고 있다.

(6) 《송탄시사》(1994)

《송탄시사》는 1994년에 송탄시에서 송탄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발간한 책이다. 1993년에 발간한 《송탄시의 민속과 설화》에 수록된 17편의 설화에 3편을 더 보완하여 제10편 민속과 전설, 제2장 설화, 제3절 유형설화에 8편, 제3절 무형설화에 12편으로 총20편의 설화를 수록하고 있다.

(7) 《진위면지》(1999)

《진위면지》는 1999년 진위면지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택문화원에서 발간한 책이다. 《진위면지》에는 전설 파트가 따로 설정되어 있다. 제6장 진위의 민속문화 중 3. 민요와 전설을 세분화하였다. 전설은 12편이 수록되어 있으나 《평택군지》와 《송탄시사》에 실린 내용이 반복되어 있다.

(8) 《평택시사(상)》(2001)

《평택시사》(2001)는 1995년 송탄시와 평택시, 평택군이 통합하여 평택시가 된 이래 편찬된 책이다. 상·하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화는 상권의 제3편 성씨와 인물, 민속, 지명 유래, 2장 민속, 제5절 설화·속담·수수께끼에 87편이 실려 있다. 대부분 《내 고장 전통 가꾸기》, 《평택군지》, 《우리 고장의 얼》, 《송탄시사》에 나온 설화 자료를 참고하였고, 읍·면·동 별로 정리하였다. 그 당시로서는 평택의 이야기를 총망라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9) 《경기도 민속지; 설화》(2004)

2004년 경기문화재단에서 발간한 《경기도 민속지》는 경기도를 북부, 동부, 중부 남부로 나누어 경기도의 설화를 정리하였다. 평택의 경우는 제4절 경기 남부의 설화에 해당한다. 평택지역 설화 전승양상을 살피기 위해 1998년 5~6월에 조사한 자료부터 2003년 5~6월에 조사한 자료까지 활용하고 있다. 또한, 1994년에 발행한 《송탄시사》의 전설편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경기도 민속지》 남부지역의 설화는 기존 시·군지에 없는 민담 자료를 수록하였지만 평택의 경우는 민담을 1편만 수록했다. 테마에 따라 경기 남부 지역의 설화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 시·군의 설화가 혼재되어 있어서 평택의 설화만 한눈에 보기는 어렵다.

(10)~(12) 《평택의 마을과 지명 이야기1》(2005), 《평택의 마을과 지명 이야기2》(2007), 《평택의 마을과 지명 이야기3》(2008)

《평택의 마을과 지명 이야기》는 2005년부터 2008년에 간행된 시리즈 도서이다. 평택문화원이 기획하고 저자 김해규가 직접 평택의 마을을 답사하면서 취재했다는 특징이 있다. 마을 소개와 마을의 지명 유래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설화를 수집하여 제공한다는 목적은 보이지 않는다. 답사 과정에서 듣게 된 설화를 간단히 소개하거나, 기존 자료집의 설화를 바탕으로 지명의 유래를 소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문적인 평택 설화집은 아니지만, 기존에 채록한 설화 이외에 변형되거나 새로운 설화도 첨가하여 평택 설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서 가치를 갖는다.

설화로 명명되어 있거나 항목화 된 것은 아니지만, 문맥에서 파악할 수 있는 ‘설화’를 정리해보면 1권에서 29편, 2권에서 29편, 3권에서 31편, 총 89편의 설화를 찾을 수 있다. 스토리를 파악하기 어렵고, 지형의 특징을 담은 단순 지명 유래는 제외하였다.

(13) 《고덕면지》(2007)

《고덕면지》는 2007년에 평택문화원과 고덕면지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책이다. 제7장 고덕 사람들의 생활과 민속 중 3절 설화를 설정하였다. 수록된 설화는 총 10편으로 《고덕면지》의 특징은 고덕 지역의 도깨비 이야기를 별도의 장으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고덕 주민들의 도깨비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14) 《평택 민속지(상)》(2009)

《평택민속지》는 2009년 평택의 민속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정리한 책이다. 상·하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화는 상권, 제5장 구비전승, 1절

설화에 35편을 수록하고 있다. 전설과 민담을 구분하였다. 전설은 다시 설명전설, 인물전설, 역사전설, 신앙전설로 구분하였고, 민담은 가정과 윤리, 운명과 도리, 비현실세계, 슬기와 웃음, 동물의 세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현장 답사를 통한 구술 채록 자료를 수록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15) 《팽성읍지》(2010)

《팽성읍지》는 2010년에 평택문화원과 팽성읍지편찬위원회가 발간한 책이다. 구전설화 파트를 따로 설정하였다. 제4장 팽성읍의 마을과 지명, 1절 팽성읍의 마을 부분에 설화가 수록되어 있다. 객사리 1편, 근내리 1편, 남산리 1편, 내리 1편, 도두리 1편, 두리 1편, 대사리 1편, 대추리 1편, 본정리 1편, 신대리 1편, 석근리 1편, 원정리 1편, 추팔리 1편 등 총 13편의 설화가 있다.

(16) 《경기도 역사와 문화 설화와 민담》(2010)

《경기도 역사와 문화: 설화와 민담》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설화 중 지역을 대표하는 이야기들을 엮은 것이다. 평택시에 해당하는 설화로 송북동의 ‘풀무골’, 현덕면 덕목리의 ‘심복사’ 등 두 편만 수록하였다.

(17) 《안중읍지》(2011)

《안중읍지》는 2011년에 평택문화원과 안중읍지편찬위원회가 발간한 책이다. 《안중읍지》에는 ‘설화’에 관한 항목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제1장 안중읍의 인문지리적 환경 중 3절 지명 유래와 제4장 안중읍의 마을과 성씨 중 2절 안중읍 마을에서 설화를 찾아낼 수 있다. 우선 제1장 3절 지명 유래에서는 금곡리 3편, 학현리 1편, 용성리 1편, 덕우리 2편의 설화를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제4장 2절 안중읍 마을에서는 안중리 1편, 금곡리 2편, 대반리 1편, 학현리 2편의 설화를 찾을 수 있다. 《안중읍지》에서는 총

13편의 설화를 확인할 수 있다.

(18) 《평택시사》(2014)

《평택시사》는 2014년에 총 네 권으로 구성되어 출판되었다. 설화 파트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으나, 다만 제4권의 10장 ‘평택시 지명 유래’에서 설화를 확인할 수 있다. 각 읍·면·동의 지명에 대해 설명하면서 간헐적으로 설화의 내용을 일부 수록하였을 뿐이다. 설화를 별도의 장으로 다루지 않는 경우 민속과 설화를 함께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제2권 3장에 민속 파트가 있으나 설화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2014년 《평택시사》는 2001년에 발간한 《평택시사》의 수정 보완 도서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평택의 변화를 반영하여 시대적 요구에 맞추려는 목적을 갖고 편찬하였다. 2001년 《평택시사》의 틀과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하고 보완하였으나 설화 부분만 삭제한 것은 의문이다.

(22) 〈구비문학대계〉(2016)

〈구비문학대계〉는 2016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현지 조사하여 채록한 것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1979년부터 1985년에 걸쳐 대대적으로 한국의 구비문학 자료를 수집하여 1980년부터 1992년에 걸쳐 《한국구비문학대계》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1차 조사에서는 평택이 포함되지 않았다. 2010년대에 들어와 〈구비문학대계〉 증보를 위한 현지 조사에서 평택이 포함되어 2016년에 채집한 자료가 있다. 다만, 이전에 진행한 다른 지역은 《증보 한국구비문학대계》로 발행된 경우가 있으나, 여러 사정으로 2016년 평택 조사는 책으로 출판되지 못하고 아카이브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아카이브에서 검색되는 결과는 총 165편이다. 현대 구전설화가 2편 포함되어 있다. 현덕면, 포승면, 청북면, 진위면, 오성면, 안중면, 고덕면의 이야기만 다루고 있어, 평택시 전 지역을 아우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24) 《청북읍지》(2017)

《청북읍지》는 평택문화원과 청북읍지편찬위원회에서 2017년에 발간한 책이다. 《청북읍지》도 《안중읍지》처럼 ‘설화’ 관련 항목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제6장 청북의 마을과 지명 중 1절 마을과 지명 유래에서 설화를 찾을 수 있다. 고령리 2편, 고잔리 1편, 백봉리 3편, 옥길리 1편, 율북리 2편, 토진리 2편, 현곡리 1편, 후사리 1편으로 총 13편의 설화를 확인할 수 있다.

(27) 《포승읍지》(2019)

《포승읍지》는 평택문화원과 포승읍지편찬위원회가 2019년에 발간한 책이다. 《포승읍지》에는 ‘설화’라는 항목이 따로 설정되어 있다. 제7장 포승의 생활과 민속, 3절 설화에 25편이 수록되어 있다. 기존에 채록된 설화를 반복하여 수록한 것이 아니라 직접 주민들을 찾아 채록한 자료를 수록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역성이 드러나는 설화라기보다는 포승읍 주민에게서 들은 옛날이야기를 수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비문화대계>처럼 채록 내용을 전사하여 구연자의 말을 그대로 제공하고 있다.

(19)~(30) 《평택의 사라져 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는 경기도, 평택시, 평택문화원, 경기문화재단 등이 기획하여 2014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발행하고 있는 시리즈이다. 급격히 개발의 물살을 타고 있는 평택시의 사라져가는 마을에 대한 문헌 조사는 물론 현장 답사까지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평택의 숨어 있는 설화를 수록하기도 하여 평택 설화의 또 다른 자료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그러나 매년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설화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다. 설화 항목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설정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설화 항목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지명 유래나 의식주 생활 혹은 유적 유물, 교통편에 섞어 소개한 경우가 있다. 다음으로 전설에 대한 항목을 설정한 경

우에는 ‘설화와 전설’, ‘문학과 전설’, ‘전설과 설화’, ‘구전설화’, ‘문화유적과 설화’, ‘전설’ 등으로 소개하고 있다. 전설은 설화의 하위장르로 설화와 전설 혹은 전설과 설화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다. 이처럼 일관된 체제가 없기 때문에 가치 있는 자료집이지만 설화 연구에서 활용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화 자료를 확인해 보면 2014년 2편, 2015년 11편, 2016년 9편, 2017년 8편, 2018년 5편, 2019년 3편, 2020년 12편, 2021년 6편, 2022년 9편으로 총 65편의 설화를 수록하고 있다.

(19)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2014년은 포승읍, 이충동, 세교동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0) 2015년은 소사동, 용이동, 동삭동, 칠원동, 현덕면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1) 2016년은 진위면, 현덕면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3) 2017년은 포승읍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5) 2018년은 현덕면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6) 2019년은 진위면, 원평동, 팽성읍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8) 2020년은 도일동, 장안동, 칠괴동, 가재동, 모곡동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9) 2021년은 진위면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30) 2022년도 진위면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같은 읍·면이라도 ‘리’를 세분하여 조사하였다.

이상 평택 설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집은 모두 30건이었다. 꾸준히 기록을 해오고 있고 새롭게 수집하려는 노력도 보인다. 평택의 설화가 제법 많이 포진되어 있음도 알 수 있다. 다만, 한계점이 많이 나타난다.

첫째, 전체적으로 초기에 수집한 자료에 의존하여 기존 자료를 반복 제시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평택시사》(2001)과 《평택의 마을과 지명이야기》시리즈에 수록된 설화가 가장 많은 편인데, 이들은 대체로 기존에 나왔던 《내 고장 전통 가꾸기》(1981)나 《평택군지》(1984), 《송탄시사》(1994) 등에 수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송탄시사》(1994)의 경우 《송탄시

의 민속과 설화》(1993)과 거의 동일하여 반복에 불과하다. 각 면읍지의 경우에도 《평택군지》(1984)와 《송탄시사》(1994)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둘째, 설화에 대한 개념의 혼동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 앞서 설화 반복 수록에 대한 부담감을 체제의 변화로 완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설화 그 자체로 장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전설에 한정 짓는 경우도 있고 구비전승으로 넓게 보는 경우도 있다. 설화에 이미 ‘구전’이라는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전설화’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 보니 전설과 설화, 민속과 설화, 문화재와 설화 등으로 층위가 맞지 않는 분류 체제가 대부분이다. 신화, 전설, 민담은 설화의 하위 유형이므로 설화와 민담을 양분하여 기술하는 방식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민속의 하위 항목으로 설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는 설화의 독립성을 배제한 명명법이기 때문이다. 지명 유래에 설화를 포함하는 것도 어색하다. 지명 유래는 지명 전설과 지형에 따른 단순 유래 등으로 나눌 수 있는바, 설화는 지명 유래의 상위 유형인 셈이다. 설화 속에 지명 유래가 포함될 수는 있어도 지명 유래 속에 설화를 포함하는 것은 어색하다. 또한 모든 지명 유래가 설화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설화에 대한 독립적인 파트 설정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설화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문적인 이해도를 바탕으로 산재해 있는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집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IV. 평택 설화 연구가 나아가 할 방향

본 글에서는 ‘평택은 설화가 없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평택의 설화 자료가 산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평택은 도시 규모에 비해 설화 자료가 제법 많은 편이다. 다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자료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나아가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일 뿐이다. 이에 추후 평택 설화 연구가 나아가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평택의 설화를 집대성한 자료집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기존에 중복된 자료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설화 분류 체제에 따라 보기 좋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더 늦기 전에 추가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자료 현황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지역 조사가 세밀해지는 것에 비해 설화 조사는 약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야기를 해줄 제보자가 점차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야기 문화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설화 관련 자료와 설화를 제공할 제보자가 사라지기 전에 추가 채록을 서둘러야 한다. 《평택시사》(2001)가 그나마 많은 설화를 알아보기 쉽게 정리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14년 만에 《평택시사》(2014)가 수정·보완하여 발간되었지만 설화를 누락하였기 때문에, 설화 자료의 집대성에 있어서는 20년의 간극이 생긴 셈이다. 이러한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평택의 설화집’을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서야 본격적인 평택 설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평택 설화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그 속에 담긴 지역적 의미, 문학적 의미 등을 도출할 수 있다. 그 외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충북의 경우, 《전설지》5)와 《민요민담지》6)를 바탕으로 충북의 전설과 정체성에 대한 기초연구가7) 이루어졌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 논의8)도 진행된 바 있다. 설화 자료집의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아진 요즘 같은 시기에, 구전하는 이야기의 의미가 축소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시대일수록 원천 자료의 보존과 발전이 더 중요하다. 설화는 사람들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화에 담겨있는 지역의 특징은 곧 그 지역의 정체성이며 지역 브랜드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요즘처럼 평택이 도시 브랜딩에 주력하고 있을 때, 평택의 정체성을 지닌 설화가 있었다면 브랜딩 작업이 훨씬 수월할 것이다. 예를 들어 남원처럼 ‘춘향’, ‘홍부’ 등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브랜딩까지 성공하였다. 이처럼 평택도 물질적인 사물에 정체성을 부여하기보다, 정신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체성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 것이다.

설화는 원천 소스로서 제2의 콘텐츠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최근 평택의 설화를 바탕으로 쓰인 동화책 《동화로 읽는 평택-두둥, 소고를 울리면》이 그 예이다. 이 책에서는 16개의 평택 설화를 선정하여 동화로 각색하였다. 평택에 더 많은 설화가 있으나 16편만 수록했다는 점이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지와 같은 문화 상품으로도 재생산되었다. 만약 자료집이 있었다면 이러한 동화 작업도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며 도시의 정체성을 담은 문화 상품도 쉽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5) 《전설지》，충청북도，1982.

6) 《민요민담지》，충청북도，1984.

7) 오세정, 〈충북지역 전설 연구-자료, 분류, 분포의 특성을 중심으로-〉, 《우리말글》71, 우리말글학회, 2016.

8) 이효순, 오세정, 〈충북지역 랜드마크 설화 연구〉, 《한국고전연구》51, 한국고전연구학회, 2020.

이 연구에서는 자료의 현황을 점검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설화가 의미하는 바를 도출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또한 평택 설화가 수록된 자료집이 더 있을 수 있으나 미처 파악하지 못했을 수 있다. 이는 평택 설화 연구가 이제 시작단계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 추후 설화가 수록되어 있는 자료집을 더 추가하여 ‘평택 설화집’을 만들고 그것을 토대로 평택 설화가 지닌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국문요약〉

본고는 평택 설화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 평택 설화 자료의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작성한 논문이다. 이에 평택 설화의 자료 현황을 진단하고 평택의 설화 연구가 나아가할 방향을 제언하였다.

평택은 도시 규모에 비해 설화 자료가 제법 많으나 자료가 산재하기 때문에 자료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나아가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평택 설화의 연구는 아직 시론 단계에도 오지 못하였고, 몇 편이 겨우 논의되었을 뿐이다. 기왕의 연구조차 평택 설화 전체를 다루고 있지 못하다. 이는 평택 설화 자료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평택 설화 자료의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1981년 《내 고장 전통 가꾸기》부터 2022년 《평택의 사라져 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까지 총 30종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군지, 민속지, 마을지, 마을 조사지 등에 설화가 수록되어 있는데, 수록 양상은 매우 판이하였다. 최대 89건의 설화를 수록한 경우도 있고, ‘설화’라는 항목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지명유래나 마을 연혁을 기술하면서 언급만 한 정도도 있다.

이에 평택 설화 자료집의 집대성이 필요한 시기임을 절실히 느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기존의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추가 자료를 채록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평택 설화 자료집이 선행된 후, 평택 설화 연구의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며 나아가 문화산업 전반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평택 설화, 평택 전설, 평택 민담, 평택 구비문학, 설화자료집

〈참고문헌〉

기초자료

- 고덕면지편찬위원회, 《고덕면지》, 평택문화원, 2007.
- 김해규, 《평택의 마을과 지명 이야기》1, 평택문화원, 2005.
- 김해규, 《평택의 마을과 지명 이야기》2, 평택문화원, 2007.
- 김해규, 《평택의 마을과 지명 이야기》3, 평택문화원, 2008.
- 송탄시사편찬위원회, 《송탄시사》, 송탄시, 1994.
- 안중읍지편찬위원회, 《안중읍지》, 평택문화원, 2011.
- 진위면지편찬위원회, 《진위면지》, 평택시, 1999.
- 청북읍지편찬위원회, 《청북읍지》, 평택문화원, 2017.
- 팽성읍지편찬위원회, 《팽성읍지》, 평택문화원, 2010.
- 평택군지편찬위원회, 《평택군지》, 평택문화원, 1984.
- 평택시사편찬위원회, 《평택시사(상)》, 평택문화원, 2001.
- 평택시사편찬위원회, 《평택시사》, 평택문화원, 2014.
- 포승읍지편찬위원회, 《포승읍지》, 평택문화원, 2019.
- 《경기도 민속지; 설화》, 경기도박물관, 2004.
- 《경기도 역사와 문화 설화와 민담》, 경기문화재단, 2010.
- 《내 고장 전통가꾸기》, 평택군, 1981.
- 《송탄문화》, 송탄문화원, 1985.

《송탄시의 민속과 설화》, 송탄향토사연구소, 1993.

《우리 고장의 얼》, 평택군, 1988.

《평택 민속지(상)》, 평택문화원, 2009.

《평택의 사라져 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평택문화원, 2014.

《평택의 사라져 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평택문화원, 2015.

《평택의 사라져 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평택문화원, 2016.

《평택의 사라져 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평택문화원, 2017.

《평택의 사라져 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평택문화원, 2018.

《평택의 사라져 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평택문화원, 2019.

《평택의 사라져 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평택문화원, 2020.

《평택의 사라져 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평택문화원, 2021.

《평택의 사라져 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평택문화원, 2022.

참고자료

김순제, 〈평택군과 김포읍의 상두꾼 소리〉, 《한국민요학》4, 한국민요학회, 1996.

오세정, 〈충북지역 전설 연구-자료, 분류, 분포의 특성을 중심으로-〉, 《우리말글》71, 우리말글학회, 2016.

이용범, 〈평택무속의 일반성과 특수성〉, 《한국무속학》23, 한국무속학회, 2011.

이효순, 오세정, 〈충북지역 랜드마크 설화 연구〉, 《한국고전연구》51, 한국고전연구학회, 2020.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2023.

정동화, 〈평택 지방의 민요고:현덕면을 중심으로〉, 《논문집》17, 인천교육대학교, 1983.

최자운, 〈경기도 평택시 이민조 민요 가창자 연구〉, 《남도민속연구》35, 남도민속학회, 2017.

태혜신, 정복철, 〈평택농악 판제 찌찌이춤(연풍대)의 주요 특징과 변천과정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71, 한국사회체육학회, 2018.

홍태한, 〈평택지역의 무속(巫俗) 연구〉, 《국제어문》17, 국제어문학회, 1996.

《민요민담지》, 충청북도, 1984.

《전설지》, 충청북도, 1982.

사이트

경기도 메모리 디지털 아카이브 <https://memory.library.kr/>

한국학중앙연구원 구비문학대계 아카이브

여 백

평택의 실학

진위현 동천장 실학자 남하정을 중심으로

임원택/평택학연구소 자문위원

차 례

- I. 머리말
- II. 동천장의 형성, 입향과 정착
- III. 실학자 남하정의 가계
- IV. 의령남씨 일가의 학맥과 정치 성향
- V. 실학자 남하정 삶과 저작활동
- VI. 맺음말

I. 머리말

17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에 역사적 전개를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이행으로 간주하고 기존의 유학을 “성명의리지학”이라고 하고, 그 이행기에 현실개혁적인 조선 유학의 새로운 학문 경향을 “실학(實學)”이라고 한다.¹⁾ 좁게는 조선 후기에 성리학을 보완하여 경세치용(經世致用) 이용후생(利用厚生)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태도를 강조한 학문이라는 뜻이다. 실학파(實學派)는 조선 중기에 등장하는데 그들은 실학자들은 경세치용적(經世致用的) 학문을 강조하거나 헛된 이론이 아닌 사실을 추구하여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실학’(實學)을 주장하였다. 실학의 종류는 크게 경세치용학파(經世致用學派), 이용후생학파 등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이때의 용어는 모두 유학에서 차용하였다.

‘경세치용’이란 세상을 잘 다스리기 위해 실질적인 제도 개혁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경세(經世)’란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며, ‘치용(致用)’이란 실제 쓰임에 이르게 한다는 뜻이다. ‘이용후생’이란 백성의 일상적 생활에 이롭게 쓰이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으로 <서경>에 나오는 말로, 경세제민을 통해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평택은 조선 실학을 일으킨 학자들의 고장이다. 김육, 정제두, 이승훈, 남하정, 남하행 등의 실학자가 있었다. 김육의 대동법시행기념비(大同法施行記念碑)가 평택시 소사동 있다. 김육은 폐단이 심했던 현물 공납 제도를 쌀로 갈음한 대동법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실학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실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평택현감을 지낸 하곡 정제두(1649~1736)는 양명학의 이해를 체계화시키고 양명학파를 확립하여 강화학파에 시조로서 실심(實心)과 실리(實理)는 실학적 방법론으로 양명학과 실학을 절충한 ‘실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심실학의 선구자'²⁾였다. 평택현감을 지낸 이승훈(李承勳)은 천주교 실천자로 서학이 종교로서 발전시켰다. 동천장에 거주하며 남하정의 학풍은사학과 경제치용학파의 토대가 되었고, 남하행은 성호학풍을 안정복, 박사정, 황덕길 등에게 계승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는 평택지역의 실학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태로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평택지역의 실학을 연구하는 시발점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고에서는 다만 폭넓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한계 속에 실학의 특징을 중심으로 문헌적인 연구를 통해 남하정의 거주지였던 진위현의 동천장(桐泉莊(이하:동천장(桐泉莊) 형성, 입향과 정착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남씨 일가의 남하정 가계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사상과 학문의 배경이 되는 교육관계에서 드러나는 가문간의 연결망을 분석해 정치성향을 살펴보고, 실학 가문간의 연결망에 사상과 학문의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남하정의 생애와 저작활동을 통해 관맹상제론의 창시자와 사학자, 실학자로서의 위상을 밝히고자 한다.

2) 정인재,〈신학과 철학〉, 제14집,〈실심실학연구서설 I,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2009, 165~188.

II. 동천장의 형성, 입향과 정착

동천장(桐泉莊)은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에 위치하며 남이(南怡, 1443~1468) 장군의 조모인 정선 공주(貞善公主, 1404 ~ 1424)묘가 있었던 곳³⁾의 의령 남씨의 사패지이다.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토지와 노비, 사령(使令)과 기승(騎乘)을 후손들에게 이어졌다.

〈2022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보고서〉에서는 동천장(桐泉莊)에 의령남씨가 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⁴⁾ 그러나, 동천장(桐泉莊)에 의령남씨가 거주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여지도서〉비안현, 명환조에 남두화(南斗華)가 한양(京)에 살다가 비안현감으로 부임한 내용⁵⁾과 조애중의〈병자일기(丙子日記)〉에서, 조애중 일행이 병자년(1636) 12월 17일자 일기에 청호를 거쳐 진위 감찰택에 들렀다고 기록되어 있어⁶⁾ 한양(京)과 동천장(桐泉莊)에 거주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하정 증조부 남두화(南斗華)의 친할아버지는 남위(南瑋)이고, 친아버

3) 정선공주(貞善公主, 1404 ~ 1424)는 태종의 4녀이자 적4녀이다. 어머니는 원 경왕후이다. 남이는 정선공주의 손자이다. 또한 신사임당의 외고조모이기도 하다. 우의정 남재(南在)의 손자인 의산군(宜山君) 남휘(南暉)에게 출가하여 1남 1녀를 두었다. 묘는 경기도 평택시 동천리 사후동에 있었는데 1974년에 창녕군 부곡면 구산리 산 1번지로 이장하였다.

4) 평택문화원, 〈2022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고서〉(주) 이다, 2022, 434쪽.

5) 〈여지도서〉 비안현, 명환 “京居人順治庚寅來蒞志潔政清民無不悅久益追思”.

6) 남평 조씨〈병자일기(南平 曹氏 丙子日記)〉“그렇게 하다가 보니 청풍(淸風)으로 가는 길은 늦어 가는데 주인(主人)이 복명(復命)하기를 도적이 벌써 그쪽 방향으로 갔다고 하니 그쪽으로는 갈 엄두도 내지 말라고 하거늘 진위(振威)의 감찰택(監察宅)을 찾아 들어가니 시간은 이미 한낮이 지났다.”

지는 남이결(南以傑, 1578~1619)인데⁷⁾ 남이성에게 입양된다. 이러한 출계 상황에서 남이웅의 처 조애중(曹愛重, 1574~1645)의 <병자일기(丙子日記)>⁸⁾속에서 병자호란때 손윗동서 남이영의 부인, 시동생 남이결의 둘째 아들 남두화의 부인, 셋째 아들인 남두춘의 부인이 같이 피난하는 관계로 보아 본가와 가까운 사이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두화가 1651년 비안현감일 때 병조의 계에 의해 엄하게 추고 되어 공초를 받고,⁹⁾ 2년 후 1653년 사망한다. 그가 사망한지 7년 후, 그의 아들 남중유(南重維, 1626~1701)가 1660년(현종1) 경자(庚子) 식년시(式年試) 과거 합격기록에는 강원도 영월(寧越)에서 거주하였다.¹⁰⁾

그 후 남중유는 한양과 동천장(桐泉莊)에 거주하였고, 남하정의 아버지 남수교(南壽喬, 1657~1697)의 과거합격기록에는 1689년 생원이 되었을 때, 동천장에서 거주하였다.¹¹⁾ 1694년(숙종 20) <갑술옥사(甲戌獄事)>가 일어나서 인현왕후(仁顯王后)가 복위하고, 서인이 정권을 잡자, 남중유는 다시 파직되며, 동천장(桐泉莊)에 낙향하였다. 그는 꽃과 채소를 가꾸며 손자들에 게 글을 가르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며 남하정의 1714년(숙종 40) 갑오

7) 이익, <성호선생전집>권59, 墓碣銘, 大興郡守南公墓碣銘 并序. “菊畝於公爲四世也. 菊畝生清州判官諱琯, 判官生咸陽郡守諱以聖, 郡守以司憲監察贈承旨諱斗華爲後, 於公爲考也. 軍資主簿, 贈吏曹參判諱璋, 三登縣令, 贈吏曹參判諱以傑, 卽監察公之本生祖禰.”

8) 남평 조씨<병자일기(南平 曹氏 丙子日記)>:조선(朝鮮) 인조(仁祖) 때 좌의정(左議政)을 지낸 남이웅(南以雄)의 부인인 남평 조씨(1574~ 1645)가 쓴 일기이다. 남평 조씨는 현감 조경남(曹慶男)의 딸로 어머니는 예조정랑(禮曹情郎) 윤강원의 딸이다. 일기의 내용은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난 1636년(인조 14) 12월 5일부터 남평 조씨가 피난길에 오르면서부터 1640년(인조 18) 8월 9일까지의 3년 10개월 동안 식솔들을 거느리면서 보고, 듣고, 겪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9) <승정원일기>6책 (탈초본 122책) 효종 2년 10월 25일 기사 12/39 기사 1651년 順治(淸/世祖) 8년.

10) <경자식년사마방목(庚子式年司馬榜目)>(국립중앙도서관[古6024-224]).

11) <기사증광사마방목(己巳增廣司馬榜目)>(국립중앙도서관[古朝26-29-20]).

(甲午) 증광시(增廣試)에 합격(3등 2위 - 32/100)¹²⁾한양(京)에 거주하였고, 세태의 어지러움에 벼슬길을 단념하고 1726년 동천장에 은거하였다.

Ⅲ. 실학자 남하정의 가계

실학자 남하정의 가계는 본관은 의령(宜寧)이고 고려조에 밀직부사(密直副使)를 지낸 남군보(南君甫)에서 시작되었다. 조선조에 충경공(忠景公) 남재(南在, 1351~1419) 및 그 손자 충간공(忠簡公) 남지(南智, ? ~ 1453)가 있다. 또 3대를 내려와 남세건(南世健, 1484~1552)에 이르고 4대를 내려와 국창(菊窗) 남응운(南應雲, 1509~1587)¹³⁾과 신세량(辛世良)의 딸 사이에서 남관(南瑄), 남호(南琥), 남침(南琛), 남위(南瑋), 남근(南瑾), 정연(鄭演)의 처로 5남 1녀를 두었다. 남관(南瑄)과 이견복(李堅福)의 장녀 완산이씨(完山李氏)사이에서 남이성(南以聖, 1558 ~ 1636), 남이현(南以賢 1564 ~ ?), 권극중 처(權克中 妻 : 남란南蘭, 1561 ~ ?)로 2남 1녀를 두었다.

남호(南琥 1536~1585)는 신사헌(愼思獻)의 딸 사이에서 남이인(南以仁), 남이신(南以信, 1562~1608), 남이공(南以恭, 1565~1640), 남이순(南以順), 유대진 처(俞大進 妻), 이창기 처(李昌基 妻)로 4남 2녀를 두었다. 남침(南琛, 1539~1596)은 구윤(具潤)의 딸사이에서 남이충, 남이효, 최유원 처(崔有源 妻)로 2남 1녀를 두었다. 남위(南瑋)와 한옹(韓翁)의 딸 사이에 남

12) <갑오증광사마방목(甲午增廣司馬榜目)>(국립중앙도서관[古朝26-29-31]).

13) 남응운(南應雲, 1509~1587)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치원(致遠), 호는 국창(菊窓)·난재(蘭齋)·관원(灌園), 개국공신 남재(南在)의 후손으로, 할아버지는 삭령군수 남변(南忭), 아버지는 참판 남세건(南世健), 어머니는 이윤식(李允湜)의 딸이다. 퇴계 이황(李滉)과도 교유하였다.

이영(南以英, 1563~1611), 남이준(南以俊, 1566~1621)¹⁴⁾, 남이웅(南以雄, 1575~1648)¹⁵⁾-出, 남이결(南以傑, 1578 ~ ?), 남이민(南以敏, 1580~?) 5남을 두었다. 남대우는 남위의 아들 남이웅을 입양하였다. 남근(南瑾, 1556~1635)은 이주(李澍)의 딸 사이에서 남이문(南以文), 남이풍(南以風), 목장흠 처(남혜숙 南惠淑, 1572 ~ ?)로 2남 1녀를 두었다. 아버지 죄에 연좌되어 과거도 보지 못하고 벼슬도 하지 못하였다.

남이결(南以傑)은 윤안성의 딸 윤정(尹淨)사이에서 남두로(南斗老), 남두화(南斗華, 1602~1653)-出, 남두춘(南斗春), 남두창(南斗昌, 1602~?)-出, 남두하(南斗夏), 남두경(南斗經), 남두륙(南斗六)으로 7남을 두었다. 남이결의 둘째아들 남두화, 넷째아들 남두창은 남이성(1558~1636)¹⁶⁾에게 입양되었다. 남두화와 첫째부인 민여검(閔汝儉, 1564~1627)¹⁷⁾ 딸 사이에서, 남중유(南重維), 남중계(南重繼)-出, 남중기(南重紀), 남중강(南重綱), (1녀) 조이건(趙以乾)의 처, (2녀) 김구만(金龜萬)의 처로 4남 2녀를 두었다. 남중계는 남두로(南斗老)에게 입양되었고 숙종(肅宗) 36년(1710) 경인(庚寅) 증

14) <황명만력18년경인10월초6일상존호증광사마방목(皇明萬曆十八年庚寅十月初六日上尊號增廣司馬榜目)><청좌부군방목(淸坐府君榜目)>, 대전시립박물관)에는 남이준으로 되어 있으나, 남이후(南以後)로 되어 있다.

15) 남이웅(南以雄, 1575~1648)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적만(敵萬), 호는 시북(市北), 할아버지는 증좌찬성 남응운(南應雲)이고, 아버지는 주부 남위(南瑋), 어머니는 좌의정 한확(韓確)의 손녀 딸이다. 중숙 의흥부원군(宜興府院君) 남대우(南大佑)에게 입양했다. 남대우는 증조부는 남변이며, 조부는 남세평(南世杯)이고, 부친은 남연경(南延慶)이다.

16) 남관의 장남이며, 현감을 지낸 남두화(南斗華)가 그의 아들이다. 품계는 통훈대부(通訓大夫), 함양군수를 역임했다. 묘소는 광주시 세촌면 독정리에서 대전(大田) 대덕구(大德區) 구척대동(九則 大東)으로 이장하였다.

17) 민여검(閔汝儉, 1564~1627)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종례(宗禮), 호는 운촌(雲村) 또는 운곡(雲谷), 조선 후기에, 승문원정자, 전적, 객산군수 등을 역임한 문신, 민구손(閔龜孫)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찬성 민제인(閔齊仁)이고, 아버지는 군수 민사용(閔思容)이며, 어머니는 김승(金昇)의 딸이다. 참판 민여임(閔汝任)의 아우다.

광시(增廣試) 병과(丙科) 23위(33/41)에 합격하였다.¹⁸⁾ 둘째부인 허자(許祿, 1588 ~?)의 딸¹⁹⁾과 혼인하였다.

남중유(南重維, 1626~1701)의 자는 공진(公鎭)이다. 첫째부인은 심설(沈 髙)의 딸인데, 일찍 돌아가서 자식이 없었다. 둘째부인은 심수공(沈壽公)의 딸사이에서 남수교(南壽喬, 1657~1697), 남수종(南壽宗), 남수현(南壽賢, 1674~?) (1녀) 성균관 직강(直講) 이회근(李晦根)의 처 (2녀), 참봉(參奉) 조구령(趙九齡)의 처 (3녀) 이언형(李彦馨)의 처 (서출 1자) 남정(南錠²⁰⁾), 무과 급제, 무관(武官) (서출 2자) 남수석(南壽錫), (서출1녀) 홍유원(洪裕源)의 처를 두었다. 남수교(南壽喬, 1657~1697)와 강석로(姜碩老)의 딸사이에서 남하정(南夏正, 1678~1751), 남하영(南夏永), 남하상(南夏尙, 1684~?)²¹⁾, 남우정(南禹正, 제(弟):남상정(南尙正²²⁾)-出, 남하행(南夏行, 1697~1781)의 5남을 두었다. 넷째아들 남우정은 남수순(南壽順)에게 입양되어 영조(英祖) 14년(1738) 무오(戊午) 식년시(式年試) [진사] 3등(三等) 55위(85/100)에 합격하였다.²³⁾ 남수종(南壽宗)은 남하명(南夏命) 1남을 두

18)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卷之十三(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19) 허자(許祿):광해군 후궁 숙의의 오빠, 만가보 : 12 책 94 면 (우측) 4 단 1 행 “남두화 처 민씨(南斗華 妻 閔氏) 남두화 처 허씨(南斗華 妻 許氏)”, 한국학 디지털 아카이브[한국학중앙연구원] “南斗華 蔭縣監;生以傑;許祿女”라고 기록되어 있다.

20) <계사증광사마방목(癸巳增廣司馬榜目)>(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86])남수현(南壽賢)숙종(肅宗) 39년(1713) 계사(癸巳) 증광시(增廣試) [진사] 3등(三等) 4위(34/100) 서형(庶兄) : 남수정(南壽錠) 서제(庶弟) : 남수석(南壽錫)

21) 숙종(肅宗) 41년(1715) 을미(乙未) 식년시(式年試) [생원] 3등(三等) 36위(66/100)거주지 한성.

22) 남하상(南夏尙, 1684~?)<갑오식년사마방목(甲午式年司馬榜目)>(성균관대학교 존경각[B13KB-0007])에는 제(弟) 남상정(南尙正)으로 되어있다. 성호전집 제 64권 / 묘지명(墓誌銘)성균관 생원 공 묘지명 병서(成均生員南公墓誌銘 并序) 넷째 아들은 진사 우정(禹正)으로 다른 집의 양자로 갔다.

23) <숭정재무오식년사마방목(崇禎再戊午式年司馬榜目)>(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81]).

었다. 남수현(南壽賢)과 이증중(李增重)의 딸사이에서 남하덕(南夏德) 1남을 두었다. 남하정의 가계는 ‘남응운 → 남관 → 남이성 → 남두화 → 남중유 → 남수교 → 남하정’으로 내려온다.²⁴⁾

IV. 의령남씨의 일가의 학맥과 정치 성향

동천장 의령남씨 가계에서 학맥 및 정치성향의 주목되는 인물로 남응운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남응운은 유학자로서 정몽주(鄭夢周)의 충절(忠節)과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 1489~1546)의 학풍을 숭상하였고 퇴계 이황과 교유하였고 개성에 있는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 비(碑)’도 그가 썼다.

남응운의 아들은 진위현령을 지낸 남호(南琥, 1536~1585)이다. 그의 아들인 남이공(南以恭)은 서경덕의 문하의 정개청(鄭介淸, 1529 ~ 1590)의 문생들이 400여 명에 달했는데, 그 중의 한 문하생이었다. 남이공은 남이신(南以信)의 동생이며, 남이웅(南以雄, 1575~1648)²⁵⁾의 4촌 형이다. 정개청의 문생 중에 저명한 자로는 나덕준(羅德峻) 나덕운(羅德潤) 나덕현(羅德顯) 나덕원(羅德元) 안중묵(安重默) 최홍우(崔弘宇) 정식(鄭湜) 유양(柳養) 윤제(尹濟) 정지함(鄭之諫) 등 당시 호남의 유력 가문 출신이 다수였다.

남이공은 정여립 사건과 기축옥사를 계기로 1591년 동인(東人)이 남인(南

24) 안정복, <순암선생문집> 권21, 墓碣, 成均進士桐巢南公墓碣銘 并序. “按狀, 公諱夏正, 字時伯, 宜寧人. 南氏興于麗代, 入我朝, 有上相忠景公諱在, 左相忠簡公諱智, 勳業德望著國乘. 四世至諱應雲, 吏曹參判, 號菊窓, 有文武全才, 於公爲六世祖. 曾祖諱斗華監察, 贈左承旨, 祖諱重維, 有士林重望, 大興郡守. 考諱壽喬, 成均生員.”

25) 남이웅(南以雄, 1575~1648)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적만(敵萬), 호는 시북(市北). 할아버지는 증좌찬성 남응운(南應雲)이고, 아버지는 주부 남위(南瑋), 어머니는 좌의정 한확(韓確)의 손녀 딸이다. 종숙 의흥부원군(宜興府院君) 남대우(南大佑)에게 입양했다.

人)과 북인(北人)으로 나누어질 때 북인(北人)의 분당을 주도하였다. 1599년에 북인은 집권하자마자 홍여순 문제로 다시 북인이 다시 대북(大北)과 소북(小北)으로 나누어질 때, 삼촌 남근은 이산해 홍여순 정인홍 이이첨 등 기존 세력이었던 대북에, 북인의 소장파로서 소북의 유영경 남이공 김신국 유희분 등 신진 세력의 영수가 되었다. 남이공(南以恭)은 이익의 증조부 이상의(李尙毅, 1560~1624)와 함께 소북으로서 정치에 참여한다. 이상의의 아들 이지안(李志安, 1601~1657)은 이황의 학통을 계승한 정언눌(鄭彦窓)의 문하에서 허목(許穆)등과 함께 수학하였다.

의령남씨는 소북에서도 명망 있는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으며 친연성을 유지해갔다. 대표적으로 남근(南瑾, 1556~1635)의 아들인 남이풍(南以風)은 북인인 박승종(朴承宗, 1562~1623)의 딸과 혼인하였고, 남이공의 아들 남두북(南斗北, ?~?)이 소북의 영수인 김시국(金藎國, 1572~1657)의 딸과 혼인하였고, 남이신(南以信, 1562~1608)의 아들 남두담(南斗瞻, 1590~1656)의 딸은 소북인 박수현(朴守玄, 1605~1674)에게 시집 보냈다.

소북은 선조 후반에 소북(小北)은 영수 격인 남이공(南以恭)과 유영경(柳永慶) 사이에 틈이 벌어져 다시 탁소북(濁小北)과 청소북(淸小北)으로 나누어질 때 청소북(淸小北)의 영수²⁶⁾가 되어 속칭 ‘남당(南黨)’이라고 불리었다. 광해군의 후궁인 숙의 허씨²⁷⁾의 오빠인 1615년 허자(許稭, 許植 1588 ~?)가 남근과 함께 관직에 제수되었다.²⁸⁾

허자는 허식으로 개명하는데 남두화의 처부이다. 남근과 그의 사위 최유

26) 광해군일기[중초본] 26권, 광해 2년 3월 23일 기해 10번째기사 1610년 명 만력(萬曆) 38년남이공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27) 허숙의(許淑儀)는 1613년(광해군 5) 광해군의 후궁으로 간택되어 입궁해 숙의(淑儀)에 봉해졌다.그녀가 숙의가 된 후 한미한 관직에 있던 허숙의의 아버지는 순서를 무시하고 관직이 계속 올랐다.

28) <조선왕조실록>광해군일기[중초본] 90권, 광해 7년 5월 14일 기미 2번째기사 1615년 명 만력(萬曆) 43년.

원²⁹⁾은 1617년에 선조비 인목대비(仁穆大妃)의 폐비논의를 일으켜³⁰⁾ 그 정청(庭請)에 참여하고 폐비절목을 작성하는 데 참여하는 등, 이이첨(李爾瞻)을 중심으로 한 대북세력의 정책을 앞장섰고, 남이웅과 동생 남이신은 대북의 영수 이이첨의 회유에 굴하지 않았고, 남이공을 적극 도와주었다. 남이공과 이상의의 손자인 이하진, 이원진은 대북의 폐모론에 반대하다가 귀양갔다.

그러나, <인조반정(1623)> 이후에 반정 공신파의 영수 이귀(李貴)의 추천으로 남이공과 김신국(金薰國)은 다시 등용되었다.³¹⁾ 1623년(인조 1)에 남인정권에서 허적, 허목, 윤휴, 권대운, 오정창 등과 정국을 이끌어가며, 개혁 정치를 주도하였고, 남근은 유배되어 죽었다. 허직(許植)의 동생 허직(許稷)은 유전(柳湍) 유경종(柳慶宗) 이광호(李光濤) 한창국(韓昌國) 이광유(李光裕) 최성립(崔誠立) 유흥원(柳興元) 등과 계해역흥(癸亥逆興)³²⁾을 도모하였다는 혐의로 죽임을 당한다.

남이공은 선조 때부터 광해군 때까지 대동법(大同法)의 확대 실시를 위해 노력하였고, 공서파(功西派)³³⁾의 영수 김류(金瑬)의 추천으로 1625년 함경감사로 있을 때 바닷가의 군에 염분(鹽盆)을 널리 설치하고 백성을 모집하여 소금을 구워 먹게 하고 호조로 하여금 우선 세금을 거두지 말게 하였고,

29) 이이의 문인으로 광해군의 폐모론을 극력 반대하였던 대사헌 해천군(海川君) 최유원(崔有源)이 그의 사위이기도 하다.

30) <조선왕조실록>광해군일기[중초본] 123권, 광해 10년 1월 4일 갑자 5번째기사 / 우의정 한효순 등이 백관을 인솔하고 정청하여 폐모론을 주장하다

31) 이시백(李時白 1592~1660)자(字) 둔시(敦詩), 호(號) 조암(釣岩))은 인조반정을 주도한 연평 부원군 이귀(李貴, 1557~1633)의 장남으로 부자가 함께 공을 세워 공신에 올랐다. 이괄의 난을 토벌하고 영의정을 역임했다. 이시백은 남이웅과 50여년간 교유하였기에 이시백의 아버지인 이귀가 남이공을 추천한 것으로 보인다.

32) 계해역흥(癸亥逆興): 인조반정에 반기를 들어 주동한 인물.

33) 공서파: 1623년 인조반정을 주도한 서인 공신 세력 중심의 당파.

진전(陳田)이 모두 결역(結役)³⁴⁾에 해당되어 원곡(元穀)은 빈 장부만 남아 있으니 조속히 측량하여 경작하지 않는 전결에 대해서는 모두 감하게 하였다.³⁵⁾ 단천(端川)의 은광(銀鑛)을 백성들이 채취하게 하여 민력을 펴도록 건의하였고,³⁶⁾ 1628년(인조 6) 백성들에게 포목(布木) 대신에 동전(銅錢)을 사용하도록 용전법(用錢法)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³⁷⁾ 17세기 국가를 지탱한 것이 안정적인 농민층의 형성과 농산물 생산의 증대, 이를 통한 상업 발전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원진의 여동생이 유흠과 혼인하여 실학자 반계 유형원(1622~1673)³⁸⁾을 낳았다. 유형원이 2세 때 그의 아버지 유흠은 유몽인(柳夢寅)의 옥에 연좌되어 28세라는 젊은 나이에 옥사하였다. 유형원은 외삼촌 이원진과 고모부 김세렴³⁹⁾을 모시고 5세 때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유형원이 외종조부 이지안과의 인연이 작용하여 허목의 문하에 출입하게 되었다.

중농주의 학파인 유형원이 화폐를 '화천(貨泉, 재화의 샘)'이라 부르며 그 유통을 적극 주장한 것은 이원진의 처부인 남이공의 경제사상이 크게 영향

34) 지방관청은 부족한 재원과 상급 기관의 요구 및 수령·향리들의 필요에 의하여 물건과 인력을 토지나 가호에 부과하였다. 이를 결역(結役)이나 호역(戶役)이라고 하고 합쳐서 결호역(結戶役)이라고 하였다.

35) <조선왕조실록> 인조실록 9권, 인조 3년 7월 8일 갑인 1번째기사 1625년 명 천계(天啓) 5년.

36) <조선왕조실록> 인조실록 9권, 인조 3년 6월 15일 신묘 6번째기사 1625년 명 천계(天啓) 5년.

37) <조선왕조실록> 인조실록 19권, 인조 6년 7월 14일 계유 1번째기사 1628년 명 천계(天啓) 8년남이공이 용전법을 다시 시행할 것을 청하다.

38) 유형원(1622~1673) 본관은 문화(文化), 자는 덕부(德夫), 호는 반계(磻溪), 세종 때 우의정을 지낸 유관(柳寬)의 9세손이다. 현령 유위(柳緯)의 증손자이고, 할아버지는 정랑 유성민(柳成民)이다. 아버지는 예문관검열 유흠(柳慤)이며, 어머니는 참찬 이지완(李志完)의 딸이다. 18세에 혼인했는데, 처는 심수경(沈守慶)의 증손녀이자 부사 심은(沈闇)의 딸이다. 유형원의 할아버지 유성민(柳成民)과 아버지 유흠은 북인이었다.

39) 유형원의 고모부 김세렴(金世濂)은 동인(東人)의 초대 당수인 김효원(金孝元)의 손자이다.

을 미쳤다. 유형원의 고모부인 김세렴의 사위는 이가우(李嘉雨)⁴⁰⁾이다. 대북(大北)계열에서 남인(南人)으로 전향한 문신인 송곡 이서우의 동생이 이가우이다. 유형원의 학문은 후에 증농학파인 이하진, 이서우, 오상렴, 이익 등에게로 이어진다.

남이웅은 이민구(李敏求, 1589~1670)⁴¹⁾ 조경(趙綱, 1586~1669)⁴²⁾ 이시백(李時白 1592~1660)과 친분을 유지하며 교유하였다. 이러한 친분관계는 남이웅이 관원 후보를 서인, 남인, 북인으로 구성하여 올려 삼색도화(三色桃花)로 불릴 수⁴³⁾있었던 배경이었던 점이 확인되며 남인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남이웅은 이민구(李敏求, 1589~1670)⁴⁴⁾ 조경(趙綱, 1586~1669)⁴⁵⁾ 이시

40) 이가우의 외할아버지는 이경유이고 외종조부 이경록과 외당숙 이서도 서인 가문이었다.

41) 이민구(李敏求, 1589~1670)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자시(子時), 호는 동주(東州), 관해(觀海), 신당부수(神堂副守) 이정(李禎)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이희검(李希儉)이다. 아버지는 이조판서 이수광(李睟光)이며, 어머니는 김대섭(金大涉)의 딸이다.

42) 이금익,〈연려실기술〉권28, 인조조 상신에 실려 있다. 조경은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일장(日章), 호는 용주(龍洲), 주봉(柱峯). 정충장군(折衝將軍) 조수곤(趙壽崑)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공조좌랑 조현(趙炫)이고, 아버지는 봉사(奉事) 조익남(趙翼男)이다. 어머니는 증좌승지 유개(柳愷)의 딸이다. 윤근수(尹根壽)의 문인이다.

43) 이진창,〈당의통략〉仁祖朝, “北人惟以雄嘗吏曹判書, 每注擬參用西南北爲三望, 時號三色桃花”.

44) 이민구(李敏求, 1589~1670)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자시(子時), 호는 동주(東州), 관해(觀海), 신당부수(神堂副守) 이정(李禎)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이희검(李希儉)이다. 아버지는 이조판서 이수광(李睟光)이며, 어머니는 김대섭(金大涉)의 딸이다.

45) 이금익,〈연려실기술〉권28, 인조조 상신에 실려 있다. 조경은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일장(日章), 호는 용주(龍洲), 주봉(柱峯). 정충장군(折衝將軍) 조수곤(趙壽崑)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공조좌랑 조현(趙炫)이고, 아버지는 봉사(奉事) 조익남(趙翼男)이다. 어머니는 증좌승지 유개(柳愷)의 딸이다. 윤근수(尹根壽)의 문인이다.

백(李時白 1592~1660)과 친분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괄(李适)의 난(1624)이 일어나자 남이웅은 황주수성대장(黃州守城大將), 이민구는 도원수 장만(張晩)의 종사관(從事官), 이시백은 협수사가 되어 이천에서 길목을 지켰으며 안현에서 반란군을 격파해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웠다. 남이웅은 1635년 강화도유수사로 있다가 1636년 병자호란으로 남한산성까지 인조를 호종했고, 이민구는 강화도 부검찰사로서 강화도 함락의 책임을 지고, 1637년 평안도 영변 유배지에 있을 때 소현세자를 따라 심양에 간 남이웅이 편지를 받고 지은 시 한편과 다음해 남이웅이 심양에서 돌아오는 길에 방문하여 만났다는 시 한편이 있을 정도로 아주 각별한 사이였음이 확인된다.⁴⁶⁾

이민구(李敏求)는 이수광(李睟光)의 아들로 북인의 영향을 받은 남인 곧 북인계 남인으로 남인의 거두이자 청남의 영수였던 백호 윤휴(1617~1680)의 스승이다. 그는 17세기 초반 발생한 비주자학적 학풍의 움직임을 형성한 인물로, 이민구의 영향으로 윤휴가 비주자학적 학풍으로 ‘사문난적’으로 공격을 받았던 것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남이웅의 친구인 조경(趙綱)이 남이웅의 묘비명에서 조애중에 대해 “가르침을 받들어 부모님에게 효성스럽고 남편에게 공손하였으며 움직임에 반드시 예법에 맞아서 집안이 항상 엄숙하였다. 죽음에 이르러서는 서자와 첩자들도 모두 친어머니의 상(喪)을 당한 듯이 슬퍼 곡하였으니 그 어쉴을 가히 알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의 가정에 대해 잘 아는 각별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⁴⁷⁾ 조경은 미수 허목과 교류하기 시작해서 말년까지 친분

46) 이민구, <동주집>詩集 권1, 夜夢南春城, 既覺, 得九月二日書, 時南在瀋陽; <동주집>詩集 권2, 端午日, 南春城從瀋陽回, 迂路見枉.

47)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

을 유지하였고⁴⁸⁾ 조경신도비명을 허목(許穆)이 찬하였다.⁴⁹⁾ 허비(許扉)의 6대손인 미수 허목은 정언눌(鄭彦訥)에게 글을 배우고, 거창현감으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가서 광해군이 영창대군을 죽이자 거창에 은거한 조경과 함께 조식(曹植), 오건(吳健), 정구(鄭逵)의 문인인 문위(文緯 1554~1631)에게 수학하였다. 허목은 문위의 소개로 한강 정구(鄭逵)를 찾아가 문하에서 수학하게 되었다. 미수 허목(許穆, 1595~1682)은 이언적과 이황에서 김성일 정구의 학통과 서경덕과 조식 등 북인계 학통 여기서 확인된다.⁵⁰⁾ 그는 후일 유형원, 이서우, 이담명, 이익 등에게로 학맥을 연결시킨, 성리학과 실학의 과도기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목내선 등의 남인계들도 그의 문하에서 다수 배출되었다

이시백(李時白, 1581~1660)⁵¹⁾은 이귀의 아들이며 성혼, 백사 이항복, 사계 김장생,에게 학문을 배운 서인계 인사로 그들과 두루 교유하다가 장인 김찬(金瓚, 1543~1599)⁵²⁾의 영향으로 이황에서 김성일, 정구로 이어지는 남인 학통을 중시하게 되었다.

남이공은 대사헌(大司憲), 공조 판서에 임명되었다가, 청나라의 요구로 파직되었다가 76세로 사망하였다. 남이웅 이조판서를 있을때 남두화는 금부도사(禁府都事)를 제수받았다.⁵³⁾ 영의정 김류와 남이웅은 우의정이 되어 민

48) 허목은 조경 집안의 묘도문자를 많이 남긴 인물이다. 그는 조경의 부친인 조익 남의 묘갈명을 지었고 비의 전서(篆書)를 썼으며, 모친인 진천 송씨의 만시 서(輓詩序)를 지었다. 허목은 조경의 묘지명과 신도비명, 조경의 아우인 조구의 묘지명을 지었다.

49) 포천문화원, <포천금석문대관>, 1998, 포천군.

50)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

51) 이시백(李時白, 1581 ~ 1660)은 조선의 문신이다. 자는 돈시(敦詩), 호는 조암(釣巖), 시호는 충익(忠翼), 본관은 연안이다.

52) 조선 중기에, 이조판서, 우참찬, 대사헌 등을 역임한 문신.

53) <승정원일기> 95책 (탈초본 5책) 인조 24년 12월 26일 무술 5/13 기사 1646년 順治(淸/世祖) 3년任繡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회빈 강씨(愍懷嬪姜氏: 昭顯世子の 嬪)의 사사(賜死)를 반대하고 사직했다. 1647년(인조 25) 남두화가 보은현감(報恩縣監:재임기간 1647~1648)⁵⁴⁾이었다.⁵⁵⁾ 남이웅 1648년(인조 26) 좌의정에 올랐고, 사직하였다가 사망하였다. 남이웅이 사망하자 그의 친구 조경은 제문과 묘표, 신도비명 등을 지어 애도하였다. 남두화는 비안현감(庇安縣監:재임기간 1650~1651)⁵⁶⁾으로 있다가 병조의 계에 의해 엄하게 추고되어 공초를 받고,⁵⁷⁾ 2년 후 사망한다.

1차(기해예송 1659년)는 효종이 사망한 이후, 모후인 장렬왕후가 입어아하는 상복의 '규례'를 두고 일어난 논쟁에 서인에 패한 후 남인의 중추였던 조경, 허목, 윤선도, 권시 등의 명사가 축출되었고, 신인들의 진출도 견제를 받았다. 조경은 현종 2년(1661)에 윤선도(尹善道)의 상소를 변론하였고 허목은 경신환국 이후 그는 윤선도의 둘째 아들 윤의미(尹義美)의 아들 윤이후(尹爾厚 1636~1699)의 청으로 해옹윤참의비(海翁尹參議碑:윤선도의 묘비문)와 신도비문을 지어주었다.

남하정의 조부 남중유는 남인으로서 1663년(현종 4)에 유생으로서 서인

54) <승정원일기> 98책 (탈초본 5책) 인조 25년 7월 17일 병진 4/7 기사 1647년 順治(淸/世祖) 4년李楚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노봉집 제8권 민여검은 아들 3명을 낳았으니, 평(枰)·해(楷)·환(桓)이다.

딸 2명은 부사 정홍임(鄭弘任)과 현감 남두화(南斗華)에게 각각 시집갔다.

남두화의 현감기록은 보은현감과 비안현감을 한 승정원일기 기사가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디지털 장서각 보은군선생제명록(報恩郡先生題名錄) 2003 “南斗華順治四年丁亥八月初七日到任戊子十一月十三日因 監司 相避遞”

55) <승정원일기> 98책 (탈초본 5책) 인조 25년 7월 17일 병진 4/7기사.

56) <승정원일기> 112책 (탈초본 6책) 효종 1년 4월 6일 기축 4/6 기사 1650년 順治(淸/世祖)7년 洪瑑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吏曹, 口傳政事, 淸州牧使沈之溟·李枝茂·李樛.傳曰, 淸州牧使, 護軍洪瑑除授.庇安縣監△南斗華·李祉遐·郭衛國.傳曰, 今番朔書中, 有書佛語者, 殊甚未妥.今後則使之勿書如此文字. 비안현: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지역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던 조선시대의 관청이자 행정구역.

57) <승정원일기> 6책 (탈초본 122책) 효종 2년 10월 25일 기사 12/39 기사 1651년 順治(淸/世祖) 8년.

의 태두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의 문묘 종사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과거응시 자격이 정지되었는데, 퇴계학파의 학문적 정통성을 인정받고 학문우위를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서인(西人)의 영수 송시열(宋時烈)과 송준길(宋浚吉)이 집권하던 현종 때 12년 동안 벼슬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남인이 갑인예송(1674) 때 서인의 처분을 두고 청남과 탁남으로 분화되었다. 청남이란 허목과 윤휴를 영수로 한 세력으로 허목(許穆, 1595~1682)⁵⁸⁾은 예송논쟁 기간 중 송시열의 사형을 주장하였고, 송시열에 대한 온건 처벌론을 주장하는 탁남의 허적(許積, 1610~1680), 권대운 등과 갈등하였다.

1675년(숙종 1) 서인의 영수 송시열을 유배되고 남인(南人) 허적(許積) 등이 등용되었다. 남두화의 장인 허자(許祿, 1588 ~?)⁵⁹⁾는 허적(許積)과 4촌간이었다. 남두화의 아들 남중유는 동몽교관(童蒙敎官), 종부시 주부(主簿), 사헌부 감찰(監察), 형조 좌랑(佐郎), 충청도 청산현령(靑山縣令)으로 나갔다.

영의정 허적이 죽음을 당하고 서인이 정권을 잡자, 1680년(숙종 6) 〈경신 대출척(庚申大黜陟)〉이 일어나서 서인은 남인의 처분을 두고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되었다. 남두화의 아들인 남중유는 반대파의 모함으로 파직되었고, 1681년(숙종 7) 감시(監試)의 시권(試券) 가운데 숙종은 익명의 상변서(上變書)를 볼태우고 문제를 삼지 않았다.⁶⁰⁾

원자 정호와 폐비 사건으로 인해 공신 외척 서인을 물리치고 남인을 재기용한 사건인 기사환국(己巳換局, 1689)으로 남인들이 정권을 다시 장악하자

58) 허목(許穆, 1595~1682)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문보(文甫), 화보(和甫), 호는 미수(眉叟), 찬성 허자(許磁)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별제 허강(許樞)이고, 아버지는 현감 허교(許喬)이며, 어머니는 정랑 임제(林悌)의 딸이다. 부인은 영의정 이원익(李元翼)의 손녀이다.

59) 허익(許稷)의 합격 기록에는 [진사] 광해군(光海君) 7년(1615) 을묘(乙卯) 식년시(式年試) 형(兄) : 허자(許祿 : 改植)[進]를 개명한 것을 알 수 있다.

60) 〈승정원일기〉 숙종 7년 신유(1681) 8월 21일(신축) 감시 초시의 시권 중에 이름을 숨기고 상변한 글.

정치의 주도권은 탁남 계열이 이끌어가고 청남 계열 일부가 진출하자, 남중유는 귀후서 별제(歸厚署別提), 공조 정랑(正郎), 사직서령(令)을 지내게 되었다.

1694년(숙종 20) <갑술옥사(甲戌獄事)>가 일어나서 서인이 집권하면서, 민암(閔黯)을 사사(賜死)하고, 권대운(權大運) 목내선(睦來善) 김덕원(金德遠) 등은 유배되었고, 남중유도 파직되어 동천장(桐泉莊)으로 낙향하였다.

1722년(경종2) 근기남인들은 분열이 일어나 문외파(門外派), 문내파(門內派), 과성파(跨城派)로 나뉘어졌다. 문외파는 허목 등의 청남(淸南)을 계승한 세력이었다. 남하정은 기사환국 이후 권력자였던 남인들에 대해 비판적이나 그가 <미수기언>의 내용을 자주 인용하면서 허목(許穆)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성호 학맥으로 평가되는 이익(李瀾), 안정복(安鼎福), 황덕길(黃德吉)이 남하정을 위해 묘갈명을 쓰고 있어 성호학맥에서의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남하정 아들 야(壑)의 부탁으로 이익은 “동소 남공 묘지명 병서(桐巢南公墓誌銘 并序)”⁶¹⁾를 썼으며, 남하정에 대하여 “오당(吾黨)에서 재주를 숨기어 뜻을 이루었으며 평소 경외하고 좋아하는 분”이라 평가하였다.⁶²⁾

남하정의 <동소만록>이 세상에 나오자, 이익의 제자인 안정복의 고품이 있는 후 근기남인들이 함께 필사하여 전했고, 서인들은 기사를 반박하는 세주(細註)를 달아 편찬할 정도로 널리 읽혔다. 실학자 박사정(朴思正, 1713~1787)⁶³⁾과 문장가로 명성이 있던 인물 부친 박이문(朴履文,

61) 이익, <성호선생전집>권65 묘지명(墓誌銘).

62) 이익, <성호선생전집>권65, 桐巢南公墓誌銘 并序. “吾黨有顯胄逸材, 斂迹遂志, 宜寧南公者, 瀾所嘗畏而說也.

63) 박사정(朴思正, 1713~1787)은 본관은 반남(潘南)이며, 호는 농와(農窩)로 증조할아버지는 박창하, 할아버지는 승지(承旨) 박징(朴澄)이며, 외할아버지는 사천 목씨(泗川睦氏)는 목기선 아들인 목임형(睦林馨), 아버지는 고심재(古心齋) 박이문(朴履文, 1673~1743), 장인은 이산해(李山海)의 고손인 전의 이씨(全義李氏)는 이운근(李雲根)이다. 두번째 부인은 목상주(睦尙周)의 딸이다.

1673~1743)과 함께 어린 시절에 남하정을 만난 적이 있었고,⁶⁴⁾ 남하정의 막냇동생 남하행의 제자인 박사정⁶⁵⁾은 남하정의 봉당관을 좇아 당시 여러 정파로 분열된 정치상황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실학자 황덕길(黃德吉)은 남하정의〈동소만록〉을 참고하여⁶⁶⁾ 이른바 ‘믿을 만한 기록[信筆]’이라는 제명(題名)에 통사체제와 정치사의 재구성 방식을 그대로 계승하며, 필자의 주장이나 취지의 선명성을 유지하면서 자질구레한 내용을 빼서, 정선된 당론을 재천명하였다.⁶⁷⁾ 이로써 노론의 공세에 맞서 청남(淸南)의 정치력을 제고시키고 올바른 학문을 수호한 면모를 덧붙임으로써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정파와 학파를 보호하고 위상을 고양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볼 때 남하정 가문은 가학으로는 화담학통이면서 퇴계학통의 영향을 받아 성호학풍 형성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

남이공, 남이웅, 남두화는 북인(北人), 소북(小北), 청소북(淸小北)을 거쳐, 남하정의 조부 남중유대에 와서 남인으로 합류하였고, 남중유와 남수교의 동천장으로 낙향하고, 남하정의 산림처사의 생활은 서인과 정국 주도권을 놓고 각축을 벌였던 남인의 청남파, 문외파로 정치적 행보를 주도하며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64) 남하정,〈동소만록〉부록, 발, “不佞, 少也, 嘗從父兄長者後, 獲承警欬桐巢南先生.” 앞의 책, 2017, 685면.

65) 안정복,〈순암집〉권23, 通德郎聲窩朴公墓誌銘 並序, “不有知己之友, 誰發知己之志, 不有後死者之言, 誰識先死者之行. 我生而公死, 豈忍使公志行磨滅哉.”

66) 안정복,〈순암선생문집〉권23, 成均進士獨醒齋黃公墓誌銘, “公嘗狀我王考行曰: 知公者莫如我. 至比於元祐完人, 我先人亦嘗曰: 知某氏者莫如我. 大冬嚴雪, 挺然獨秀者, 某氏爲然, 鼎福亦被公獎勉期許者不少. 公處我三世, 契分特厚, 公孫德壹持狀文來請誌, 義不敢辭”.

67) 원재린,〈한국사상사학〉53,〈조선후기 남인 당론서 편찬의 제 특징〉-〈동소만록(桐巢漫錄)〉과〈조야신폴(朝野信筆)〉을 중심으로 -, 韓國思想史學會, 2016.

V. 실학자 남하정의 삶과 저술활동

남하정(南夏正, 1678~1751)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로 자는 시백(時伯), 호는 동소(桐巢)이다. 남하정의 출생지는 한성, 또는 동천장으로 판단된다.⁶⁸⁾

그가, 19세 때 아버지를 여의었지만 학문에 전심하여 경사(經史)와 제자백가(諸子百家)에 널리 통하였다. 과거에 응시하기 전부터 글을 잘 지어 그는 명성이 있었다. 장유(張維, 1587~1638)와 이식(李植, 1584~1647)등이 조선 문학 4대가⁶⁹⁾로 꼽혔다. 송시열(宋時烈)이 장유를 “그는 문장이 뛰어나고 의리가 정자와 주자를 주로 했으므로 그와 더불어 비교할만한 이가 없다.”고 칭송할 정도의 인물이었다. 사람들은 과거 시험에서 그가 지은〈출사책(出師策)〉은 명문장으로 일컬어져 이들을 능가할 정도였다.⁷⁰⁾ 당시의 학자들 중에 남하정보다 앞서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였다. 그가 이렇게 성호학파의 형성되기 이전부터 유력한 인사였다.⁷¹⁾

남하정은 1714년(숙종 40) 갑오(甲午) 증광시(增廣試)에 합격(3등 2위 - 32/100)하여 진사가 되었다.⁷²⁾ 모친이 1726년에 사망하니 남수교의 묘 옆에 부장한 후, 초야에서 세태의 어지러움에 얼마 후에, “과거 공부는 원하

6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는 안정복의 순암집에 근거하여 공주시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외가에 대한 기록으로 외조부 강석로(姜碩老)[생원] 효종(孝宗) 3년(1652) 임진(壬辰) 증광시(增廣試)합격시 거주지가 한성이며 그의 동생 강석구도 1654년 효종(孝宗) 5년(1654) 갑오(甲午) 식년시(式年試)합격시 거주지가 한성이었다. 조부 남중유가 한성과 동천장에 거주하였고 출생당시에는 등용되었기 때문에 한성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남하정의 부친인 남수교는 과거합격시 동천장에, 남하정은 과거합격시 한성에 거주하였다.

69) 장유(張維), 이정구(李廷龜), 신흠(申欽), 이식(李植) 등을 조선 문학의 사대가(四大家)라는 칭호를 받았다.

70) 어떤 문제(文宰)가 공의 출사책(出師策)을 읽고는 “이 글은 마땅히택당(澤堂)으로 하여금 권좌를 양보하게 할 것이다.”라고 했다.

71) 안정복(순암선생문집)제21권 / 묘갈(墓碣)21권 / 성균진사동소공묘갈명(成均進士桐巢公墓碣銘) 병서

72) 〈갑오증광사마방목(甲午增廣司馬榜目)〉(국립중앙도서관[古朝26-29-31])

는 바가 아니다.”하고, 남하정의 동인(同人)⁷³⁾들과의 논의를 거쳐 마침내 벼슬길을 단념하고 초야인 동천(桐泉)에서 은거생활을 하며 자기의 뜻을 굳게 지키며 동소(桐巢)라 자호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그 재주는 남들도 미칠 수 있지만 그 뜻은 빼앗을 수 없다”라고 그의 뜻을 높이 샀다. 경세치용과 사학에 대하여 성호와 같이 강론하며 후진 양성으로 일생을 보냈다.

그는 효성과 우애가 남달랐으며,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는 성신(誠信)이 있었고, 자제들을 의리로써 가르쳤다. 또한 검약을 항상 생활신조로 삼았는데, 이익(李瀾)이 “군자는 속에 있는 본성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평하였다. 손님들이 그를 만나보고 와서는 “일문(一門)의 신분, 지위 따위의 높음과 낮음이 질서정연하여 생활상의 예법과 제도(制度)에 어긋나지 않으니, 당시의 풍속에 모범이 될 만하다.”라고 하였다.

남하정의 저술로는 우연소설 〈사대춘추〉〈동소만록〉외에 시문집 〈동소유고〉가 있다.

〈사대춘추〉는 조선 후기에 남하정(南夏正)이 지은 한문소설이다. 이익(李瀾), 정량흠(鄭亮欽), 목회경(睦會敬)의 서(序)가 있고, 권감(權堪), 권정원(權正遠)의 발이 있다. 〈사대춘추〉는 남하정이 만년에 창작하였고 미처 글을 손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 남하정의 막내 동생 남하행과 막내아들 남육이 정량흠에게 마무리를 부탁하게 된다. 정량흠은 남하정의 글을 잘 알고 있어, 〈사대춘추〉의 산삭을 맡았고, 《사대춘추》를 읽은 후, 차운한 시와 서문을 남겼다. 1종 활자본과 3종의 필사본이 있는데, 활자본은 1927년 남하정의 후손 도희(道熙)가 광문사에서 50면으로 인쇄해 찍어 내었는데,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필사본 1은 남하정의 9대손 기진(基振)

73) 동인은 남하정과 막역한 황최(黃最, 1680~1750), 박지문(朴趾文, 1694~1730), 이덕주(李德胄, 1695~1751), 이혜주(李惠胄), 홍일환(洪日煥, 1692~?), 홍제보(洪濟輔)를 말한다. 박이문의 종제가 박지문(朴趾文, 1694~1730)이다.

이 1985년〈동소집〉,〈동소만록〉과 합편하여 영인한《동소전집》에 수록되었다. 필사본 2는 임형택이 소장하고 있다. 필사본 3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동패낙송초〉에 전문이 선입되어 있다.

이 작품은 사계절의 변화에 공자의 춘추정신을 대입시켜, 정치현실의 이해득실을 논한 가전체 작품이다. 〈사대춘추〉는 치밀한 구성, 풍부한 내용과 기발한 착상, 그리고 장편이라는 점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할 때에 〈화사〉의 맥락을 잇는 의인문학의 걸작으로 평가된다.

책의 구성은 봄·여름·가을·겨울 네 계절을 각 1대로 하고, 1대 석달을 각 1왕조로 하며, 1왕조 30일을 재위연수로 삼아 13왕조 282일 간의 흥망성쇠를 계절의 변화에 비의하여 편년체로 엮었습니다. 내용은 4종이 모두 서두부인 사대춘추범례 8조목, 그리고 원기(元紀), 하기(夏紀), 상기(商紀), 북연기(北燕紀), 그리고 결미부인 외사씨(外史氏)로 구성되어 있다.

남하정은 이 책을 통하여 이상적인 정치의 구현을 위하여 〈사대춘추〉에서 각 나라의 개국군주와 폐군을 비교하면서, 국가를 잘 다스리려면 인의(仁義)와 형정(刑政)을 과도하거나 부족하면 안 되고, 상황에 따라 관대하고 엄격한 정책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고 하였다. 실학자들은 성리학이 주장하는 도덕정치론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민생 복리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을 정치로 이해하였다. 관맹상제론(寬猛相濟論)은 실학의 경세론 중 하나로, 성리학의 도덕적 보편주의에 대비되는 현실주의, 공리주의 정치 개념이다.〈주례〉의 관맹상제(寬猛相濟)라는 말과 〈맹자〉의 관맹상제(寬猛相濟)라는 장에 근거하여 관맹상제론(寬猛相濟論)⁷⁴⁾을 주창하였다. 즉 중앙집권 체제를 지향하고 국왕의 인사권을 중시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남인이 추구했던 사회는 국가적인 힘을 통해 위계 질서를 바로잡고, 이를 통해 각각

74) 관맹상제: 기원전 522년인 '좌전' '소공(昭公)' 20년조에 나는데 "너그러움과 엄격함의 조화를 이룬다." 는 뜻으로 이상적인 정치세계를 위한 통치자들의 덕목을 말한다.

에게 맞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였다. 통치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덕목으로 인재발굴의 확대, 세신의 위험성, 섭정의 불가함, 구휼 진대의 실시, 폭정에 대한 견제, 여색에 대한 경계, 충간의 수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익(李瀾)은〈사대춘추〉에 대해 “뜻은 드러내기를 삼갔고 말은 완곡하게 하는 것을 중시하여서 마침내 가리워졌다.(志禁表露, 言貴微婉, 卒乃掩之.)”고 하였다. 정랑흠은 “이 편은 만년에 이룬 것인즉 뜻이 은미하여 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다.(此編者, 成於晚年, 則其微旨, 非夫人之所能知.)”라고 하였다.

남하정(南夏正, 1678~1751)이 영조 대에 수세에 몰린 근기남인들의 실상을 기록하고 다시 결집의 명분을 찾기 위해 〈동소만록〉을 저술하였다. 〈동소만록〉은 조선 역대 왕들의 일사(逸事)로부터 명신(名臣), 석유(碩儒)들의 행적, 저작과 당쟁(黨爭) 등에 관한 내용을 연대순으로 초록한 책이다.

판본은 크게 3종류이다. 〈동소만록〉은 본래는 3책이던 것을 남하정의 막냇동생인 남하행(南夏行, 1697~1781)의 제자인 박사정은 스승의 지시에 따라 중복된 것과 필요 없는 글자나 글귀를 지워 버리고 기사의 차례를 바로잡아 상하(上下) 2권으로 만들었다. 1925년에 일반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고자 활자본으로 출간하면서 편차를 다시 한번 수정하여 3권 2책으로 만들었다. 1779년(정조 3)경에 개편되었다.⁷⁵⁾ 권말에 수록된 박사정과 한정원의 발문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2권 2책의 필사본(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소장), 3권 2책 연활자본(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각, 규장각), 8권 4책의

75) 남하정, 〈동소만록〉부록, 발“潛翁以原本三冊, 屬余而戒之曰: 此篇初既隨錄, 無先後之序, 間或有一事而重言之者. ……不佞於先生之遺業, 窃幸附驥, 有不可辭. 遂置諸案上, 反復披閱, 然後乃敢刪其煩, 複定其次序, 手自繕寫, 爲上下二卷.” 앞의 책, 2017, 686면.

목판본(규장각)이 각각 존재하고 있다.⁷⁶⁾

전체적인 서술방식을 보면 봉당의 전말에 관해 숙종대 전반 이전까지는 조야의 고사를 수집하여 타인의 저술에서 인용하고 전거(典據)를 밝혔으며, 그가 직접 겪은 자신의 견문에 의해 객관적으로 서술하려 노력하여 폭넓은 시기의 광범위한 사실을 다루는 통사적 체계를 갖춘 대표적인 정치서이다. 근기(近畿) 남인(南人)을 대표하는 당론서로서 이익(李瀾) 등 후학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실학자 안정복이 지은 남하정 묘갈명에서는〈동소만록〉에 대해서 “몇 권을 지어서 당쟁의 의논이 사람의 마음을 통하지 못하게 함을 통렬히 비판했는데, 위세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좋아한다고 두둔하지도 않아 한결같이 정론으로 돌아가니, 말을 아는 사람이 “사가(史家)의 동호(董狐)이다.”라고 하였다.”⁷⁷⁾ 박사정은〈동소만록〉을 ‘공자의 춘추필법(春秋筆法)이 잘 반영된 역사책’이라고 평가하였다.⁷⁸⁾

〈동소유고(桐巢遺稿)〉는 남하정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27년에 간행한 시문집으로 7권 4책이 남아 있다. 권4에 1731년(영조 7)지은 〈계룡산기행〉이 수록되어 있는데, 남하정이 계룡산에 올라가서 본 주위의 경치를 묘사하고 나서 날이 어두워져 계룡산에 더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적은 글이다. 1775년(영조 51) 아들 규(奎)가 편집하였고, 1927년 방손 상순(相舜)이 간행하였다.〈동소유고(桐巢遺稿)〉에는 1775년(영조 51)에 정량흠(鄭亮欽), 유경종(柳慶種)의 서(序)가 있고, 정범조(丁範祖), 정홍경(鄭鴻慶)의 후서(後序)가 있으며 남병훈(南炳薰), 남상순(南相舜), 권경채(權

76) 규장각 소장의 2권2책의 필사본은 여강출판사에서〈조선당쟁관계자료집〉으로, 규장각소장의 3권 2책의 연활자본은 오성사에서〈당쟁자료집〉으로 영인되었다.

77) 안정복 “痛黨論之錮人心也 不以威 不以愛護 一歸于正” 동호: 춘추 시대 진 나라 사관으로서 직필로 사실을 기록하였음. 공자는 ‘동호는 옛날의 훌륭한 사관이다. 법대로 기록하여 숨기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78) 광주시사편찬위원회,〈광주시사 2〉홍익기획 · 홍익문화, 2010

景采)에 의한 발(跋)이 있다. 부록에 강박(姜樸)의 행장(行狀)과 황덕길(黃德吉)의 유사(遺事)가 있다. 규장각 도서·국립중앙도서관·고려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체제를 살펴보면 본문에 앞서 권두에〈동소선생약전〉과 41종의 인용서목(引用書目)을 싣고 있는데, 현재 전해지지 않는 잡록(雜錄)류로〈유씨도올(柳氏禱枕)〉〈석실록(石室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1925년 활자본으로 간행하면서 덧붙인 것이다.

VI. 맺음말

이상에서와 같이 평택의 실학(진위현 동천장 실학자 남하정을 중심으로)을 정리하고자 한다.

동천장의 형성, 입향과 정착은 동천장(桐泉莊)은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에 위치하며 남이(南怡, 1443~1468) 장군의 조모인 정선 공주(貞善公主, 1404 ~ 1424)묘가 있었던 곳⁷⁹⁾의 의령 남씨의 사패지로 남하정의 증조부 남두화때 부터 동천장(桐泉莊)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1694년(숙종 20) 〈갑술옥사(甲戌獄事)〉가 일어나서 남중유는 동천장(桐泉莊)에 낙향하였다. 남하정의 1714년과거 합격시 한양(京)에 거주하였고, 세태의 어지러움에 벼슬길을 단념하고 1726년 동천장에 은거하여 정착하게 된다. 실학자 남하정의 가계는 ‘남응운 → 남관 → 남이성 → 남두화 → 남중유 → 남

79) 정선공주(貞善公主, 1404 ~ 1424)는 태종의 4녀이자 적4녀이다. 어머니는 원 경왕후이다. 남이는 정선공주의 손자이다. 또한 신사임당의 외고조모이기도 하다. 우의정 남재(南在)의 손자인 의산군(宜山君) 남휘(南暉)에게 출가하여 1남 1녀를 두었다. 묘는 경기도 평택시 동천리 사후동에 있었는데 1974년에 창녕군 부곡면 구산리 산 1번지로 이장하였다.

수교 → 남하정'으로 내려온다.⁸⁰⁾

의령남씨 일가의 학맥은 가학으로는 화담학통이면서 퇴계학통의 영향을 받아 성호학풍 형성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 정치적 성향은 남이옹 남이공, 남두화의 북인(北人), 소북(小北), 청소북(淸小北)을 거쳐 남하정의 조부 남중유대에 와서 남인으로 합류하였고, 남중유와 남수교의 동천장으로 낙향하고, 남하정의 산림처사의 생활은 서인과 정국 주도권을 놓고 각축을 벌였던 남인의 청남파, 문외파로 정치적 행보를 주도하며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실학자 남하정 삶은 대다수가 근기남인 내 주요 가문의 구성원이었던 경기도 안산지역과 광주지역의 실학자 주요 가문의 구성원이었던 실학의 선구자 이익이 대표적으로 거론되며, 순암 안정복, 박사정, 황덕길 등과 남인가문과의 정치적 성향과 학맥관계를 유지하며, 특히 남인의 학통을 잇는 인물들이었음을 밝혀 보았다.

남하정은 <동소만록> 근기(近畿) 남인(南人)을 대표하는 당론서이며, <사대춘추>를 통해 남하정의 관맹상제론(寬猛相濟論)⁸¹⁾을 주창하였다. 그는 중앙집권체제를 지향하고 국왕의 인사권을 중시하여 중요한 기호남인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성호 학맥으로 평가되는 이익(李瀾), 안정복(安鼎福), 황덕길(黃德吉)이 남하정을 위해 묘갈명을 쓰고 있고, 남하정의 저술<사대춘추>, <동소만록> 외에 시문집 <동소유고>등에 서문, 발문, 참여하고 있어, 성호학맥에서의 위상을 엿볼 수 있었다.

80) 안정복, <순암선생문집>권21, 墓碣, 成均進士桐巢南公墓碣銘 并序. “按狀, 公諱夏正, 字時伯, 宜寧人. 南氏興于麗代, 入我朝, 有上相忠景公諱在, 左相忠簡公諱智, 勳業德望著國乘. 四世至諱應雲, 吏曹參判, 號菊窓, 有文武全才, 於公爲六世祖. 曾祖諱斗華監察, 贈左承旨, 祖諱重維, 有士林重望, 大興郡守. 考諱壽喬, 成均生員.”

81) 관맹상제: 기원전 522년인 '좌전' '소공(昭公)' 20년조에 나는데 “너그러움과 엄격함의 조화를 이룬다.” 는 뜻으로 이상적인 정치세계를 위한 통치자들의 덕목을 말한다.

따라서 평택의 진위를 기반으로 조선 후기에 성호학파의 형성되기 이전부터 근기 남인의 지식인들의 중심이며, 이른바 경세치용(經世致用)과 사학에 대하여 강론하여 조선 후기 근기남인에 의해 실학이 형성되고 실학을 확산시키는 영향을 크게 준 중심지역이었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국조방목》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규장각도서해제》 사부 1, 1994.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료총서》 제20집 [輿地圖書 下]

이익,《성호선생전집》

이민구,《동주집》

안정복, 〈순암집〉《순암선생문집》

황덕길,〈하려집〉《하려선생문집》

최실광,《한국족보대전》 도서출판 청화, 1989

성남문화원,《성남인물지(광복 전 편) 》,한누리미디어, 2010

광주시사편찬위원회,《광주시사 2》, 홍익기획·홍익문화, 2010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일기로 본 조선》(규장각연구총서8)

(주)책향아리, 2013

김묘정, 〈설사(雪蓑) 남이공(南以恭)의 교유시 연구〉,《한국학논집 제83집》
2021.

정인재,〈실심실학연구 서설 [1]〉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신학과철학》,
2009

원재린,〈조선후기 남인 당론서 편찬의 제 특징〉 - 《동소만록(桐巢漫錄)》과
〈조야신필(朝野信筆)〉을 중심으로 -, 《한국사상사학 53》, 한국사상사학
회, 2016

신병주, 김신국, 남이공, 김세렴을 중심으로-, 한국역사연구회, 1992신병주, <17세기 정국의 전개와 趙綱의 정치적 활동>, 《17세기 전반 북인관료의 사상》 조선시대사학회, 2017

박혜민, 《사대춘추(四代春秋)》의 창작방법과 정치적 우의, 고려대학교, 2018

평택농악 복식의 구성과 특징

임정미/중앙대학교 외래교수

차 례

- I. 머리말
- II. 농악의 이해
- III. 평택농악 복식 구성과 특징
- IV. 맺음말

I. 머리말

평택은 넓은 소갯들을 끼고 있어 역사적으로 평택농악을 이루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평택농악은 평택의 지형적 특징에 따라 오랜 곡창지대로의 역할과 안성 청룡사 사당패의 영향으로 두레농악과 걸립패농악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소박한 전통과 전문연희집단의 공연성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는 수준 높은 농악이다. 이에 농악 복식을 연구 하고자 한다.

복식은 착용자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그 근본적인 가치이다. 이는 공연복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은데, 공연자가 담당하는 배역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복식을 통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공연복은 매우 중요하다 할수 있다. 이에 농악복식은 관람하는 대상자로 하여금, 농악의 여러 가지 숨은 의미 예를 들면, 문화적 배경, 역사적 배경, 연희의 기원, 기술의 발달 등 다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국가 무형문화재 제11-2호, UNESCO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된 평택농악은 평택의 역사적, 문화적 발전의 흔적을 간직한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이에 평택농악에 착용되는 복식에 대한 기록과 정리를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미래에 전승되고 동시에 문화콘텐츠로서 개발되어야 하는 문화 원형을 고찰 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85년 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현재까지의 평택농악 복식을 연구 범위로 하며, 문헌연구, 현장조사 및 인터뷰 등의 질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평택 농악에 관한 자료는 문헌연구와 평택농악보존회를 직접 방문하여, 전승교육사 조한숙박사와 면담을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2023년 11월 11일 평택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된 “18th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축제”에서 직접 사진 촬영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학연구의 관점에서 평택 농악복식의 보존과 기록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 문화콘텐츠 개발의 시발점으로 원형에 대한 기록과 보존

을 우선시 하며, 이 연구가 추후 콘텐츠를 개발에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복식사적 기대효과로는 한국 전통복의 원형이 현대 농악에 활용되고 전승되는 사례연구를 통해, 전통적인 요소가 그 의미를 올바르게 전승을 하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II. 농악의 이해

1. 농악의 이해

농악의 기원은 고대의 제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¹⁾ 그 의식을 통해 발전된 농악은 농사기원, 군악적 승전굿, 불교발원설로 나눌 수 있다.

오랜 시간동안 농악은 우리의 삶속에 함께해 왔으며, 시대에 따라 변천, 발달되었다. 소박한 형태의 기원농악, 농사의 작업 능률을 올리기 위한 두레 농악, 마을의 공공 기금이나, 사찰의 징수금을 위해 쌀과 돈을 걷는 걸립농악, 전문예인집단으로 구성된 연예 농악 등으로 변천하며 발달하였다.

서옥규²⁾의 연구에서 정리된 농악의 시대적 변천을 살펴보면, 농악은 상고시대,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시대 의종은 팔관회때 농악경연대회를 열었다고 하며, 이 시기 서민문화가 발전되면서 사당패와 같은 전문적 민중예술 집단의 곡예나 놀이가 농악에 영향을 주게 되었으며, 조선초에는 농본사상(農本思想)으로 농악이 장려된 바 있으나, 점차 유교사상에 의해 풍물굿은 배척하게 되었고, 조선말 민란이 잦아지면서 상부층은 농민을 단결시키는 농악을 경계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직업적 사당패들에 의해 걸립형태로 발전되어 복식에 있어 화려함이 더해진 것이 아닌가 유추해 볼 수 있

1) 송석하, 《한국민속고》, 일신사, 1960, p.321

2) 서옥규, 《농악복식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Vol.12, 1988, p.10

다. 일제시대에 들어서면, 민족문화말살정책의 일환으로 민족공동체 놀이를 없애려는 일본에 의해 농악은 소멸되었고, 6.25 동란 이후에도 서구문화의 영향으로 사회적 관심이 없어진데다가, 1970년 이후 미신회피로 농악은 점차 소멸되었다. 1980년도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통문화보호에 대한 관심으로 농악경연대회를 열어 농악을 연중 행사화 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의 농악은 다른 분야의 전통문화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를 열광시키는 K-Culture의 살아있는 원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전승 및 보존되고 있으며, 교육 콘텐츠, 공연 콘텐츠 개발 등의 방식으로 발전되고 있다.

농악의 연희 시기로는 대체로 정월대보름, 5월 파종(播種), 6월 제초(除草), 7월 백중(百中), 8월 추석(秋夕) 등에 정기적으로 행해졌으며, 농악을 치는 장소는 주로 마을 당산(堂山)의 주변이나, 들판, 전쟁터, 집마당, 공동우물터 등 어디에서나 행해졌다.³⁾ 농악의 기본 악기는 사물, 즉 쥘과리, 징, 장고, 북이며, 이외에 소고로 구성되어져 있다. 농악의 무는 사물을 갖춘 개인이나 단체놀이로 진행되나, 그 외에 무동놀이, 잡색들의 극놀이, 열두발 상모놀이 등이 있으며, 이들은 악기를 갖추지 않고 놀이만 한다.⁴⁾

2. 옷다리 농악의 변천과 특징

한국 농악은 크게 중부 이북의 경기 충청지역에서 행해지는 옷다리 농악과 중부 이남에서 행해지는 아랫다리 농악으로 나눌 수 있다.

경기 충청 옷다리 농악은 경기, 충청, 강원도 영서지방을 포함하여 분포 지역은 평택, 안성, 제천, 대전, 양주, 원주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안성 청룡사는 옛날부터 직업성을 띤 남사당의 중심지로, 특히 이 지역 농악은 전문적인 남사당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다. 그리하여 여러 아이들로 짜

3) 정병호, 《농악》, 열화당, 1986, p.130

4) 서옥규, p.10-11

여진 무동놀이와 깨끼춤, 쾌자춤이 돋보이며 동고리, 삼무동, 칠무동 등의 다양한 무동타기가 발달하였다.⁵⁾ 평택, 천안 등지에서는 마을에서 연행되는 마을굿 연희자가 남사당에 합류하여 전문예인집단으로 활동하기도 하면서, 농악의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 지역 농악의 특징은 소고와 법고의 구별이 없고, 다른 지역에 비해 북을 적게 쓴다는 것이다. 느린 가락과 빠른 가락을 고르게 쓰는 쇠가락이 분명하고 판굿의 짜임새가 다양하다.⁶⁾

III. 평택농악 복식 구성과 특징

1. 평택농악 복식의 기원

평택은 평야지대라는 지역적 특색을 기반으로 농민문화를 형성하였으며, 관내에서 전승되어 오던 마을 두레 농악과 경기, 충청 지역을 넘나드는 전문 연희패들의 연희굿 형태가 어우러져 나타나는 특색을 보여준다. 마을 농악인 두레패적성격의 굿 형태는 당산제, 지신밟기, 두레풍물, 마을의 경사 때 하는 농악 등 여러 가지 굿 형태와 농악을 가지고 있고, 전문예인집단 연희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굿의 형태에 난걸립은 두레난장굿과 파일난장굿이 있고, 걸립굿에는 춘걸립, 절걸립 등이 있다.⁷⁾

평택농악은 평택 출신으로 농사를 가업으로 하던 집안의 최은창 명인에 의해서 가능하였다. 최은창과 이돌천의 노력으로 웃다리 농악의 가락과 판

5) 《(우리의 멋과 신명을 찾는) 민속 교육 자료집》, 봉천놀이마당, 우리교육, 1996, p.16

6) 추은희, 《한국 농악복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p.17

7) 조한숙, 《평택농악의 연희학적 연구》, 원광대학교 국악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p.88

제를 인정받으면서 1958년 이승만 대통령 탄생기념 농악대회에서 우승하며, 국가 무형문화재 제11-2호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평택농악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형성과정을 보면 첫째, 최은창의 고향인 평택시 평궁리에서 전승되어 오던 마을농악인 두레패 성격의 농악과 둘째, 최은창과 이돌천이 전국 넓은 지역을 유랑하면서 활동하던 걸립패, 연희패 성격의 전문예인집단의 농악이다. 이처럼 두 가지를 결합하여 웃다리 지역을 포괄하는 대표적 농악의 뿌리와 대동적 신명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복식에 있어서도 마을굿 연행시의 기본복 형태와 연희굿 연행시의 단복이 보여지며, 전국을 유랑하며 타지역의 풍습을 흡수하여 호남지역에서 유래되었다는 전립등의 착용으로 일상복과 공연복의 요소가 결합된 다채로운 복식을 보여주고 있다.

2. 평택농악 복식의 구성

1)기본복식

평택농악복식의 배역에 따른 복식의 구성은 <표1>에서는 복종(服種)을 제시하였고, <표2>에서는 사진자료를 제시하였다.

<표 1> 평택 농악 복식의 구성

평택농악 복식 구성								
분류	역할		두식(頭式)	복식(服飾)		대(帶)	신발(靴)	악기/기타
				내의(內衣)	외의(外衣)			
기수	단기수	1	흑색두건 백색꽃두건	백색바지, 저고리	남색조끼	삼색띠 (남색,홍색,황색)	짚신 슈즈	단기
	농기수	1	흑색두건 백색꽃두건	백색바지, 저고리	남색조끼	삼색띠	짚신 슈즈	농기

평택농악 복식 구성								
분류	역할		두식(頭式)	복식(服飾)		대(帶)	신발(靴)	악기/기타
				내의(內衣)	외의(外衣)			
기수	낭기수	1	흑색두건 백색꽃두건	백색바지, 저고리	남색조끼	삼색띠	짚신 슈즈	낭기
	영기수	2	흑색두건 백색꽃두건	백색바지, 저고리	남색조끼	삼색띠	짚신 슈즈	무동
호적수	호적수 (태평소)	1	흑색두건 백색꽃두건	백색바지, 저고리	남색조끼	삼색띠	짚신 슈즈	태평소
앞치배	상쇠 부쇠 (쇠잡이)	2	흑색두건 백색꽃두건 종이부포상 모전립,	백색바지, 저고리	남색조끼	삼색띠	짚신 슈즈	꽁과리, 술달린 꽁 과리채
	징수	1	흑색두건 백색꽃두건 종이부포상 모전립,	백색바지, 저고리	남색조끼	삼색띠	짚신 슈즈	징, 징채
	장고수	3	흑색두건 백색꽃두건 종이부포상 모전립,	백색바지, 저고리	남색조끼	삼색띠	짚신 슈즈	장고, 궁채, 열채, 장고맬끈
	북수	2	흑색두건 백색꽃두건 종이부포상 모전립,	백색바지, 저고리	남색조끼	삼색띠	짚신 슈즈	북, 북채, 북맬끈
뒤치배	법고수	8	흑색두건 백색꽃두건 종이부포상 모전립,	백색바지, 저고리	남색조끼	삼색띠	짚신 슈즈	소고
무동	무동	6	노랑수건, 금 박댕기	백색바지, 저고리,	남색 쾌자 (금박)	삼색띠	짚신 슈즈	
	사미	2	흰고깔 (꽃없음)	백색바지	흰색장삼 (자락을 뒤 로 묶음)	빨강띠	짚신 슈즈	무릎 뭍음
잡색	양반	1	정자관 망건, 상투	5색동 노랑저고 리, 금박홍 치마	옥색도포	옥색술띠	짚신 슈즈	흰수염

〈표 2〉 평택 농악 복식의 구성 - 사진자료

평택농악 복식 구성			
기 수	단기수	1	 
	농기수	1	
	낭기수	1	
	영기수	2	
호 적	호적수 (태평소)	1	   
앞 치 배	상쇠 부쇠	2	
	징수	1	
	장고수	3	
	북수	2	
뒤 치 배	법고수	8	
잡 색	양반	1	 

평택농악 복식 구성			
애 무	사미	2	
사 미	무동	6	

고유복식의 기본형태인 바지와 저고리로 구성되어져 있으나 바탕 옷은 사실 특별히 정해진 복장 없이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대체로 아래 위 백색 바지 저고리를 입었다⁸⁾ 연희적 요소로 조끼, 전립, 쾌자, 두건등을 착용한다. 평택 농악의 복식 구성을 배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8) 조한숙. p.89

(1) 기수

모든 농악에서 등장하는 도구로는 기를 들 수 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내려쓴 문구가 담긴 기를 든 농기수와 평택농악단을 상징하는 단기를 드는 단기수의 복식은 머리에 흑색 두건을 둘러 뒤쪽으로 늘어뜨리고, 그 위에 백색 꽃두건을 둘러맨다. 폴리에스테르 소재의 백색 바지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남색 조끼를 입는다. 상체 쪽에 적,황,청색의 삼색띠를 두르는데, 그 방법은 황색띠를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으로 내려 허리가운데서 매듭을 짓고, 길게 허리뒤로 늘어뜨린다. 그 위에 홍색띠를 같은 방식으로 늘어뜨리고, 청색띠는 허리에 둘러 황, 적색과 같이 허리 뒤쪽에서 매듭지어 풍성하게 내려뜨린다. 청색띠는 서양복 바지 위에 착용하는 복대처럼 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뽕뽕한 종이심을 넣고 띠가 좁아지지 않도록 하기도 한다. 단기수, 농기수의 복식은 같은 형태이다.

영기는 군중에서 군령을 전하던 군인이 들고 가던 군기이다. 농악의 군악적 전통을 보여주는 ‘영(令)’자가 쓰여진 영기를 가지고 행진하거나 공연하는 사람을 영기수라고 한다. 영기는 농기를 호위하거나 걸립굿패의 신호기 역할을 한다. 무동 2명이 각각 홍영기와 청영기를 든다. 영기수는 평택농악에서는 무동 2명이 담당한다. 무동의 복식과 같음으로 뒤에 설명한다.

(2) 호적수

깃발의 뒤를 이어 등장하는 호적수는 태평소를 연주하는데, 쇠납수, 호적수라고 불리우며, 평택농악에서는 기수와 같은 복식을 착용한다.

(3) 앞치배

앞치배는 쟁과리를 들고 쇠를 치며 농악대를 이끄는 상쇠1명, 부상쇠1명, 징쇠1명, 장고수3명, 북수2명 총 8명으로 이루어진다. 상쇠는 머리에 종이

부포⁹⁾가 달린 달린 흑색의 전립¹⁰⁾을 쓴다. 백색 바지 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남색 조끼를 입는다. 전립을 쓰는 방법으로는 머리에 흑색 두건을 두르고, 그 위에 백색 꽃이 달린 두건을 다시 두른다. 꽃두건과 전립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모가 고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위에 전립을 쓰고 끈을 이마와 턱쪽에서 조여 묶는다. 상쇠는 손에 꿩과리와 삼색술을 땅아 만든 술이 달린 꿩과리채를 든다. 징쇠, 장고수, 북수는 상쇠와 같은 복장을 하지만, 상쇠와 달리 나비상이 달린 전립을 쓴다. 나머지 복장은 기수와 같다.

(4) 뒤치배

뒤치배는 법고수 8명으로 소고를 들고 등장하는데 법고, 법구, 벽구라고도 불리운다. 복장은 백색 바지저고리에 남색 조끼를 입어 앞치배와 같으나, 머리에 상모지가 달린 전립을 쓴다.

전립의 형태를 살펴보면, 립의 모옥에 징자와 적자¹¹⁾를 달고 그 밑에 물채를 연결한다. 물채 끝에 한지로 만든 네 가닥 띠를 매다는데, 이것을 나비

9) 부포 : 본래 전라도 지역에서 나온 것으로 옷다리 지역에서는 쓰지 않았는데 1940-50년대 옷다리 지역에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 평택농악, 국립문화재연구소, 1996, p.50

10) 전립 : 구군복의 한 요소인 전립(戰笠)은 모립(毛笠)이라고도 하였으며, 한자를 달리하는 전립(戰笠)과 동일한 명칭이다. 전(戰)이란 짐승의 털을 다져서 두껍게 만든 무늬 없는 소재를 말하는데, 한자어의 전립(戰笠)은 소재의 특성에 따라 지칭한 것이다. 한자가 다른 명칭인 전립(戰笠)은 조선 후기 무관이 전쟁 시 구군복을 주로 착용했기 때문에 생겼다. 고급 무관이 쓰던 화려한 전립을 ‘안을 립병거지’라고 했다. 반면 품질이 낮은 돈모(豚毛)로 만들고 장식이 없는 전립은 직급이 낮은 병졸이 착용하였으며 이를 ‘병거지’ 혹은 ‘병테기’라고 불렀다. 전립의 모옥 꼭대기에는 장식품인 정자[頂子·鎗子]를 달고 공작 꼬리나 붉은 털 장식인 상모를 달았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전통무용 중 검기무의 복식과 농악대의 상모놀이 복식에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

11) 징자와 적자는 정자(頂子·鎗子)를 의미함. 전립(戰笠) 따위의 위에 꼭지처럼 만들어 달던 꾸밈새. 품계(品階)에 따라 금(金)·은(銀)·옥(玉)·석(石) 따위의 구별(區別)이 있었다. 정자, 징자(頂子·鎗子)로도 불린다. - 국립국어원-

상이라고 하며, 재료로 옛날에는 돼지털을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소털이나 종이를 사용한다.¹²⁾

(5) 무동

무동은 사미 2명, 무동 6명인데 사미는 어린 중을 가리킨다. 사미는 머리에는 흰색 고깔을 쓰는데, 꽃이 달리지 않고, 스님의 고깔처럼 뒷면을 접어 올리지 않는다. 백색 바지 저고리에 흰색 장삼을 입고, 홍색 띠를 두르고, 연희 시 무동을 탈 때는 장삼 자락을 뒤로 묶고, 무릎에 맨 끈을 사용한다.

무동은 흰색 속바지를 입고 노랑 저고리와 빨강 치마를 입는다. 노랑색 저고리는 깃, 고름, 끝동을 치마와 같은 빨강색으로 하고, 소매에 오색동을 대었다. 빨강색 치마에는 아래쪽에 봉황 금박을 찍은 소란치마 형태이다. 치마저고리 위에 금박이 찍힌 남색 쾌자를 입는다. 삼색띠는 가사라고도 하는데 노랑색 띠는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허리로, 빨강색 띠는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허리로 오게 X자로 메고, 허리에 청색 띠를 둘러맨다. 머리에는 금박물린 빨강색 땡기를 매는데 땡기 위쪽 두상에는 노란 머릿수건을 둘러메고 단단히 고정한다.¹³⁾

(6) 잡색

잡색은 양반 1명으로 양반은 상투를 머리위에 덮어쓰고, 망건을 두른 후 정자관을 쓴다. 백색 바지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합성섬유로 지은 옥색 도포를 입고 허리에 옥색 술띠를 메었다. 짚신जू즈를 신고, 흰 수염을 하였다. 기수, 호적수, 앞치배, 뒤치배 모두 신발은 짚신대신에 짚신슈즈라고 불리우는 무용용 백색 가죽신을 신는다.

12) 추은희, p.62

13) 조한숙, P.90

2)연희 종류에 따른 복식구성

(1) 두레농악 굿의 복식

가. 지신밟기

지신밟기는 중국과 한국에서 정초에 풍물패가 가가호호를 방문해 잡귀를 쫓아내고 복을 빌어주는 민속으로서, 매구 또는 매귀(埋鬼)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풍물을 치는 것을 매구 친다고도 부르는 것이다.¹⁴⁾ 마을 전체에 마을의 안녕을 빌고 마을 공동 제의나 행사에 사용할 공동의 기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텅더궁이(삼채)가락을 치며, 맨 앞에 청·홍기의 영기를 무동 2명이 잡고, 그 뒤로 농기, 호적, 상쇠, 부쇠, 징, 장고, 북, 범고가 이어지며 무동과 양반이 그 뒤를 따른다.¹⁵⁾ 지신밟기는 과거에는 각 마을에서 진행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평택농악의 기본 복식에서, 단복의 역할을 하는 남색조끼는 제외하기도 하였으나, 현대에 평택농악단에서는 모두 갖추어 입는 것 같다. 또한 무동, 잡색까지 전 배역이 연희를 벌임으로 기본 복이 모두 입혀진다고 볼 수 있다.

나. 두레굿

농번기에 농촌에서 공동으로 작업하기 위해 마을 단위로 구성된 남자들의 협동조직이 두레이다. 마을의 공동작업장인 두레에서 작업능률의 제고를 위해서 연주하는 농악을 두레굿이라 한다. 두레패들이 논이나 밭으로 작업하러 나갈 때, 어느 논에서 다른 논으로 이동할 때, 논이나 밭에서 일할 때, 그리고 밭이나 논에서 작업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 올 때 두레굿을 연주한다.¹⁶⁾

두레굿패의 편성은 기본적으로 지신밟기와 같으나 두레굿은 농사일을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 인원구성이 달랐으며, 특히 무동이나

14) 전경옥, <한국전통연희사전>, 민속원, 2014

15) 조한숙, p. 88

16) 두레굿, 네이버지식백과, 한겨레음악대사전, 2012. 11. 2.

양반 등의 잡색은 편성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두레패는 곳을 하다가 눈에 도착하여 일이 시작되면 악기를 벗어 놓고 모두 같이 농사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복색도 다양하였는데, 저마다 잠뱅이에 베등거리 같이 농사일에 편한 옷을 입고, 그 위에 삼색띠를 두르고 상모를 썼다.¹⁷⁾

(2) 전문 연희집단의 걸립농악 복식

가. 난장굿

난장이란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 외에 임시로 특별히 열리는 장을 의미한다. 평택농악에서 난장굿은 두레난장굿과 파일난장굿이 있다.¹⁸⁾

전문 연희패들의 복색은 마을 단위로 진행되는 두레패들과는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추정되는데, 우선 전문 연희패는 다른 지역을 다니며 연회를 했음으로 단원임을 나타내는 단복이 필요했고, 또 하나는 시기적으로 늦게까지 남아있었고 넓은 지역을 유랑하면서 남쪽 지방의 복색을 일부 도용했기 때문이다.¹⁹⁾ 평택농악은 단복의 의미로 백색 바지저고리 위에 파란색의 조끼를 착용한다.

나. 걸립굿

걸립굿은 촌걸립과 절걸립이 있다.

촌걸립은 마을이나 단체에서 공공건물을 짓고자 할 때 비용 마련을 위해 전문 연희단체에 의뢰해서 행하는 걸립이다. 촌걸립의 편성은 난장굿패와 거의 같으나 낭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영기도 있어야 하고, 고사꾼이 두명 이상 필요하고, 굿화주와 식화주, 탁자, 총무 등이 있어야 한다.

고사꾼과 화주, 총무는 농악단의 지배가 겸하기 때문에, 복색에서 특별한

17) 조한숙, p.91

18) 조한숙, p.92

19) 조한숙, p.92

것은 없지만 단원의 식사를 책임지는 식화주, 마을에 걸립패가 들어갈 때 집집마다 다니면서 고사를 붙여주는 굿화주, 재물을 지고 다니는 탁주, 농악단을 통솔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총무는 평상복을 착용한다.

절걸립은 절에서 건물을 증, 개축 할 때나 절 살림의 비용 마련을 위해 전문 연희패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축원과 염불을 해주고 재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절걸립은 연희보다는 고사를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 구성이 7-8명 정도로 아주 간단하다. 쇠1명, 장고1명, 징1명, 북1명, 범고2명은 기본복을 착용하였고, 중 복장을 한 화주, 걸립재물을 지고 다니는 사람인 탁주는 평상복을 착용하였다.

(3) 평택농악 복식의 특징 및 차이점

평택 농악 복식은 고유복식의 기본형인 바지, 저고리를 기본으로 한다. 바지저고리는 민복(民服)으로 칭해지며, 전국 농악에서 공통적으로 착용된다. 하지만 지역마다 덧옷이나, 쓰개, 장신구 등에서 차별성을 가지며, 각 지역 농악의 특징을 표현하고 있다.

머리 쓰개의 경우, 우도농악의 연주자들은 대부분 고깔을 쓰지만 웃다리 농악의 악기연주자들은 대부분 전립을 쓴다. 평택 농악의 경우 악기 연주자 전원이 전립을 쓰며, 전립에 달린 상모의 형태에도 지역별 차이가 있는데, 쇠잡이 전립에는 부포상모를 달고, 징, 장구, 북을 치는 연주자들의 전립에는 나비상모를 단다.²⁰⁾ 사미는 흰 고깔을 쓰는데, 다른 지역과 달리 종이 꽃을 달지 않으며, 불교에서 승려가 착용하는 고깔과도 다르게 뒷 부분이 접혀 올라가지 않은 형태이다.

덧옷의 경우, 웃다리 농악의 경우 더그레를 입지 않고 조끼만 입는다. 다른 지역의 경우 쇠잡이는 대체로 더그레를 입지만 나머지 악기 연주자들

20) 추은희, <농악의 일반적인 복식과 금산 농악의 복식>, 동양음악 제35집, p.230

은 더그레나 조끼를 입는다. 평택농악에서도 남색 원단에 단추가 5개 달리며, 가슴에 윗주머니와 허리 위쪽으로 두 개의 주머니가 있는 조끼를 착용한다. 조끼는 전통복식의 개념보다는 갑오개혁 이후에 양복이 들어오면서부터 남자들은 전통 배자 대신 조끼를 입게 되었다.²¹⁾ 한복에는 원래 주머니가 없는데, 단추와 포켓이 달린 서양의 베스트를 한복에도 도입하여 조끼를 만들어 입게 된 것이다. 추은희 이러한 서양의 베스트는 전통 배자로부터 변천되어 온 것으로 본다²²⁾고 밝히고 있다. 옷다리 농악에서는 이러한 서양복 베스트 형태의 조끼가 입혀진다. 조한숙의 연구에서 옷다리란 용어의 기원으로 1920년대 문화말살 정책으로 농악패가 소멸되던 시절, 청양까지넷가를 중심으로 행중이 둘로 나뉘게 되어 충남이북의 일행은 옷다리 농악으로, 호남지역은 아랫다리농악이란 말을 쓰게 된 것이다²³⁾라고 설명하고 있다. 평택은, 1905년 철도와 함께 일본문물, 미군주둔지로 외국 문물이 빠르게 도입되고 전파되었던 영향으로 전통형태의 더그레보다는 조끼로 단복을 선택 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무동의 치마 저고리의 경우, 옷다리 농악 중 천안 방축골 농악과 비교해볼 때, 천안지역은 치마색과 동색인 빨강색 깃, 끝동, 고름이 달린 노랑저고리에 빨강치마 형태이며, 평택농악은 빨간색 깃, 고름, 끝동을 댄 노랑저고리에, 봉황문 금박을 입힌 홍색의 소란치마를²⁴⁾ 착용한다.

평택농악에는 두레농악과 전문연희패의 성격을 지닌 복식의 특징으로 타 지역의 풍속을 흡수한 다채로운 복종이 보여 지고, 다수의 국·내외 공연 등을

21) 추은희, p.32

22) 추은희, p.33

23) 조한숙, p.6

24) 소란치마 : 치마의 아랫단에 25cm 너비의 금박 문양을 댄 것, 요즘은 치마의 아랫단에 30cm 너비의 금박 문양 한 단만 대어서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금박 문양으로는 용문, 수복화문, 봉황문이 있다. 구혜자, <구혜자의 침선노트 I>, 서울:문보재, 2022, 2, p.85,

고려하여, 화려함을 추구하는 금박, 문양, 보색배색 등의 특징이 보여 진다.

4. 현대적 변용에 대한 제언

평택농악보존회의 유성열 회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평택 농악의 원형 보존과 재현을 통해 평택 농악의 가치를 확립하고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나간다. 지역민을 넘어서 전 국민 전 세계에 평택 농악의 전통성, 예술성을 알리고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승될 수 있도록 평택농악 활동에 최선을 다한다”고 목표를 밝히고 있다. 특히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평택농악은 전통성을 전승하는 데에 명확한 목적이 있다.

하지만 문화의 전승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하는 것이며 현대의 물질과 자원의 사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국 복식을 전공한 연구자로서, 전통의 전승이라는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통성, 현시대성, 기능성, 심미성에 적절한 복식의 형태를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소재의 변화

평택농악의 복식은 폴리에스테르나 나일론인 합성섬유로 제작되어져 있다. 폴리에스테르는 내구성과 강신도, 형태회복성이 좋고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해 실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섬유이기는 하다. 하지만 흡수성이 아주 낮아 0.4-0.8%의 수분율이 있고, 흡수성의 부족은 피부접촉 시 쾌적성을 저하시킨다.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직물은 무덥고 습기 찬 날씨나 땀이 날 때 착용하면 매우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습기는 피부와 직물사이에서 쉽게 제거되지 않아 직물은 미끄럽고 축축하게 느껴진다.²⁵⁾ 또한 촉감이 차가워 추운 날씨에서는 더욱 차갑게 느껴지는 단점이 있다. 또한 폴리에스테르 파이버는 단면이 평평하게 생겨서 한 방향으로의 빛 반사가 이루어짐으

25) Norma Hollen Jane Saddler, Anna L.Langford, Sara J.Kadolph, 차옥선 감수, 신정숙 옮김, <피복재료학>, 경춘사, 2002, p.206

로 번쩍거리는 저렴한 광택을 보여준다.

조한숙의 연구에서 평택농악의 지신밟기나 두레굿은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로 일상복을 입고 그 위에 삼색 가사를 둘렀다는 기록이 있다. 그 잠뱅이나 베등거리는 우리 전통의 면이나 마섬유로 만들어져 있었다.

면섬유는 “일단 면에 대한 느낌을 알면 다른 어떤 직물도 찾지 않을 것이다” 이는 1982년 겨울 American Fabrics and Fashion이 면 판촉에 사용한 말이다. 면은 쾌적한 섬유로 일년내내 사용하기에 알맞고 따뜻한 날씨 특히 덥고 습기찬 곳에서 가장 선호하는 의복이다.²⁶⁾ 무엇보다 흡습성이 좋아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고, 광택이 자연스럽고 드레이프성이 좋아 면으로 만든 옷을 착용 하였을 때의 외관이 훌륭하다. 또한 원단의 감촉이 기분 좋은 거칠음을 지니고 있어, 폴리에스테르처럼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다.

과거에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복식재료로서의 요소였고, 또한 1960년대 이후 도입되기 시작한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테르가 신소재로 사랑받던 시기도 존재했음으로, 현대의 평택 농악단의 복식도 그 자체로 매우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현대에는 평택농악단의 복식에 있어 농악 연희자의 건강, 위생, 쾌적함, 나아가 합성섬유의 소비를 줄이려는 환경에 대한 문제까지도 고려되어야 할 점으로 보여진다. 무엇보다 심미적으로 저렴한 광택을 보여주는 폴리에스테르보다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느낌과 실내외에서 모두 안정적인 발색을 보여주고, 피복성도 좋은 면, 마, 견 등 전통천연섬유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26) Norma Hollen Jane Saddler, Anna L.Langford, Sara J.Kadolph, p.60

2) 조끼의 변화

평택농악은 단복의 의미로 백색 바지저고리 위에 파란색의 조끼를 착용한다. 조끼는 전통복식의 개념보다는 갑오개혁 이후에 양복이 들어오면서부터 남자들은 전통 배자 대신 조끼를 입게 되었다.²⁷⁾ 한복에는 원래 주머니가 없는데, 단추와 포켓이 달린 서양의 베스트를 한복에도 도입하여 조끼를 만들어 입게 된 것이다. 추은희는 연구에서 이러한 서양의 베스트가 농악복식에 적용되었다고 하였는데, 평택농악에서 조끼의 형태가 보여진다. 평택은 1905년 철도와 함께 일본문물, 미군주둔지로 외부문물이 빠르게 도입되어 나름의 독특한 복식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전통형태의 더그레보다는 조끼로 도입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서양식 조끼 단복이 연희에서 동작의 용이성, 무동을 태우거나 특수한 동작을 할 때 간단하고 기능적으로 활용 될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심미적으로 아름다우면서도 전통미를 알릴 수 있으며 현재 조끼 형태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형태로 변화 할 수 있다면 소매 없는 교임형의 한국 전통 배자로의 변형도 제안해 본다.

3) 문양과 색의 적절한 활용

평택농악 복식에서 같은 원류인 천안봉축골농악의 복식과 비교해 보면, 무동의 치마 저고리에서 천안은 노랑 저고리와 빨강치마를 입고, 평택은 오색동 노랑 저고리와, 봉황금박이 찍힌 빨강색 소란치마를 입는 차이점이 있다. 평택농악은 무동으로 실제 어린이들이 출연하기 때문에 귀여운 느낌을 주고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해 오색동과 금박을 사용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어린이 옷의 소매에 색동을 장식하는 전통은 채도가 대비적인 색상들이 한데 모여 다채로우면서도 화려하고 경쾌하며 생동감 넘치는 이미지

27) 추은희, p.32

를 부여하고, 음양오행을 기반으로 한 오방색과 오간색의 색채 배열로 한 국적인 고유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특히 색동이 들어간 한복은 경사스럽고 즐거운 날, 건강과 안녕을 빌며 복을 기원하는 날에 어린이에게 입혔다.²⁸⁾ 무형문화재 구혜자 침선장의 책에는 조선시대 후기 민가의 복식을 기반으로 전승 될 복종의 구성방법이 실려 있는데 그중 삼색동 저고리가 실려 있다. 오색동이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다면 가능한 전통적인 형태로 색을 제한하여 전통미를 살리는 것이 의미 있겠다.

무동의 빨강색 치마에는 봉황문의 금박이 찍혀있는데 이 또한 화려한 장식의 목적으로 추측된다. 봉황문이 찍힌 금박 스란치마는 본래 조선시대 궁중에서 왕비나 공주의 대례복의 치마로 허용되는 것이었으나 일반인에게는 결혼식에 입는 원삼과 활옷의 받침으로 허락되기도 하였다. 봉황문 금박은 결혼할 여자에게 허락된 문양임으로, 평택농악 무동이 특별히 왕비나 공주 비빈, 혹은 결혼한 유부녀의 지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무동 즉 어린아이의 의미를 둔다면 조선시대 어린이 옷 등에 주로 사용되었던 수복(壽福)문양의 금박을 찍을 것을 제안 한다.

4) 한국의 전통미와 현대적인 디자인 요소 적용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산업 디자이너 디터람스(Dieter Rams) 현대의 디자인 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시대를 앞서간 디자인으로 유명한데 그가 1960~70년대에 디자인한 제품들도 2010년대 제품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한다. 그는 "최소한, 그러나 더 나은 (less, but better)" 라는 디자인계의 금과 옥조 같은 멋진 말을 남겼는데, "멋은 안으로 내라"라고 한국의 복식미를 알리셨던 구혜자 침선장 선생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한국의 전통미는 절제와 은유가 중요한 요

28) 김아진·김은정, <전통 색동한복을 활용한 유아복 개발>, 한국동양예술학회, 동양예술 제58호, p.322

소이다. 평택농악의 복식이 천연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전통적이면서도 기능적이고 위생적이며 고급스러움을 유지하면서, 장식과 컬러, 문양은 전통을 지켜 품위 있으면서도 공연복으로서의 화려함을 가지고 전승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

IV. 맺음말

전통문화의 전승에 대한 문제는 비단 농악뿐 아니라 거의 모든 전통문화 영역에서의 공통적인 화두이다. 특히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영역은 과거의 전승과 현재세대로의 전파라는 상반된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지님으로 무게감이 더욱 크다. 본 연구가 평택 농악의 전통성, 예술성을 전파하고자 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평택농악복식은 기본복으로 백색바지저고리에 남색조끼를 입고, 기수와 호적수는 백색 꽃두건을 하며, 나머지는 전립을 쓴다. 무동은 화려한 금박이 찍힌 오색동 노랑저고리와 빨강치마에 꿰자를 입는다. 사미는 흰고깔과 흰장삼에 붉은 띠를 두르고, 양반은 옥색 두루마기와 정자관을 쓴다.

20세기 중 후반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문화전반에 걸친 메가트렌드로 전통의 붕괴, 기존 가치의 전복 등의 경향이 전통문화 뿐 아니라 문화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21세기에 들어와 하이브리드(hybrid)트렌드의 영향으로 전통의 원형과 창작의 영역이 융합되어 새로운 콘텐츠 들이 탄생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원형의 보존도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다시금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남원 춘향 영정 복원 사업’에서 춘향의 얼굴이 노안으로 보인다고 논란 이어지는 예에서 볼 수 있듯 전통의 전승이라는 부분은 항상 현재성이 중요하며,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적 미의식이 공존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동

시에 현재적 아름다움이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는 어려운 미션을 수행해야만 한다. 공연복으로서 현실과 다른 판타지, 변형, 왜곡 등의 방식은 포스트모더니즘적 표현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실제로 많은 사극 드라마, 전통극, 전통무용등의 분야에서 고증의 형태와 매우 다른 결과물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평택농악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전통을 전승하는 영역임으로 올바른 전통을 전승하여 그 품위를 유지하고, 세계인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 위생성, 쾌적성, 전통성을 살린 전통천연소재의 사용, 단복조끼의 배자로의 변형, 전통 문양과 금박, 색배합의 적절한 활용, 현대적 디자인 원리에 맞게 간결하면서도 공연복으로의 화려함을 가진 디자인으로의 변화를 제안해 보았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평택농악을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과, 현실적으로는 관련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

전통예술 분야에 대하여 오랜 기간 정부의 많은 노력과 지원이 있어 현재의 훌륭한 하드웨어를 갖추게 되었다면,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 고품격 K-culture와 격이 맞도록 평택농악의 복식이라는 소프트웨어에도 좀 더 관심을 기울일 시점이다.

〈참고문헌〉

송석하, 《한국민속고》, 일신사, 1960.

서옥규, 《농악복식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Vol.12, 1988.

정병호, 《농악》, 열화당, 1986.

《(우리의 멋과 신명을 찾는) 민속 교육 자료집》, 봉천놀이마당, 우리교육, 1996.

추은희, 《한국 농악복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조한숙, 《평택농악의 연희학적 연구》, 원광대학교 국악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전경옥, 《한국전통연희사전》, 민속원, 2014.

추은희, 《농악의 일반적인 복식과 금산 농악의 복식》, 동양음악 제35집.

구혜자, 《구혜자의 침선노트 I》, 서울:문보재, 2022.

Norma Hollen Jane Saddler, Anna L.Langford, Sara J.Kadolph, 차옥선 감수, 신정숙 옮김, 《피복재료학》, 경춘사, 2002.

김아진·김은정, 〈전통 색동한복을 활용한 유아복 개발〉, 《한국동양예술 학회, 동양예술 제58호, 동양예술 제88호》, 2023.

여 백

서정리공립보통학교와 송탄의 근대교육

황수근/평택문화원 학예연구사

차 례

I. 머리말

II. 경부선 서정리역 설치와 서정리공립보통학교 개교

III. 서정리공립보통학교의 변천과 활동

IV. 맺음말

부록

I. 머리말

조선시대 송탄지역¹⁾은 행정적으로 진위현의 속했으며, 지방 공립교육 기관인 진위향교의 교육권에 속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개량서당을 설립해 학동들을 교육했으며, 공립학교로는 1898년에 사립 진위소학교가 설립되었고²⁾, 1899년에 공립으로 전환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지역의 종교단체, 유지, 사회단체 등에서 강습소, 야학, 서당 등 각종 사립 교육기관이 세워져 지역민을 교육하였다. 그리고 일제의 교육정책의 따라 각 읍면에 학교를 1개교씩 설립할 것을 계획했다.³⁾

서정리공립보통학교도 이러한 공립학교 정책에 따라 진위공립보통학교(1898), 평택공립보통학교(1913), 안중공립보통학교(1922)에 이어 진위군에서 네 번째 공립보통학교로 개교하였다. 서정리공립보통학교는 이후 송탄지역의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오늘날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경기도는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인 배경으로 개화기의 ‘변화무쌍’한 현장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그런 만큼 위기의식은 다른 지방 주민들보다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리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경기도의 근대교육에 관한 연구는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990년대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⁴⁾

그 결과 근대 설립되었던 초등학교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진위백년사》(2000), 《청북교육문화사》(2009), 《평택성동초등학교 백년사》(2013) 등이 발간되어 각 학교의 역사와 내력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일부 평택

1) 여기서 송탄지역은 행정구역상 송탄면을 말한다.

2) 《제국신문》 1898년 11월 21일 “경기도 양천군과 진위군에서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학부에 청원하기를 학교 교원과 서책을 내려달라고 하였더라.”

3) 평택시사편찬위원회, 《평택시사》, 평택시사편찬위원회, 2014

4) 서태정, 〈한말·일제강점기 평택지역 근대학교의 설립과 성격〉, 수원대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교육사를 다루고 있다. 또한 《평택향교지》(2006)와 《진위향교지》(2007)에서 전통 교육기관으로써 각 향교의 역사를 다루고 있으며 더불어 평택교육사를 다루고 있다.

시사(시지, 군지 등)에서는 평택의 통사적인 관점에서 교육을 다루었다. 《평택군지》(1984), 《송탄시사》(1994), 《평택시사》(2001)에서는 교육사를 소략히 기술하고 학교 현황 나열하였으나 《평택시사》(2014)에는 시대별 교육제도와 평택의 교육에 관해 기술하며, 특히 근대개화기와 일제강점기 교육기관의 현황에 대해 다루었다.

《평택교육사》(2005)는 경기도평택교육청에서 발간한 단행본으로 평택교육사를 정리하고 현황을 나열하였으며, 이외에도 《평택역사산책》(2013), 《이것이 평택의 토종》(2014), 《평택의 근현대를 걷다》(2015), 《진교일기》(2020) 등과 읍·면지에서 일부 평택의 교육을 다루었다.

하지만 위의 서적은 발간 서적의 특성상 대체로 교육법령의 변천 및 그 내용과 해방 이후의 교육 현황에 치우치고, 특정 주제나 공간제약으로 인해 일정한 한계성을 보인다.

학술논문으로는 서태정의 〈한말·일제강점기 평택지역 근대학교의 설립과 성격〉(2010), 〈대한제국기 평택지역 계몽운동의 전개양상과 성격〉(2012)이 발표되어 평택 근대교육을 정리하였으며, 이는 이후 《평택시사》(2014) 등 평택교육사 정리에 영향을 미쳤다.

현재까지는 송탄지역의 교육과 서정리초등학교만을 다룬 단행본이나 학술논문은 없고, 앞의 단행본과 논문에서 일부 다뤘을 뿐이다. 여기에서는 평택지역⁵⁾의 교육에서 송탄지역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이며, 경부선 서정리역의 설치와 변화를 살핀 뒤 송탄의 근대교육과 서정리공립보통학교 개교를 다루고 학교의 변화 모습과 사회적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5) 행정구역상 현재 평택시

II. 경부선 서정리역 설치와 서정리공립보통학교 개교

1. 경부선 서정리역의 설치와 사회적 변화

조선후기 이래 형성된 전통적인 상품유통은 수운 교통 위주였으나 내륙을 통과하는 철도가 놓이면서 포구 중심의 상품유통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철도는 상업 유통을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도시와 신시가지를 형성하기도 했다. 철도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자 이전에 포구 중심으로 형성된 전통 상권은 쇠퇴하거나 소멸, 또는 지역 내 규모가 축소된 시장으로 변화하는 등 상업중심지 기능을 상실하게 됐다. 경기도 남부지역의 상업중심지였던 안성지역이 쇠퇴했고 철도역이 생기면서 평택은 새로운 유통 중심지로 부상했다. 서정리역은 평택역과 같이 1905년 운영하기 시작했고 1932년 구역사가, 2004년 신역사가 준공됐다. 2005년 1월 20일부터는 전철 1호선이 연장 운행되고 있다.⁶⁾

서정리역 전 시가지는 경부선 철도 개통과 함께 발달했다 역전 주변은 철도역이 설치되기 전까지만 해도 서정천 주변으로 대추동 (대속동), 신촌, 서두물 같은 크고 작은 마을들이 흩어져 있었다 근대 도시가 발달하면서 서정리역 동쪽으로 국도 1호선이 건설됐다. 시가지는 철도역과 국도 1호선 사이에 발달했다.⁷⁾ 시장·학교·종교시설·사회단체·신문사지국도 역 주변에 자리 잡았다. 서정리역 일대가 교통·행정·문화의 중심지로 변모하면서 시장기능⁸⁾도 활성화됐다.⁹⁾

1912년 조선총독부 철도국에서 발간한 《朝鮮鐵道沿線市場一斑(조선철도연

6) 평택시사편찬위원회, 《평택시사》, 평택시사편찬위원회, 2014

7) 김해규, 《평택사람들의 길》, 평택문화원, 2019

8) 서정리시장은 1908년 서정동 322번지 서정리지구대 옆 일본인들이 경영하는 화신상회 앞에서 노점이 열리면서 시작되었다.(임봄, 《이것이 평택의 토종이다》, 평택문화원, 2014

9) 평택시사편찬위원회, 《평택시사》, 평택시사편찬위원회, 2014

선시장일반)》¹⁰⁾을 살펴보면 서정리역과 서정리시장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서정리역의 정거장 소재지는 경기도 진위군 송장면¹¹⁾ 서정리이다. 위치는 진위군청 소재지¹²⁾에서 1리 18정¹³⁾ 떨어져 있으며, 지형은 정거장 부근에는 구릉과 경작지가 있고 농산물이 많다. 주변 교통 사항은 오산·진위·안성과 연결된 도로가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관공서로는 순사주재소가 있다. 인구는 총 112호, 609명으로 일본인이 12호, 42명이며 조선인 100호, 567명이다. 영업성적을 살펴보면 승차 인원은 6,307명, 하차 인원 5,942명으로 객차 수입은 3,840원이며, 발송 물류 1,427톤, 도착 물류 121톤으로 재화 수입은 3,488원으로 총수입은 7,328원이다. 물류의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발송 품목은 쌀, 콩, 과일, 약초 등이었으며, 도착 품목을 가마니, 직물, 목재 등이었다.

시장의 위치는 경기도 진위군 송장면 서정리이며, 개시일은 음력 2·7일이다. 취급액은 평균 3천 원이며, 세금은 22원, 역과 정거장의 거리는 2간¹⁴⁾으로 소에 실었을 때 비용은 1전 5리이다.¹⁵⁾

이렇듯 《朝鮮鐵道沿線市場一斑(조선철도연선시장일반)》에 따르면 서정리역 인근 시장에 대해서는 서정리시장을 소개하고 있다. 1912년 당시에 서정리역을 중심으로 서정리시장이 형성되고 관공서로는 순사주재소 등이 자리 잡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각종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교육

10) 조선총독부에서 각지의 철도역장에게 조선의 철도 연선에 위치해 있는 개별 시장의 화물 집산상태, 운송 관계, 시장 부근의 생산물, 기타 관련 사항 등을 관찰하여 보고한 자료이다. 일본 상인들의 상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다.

11)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는 송장면이었다.

12) 당시 진위군청의 소재지는 북면 봉남리(현 진위면 봉남리)이다.

13) 일본의 거리 단위이며 환산하면 약 5,890m이다.

14) 약 360m이다.

15) 취급액 및 세금, 물류량으로 주변 시장과 비료하면 서정리시장은 둔포시장의 약 1/3 ~ 1/2, 안성시장은 약 1/7 ~ 1/5 정도의 규모로 보인다.

기관, 사회단체, 종교시설이 자리 잡았다.

공공기관으로 가장 먼저 설치된 것은 1922년 10월에 설립된 서정리공립보통학교와 이듬해 설치된 서정리우편소다. 1914년 첫 모임을 했던 서정감리교회도 1920년대 초가 되면 교회의 모양을 갖췄고, 1930년대에는 서정동성당이 설립됐으며, 서정리시장이 발전하면서 1927년에는 서정리 근검저축조합과 서정리 소작상조조합, 이삼년 뒤에는 평택금융조합 서정리 지소도 설치됐다.¹⁶⁾ 이처럼 서정리역을 중심으로 근대도시가 형성되고 송탄을 비롯해 평택 북부 중심지로의 역할로 자리를 잡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 송탄의 근대교육

조선 시대에는 향교를 한 고을에 하나씩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런데 평택 지방에는 두 개의 향교가 있다. 그것은 행정구역이 통폐합되어 지역의 경계가 변경되면서 한 고을에 두 개의 향교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평택현이 진위지역과 통합하게 되자 현재처럼 팽성읍에는 평택향교가, 진위면에는 진위향교가 남아있게 된 것이다.¹⁷⁾ 송탄지역은 조선후기 진위현의 일탄면, 송장면, 여방면 등의 일원(현 서정동, 중앙동, 이충동, 지산동, 신장동, 장당동, 도일동, 칠원동 등의 일원)으로 진위현의 속해있었으므로 진위향교의 교육 범위에 속했을 것으로 보인다.

강화도조약(1876년)을 계기로 시작된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열강과의 통상 조약체결은 조선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신문물의 수용은 조선사회가 근대화로 나갈 기회인 동시에 일본을 비롯한 열강들의 침략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은 ‘근대화’와 ‘자 주권 수호’라는 양자

16) 김해규, 《평택사람들의 길》, 평택문화원, 2019

17) 진위향교지편찬위원회, 《진위향교지》, 진위향교, 2007

를 어떻게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역사적 과제를 가지게 되었다.¹⁸⁾

1895년 교육입국조서에 근대교육의 이념과 필요성이 표명됐다. 이에 1895년 서울의 한성사범학교가 설립되고 각 지방에 관립소학교를 설립했다. 1896년 부산에 ‘개성학교’, 1897년 서울의 ‘정신여학교’, 1898년 ‘홍화학교’가 설립되면서 1905년 전국적으로 220개의 학교가 설립됐다.¹⁹⁾

한말 평택에도 서구식 교육이 등장했으나 보수성향이 강한 농촌 사람들은 전통 교육을 계승하고 개량서당을 설립해 학동들을 교육했다. 공립학교로는 1898년에 사립 진위소학교가 설립되었고, 1899년에 공립으로 전환되었다. 지역민의 교육에 열정을 가졌던 이범창, 이범철 형제가 자신들이 사립으로 출범시켰던 진위소학교를 신학문의 원활한 확산을 위해 공립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라고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계기나 근거는 찾을 수 없다. 1904년에는 지금의 팽성읍 남산리에 있던 강난수(姜蘭秀)의 사랑방에서도 근대교육이 시작되었다. 남산리에 설립된 이 학교는 일제가 제정한 ‘조선교육령’에 의해 평택공립보통학교로 개편되었다.²⁰⁾ 사립학교로는 1907년 참봉을 지낸 서상천이 청북면 백봉리에 수성학교를 세웠으며 그 외에도 진흥의숙, 진문 소학교, 동명의숙 등이 세워졌다.

한말 송탄지역의 사립 교육기관으로는 진동학교가 있다. 《황성신문》 1910년 4월 21일 자 기사 〈진동졸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위 서정리 사립 진동학교 제일회 졸업식을 금사월 십칠일 거행하였는데 갑반 우등에 심익학 홍학유 이익중 삼인이요. 이순재 등 육인이 졸업이요 을반 박만복 등 이인이 우등이요 병반 윤승용 등 삼인이 우등인데 교장 김종한 씨와 찬성장 박 기양 씨와 경기관찰사 김사묵 씨와 본군수 김복규 씨와 경내 십육면장과 백여 이장

18) 평택교육사편찬위원회, 《평택교육사》, 경기도평택교육청, 2005

19) 평택시사편찬위원회, 《평택시사》, 평택시사편찬위원회, 2014

20) 장연환, 《진교일기》, 〈진교일기와 평택의 근대교육〉, 평택문화원, 2020

과 유지신사 오육백인과 관공자 천여인과 일본인역장 與紳士가 다수 내참하야 성황을 정하앗다더라²¹⁾

서정리에 위치한 진동학교는 제1회 졸업식을 맞이한 것으로 보아 개교는 그 이전 1900년대 후반으로 보인다. 인원은 갑·을·병 3개 반이 있었으며 갑 반에 우등이 3명이고 졸업이 6명인 것으로 보아 30명 내외로 졸업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진동학교는 1917년까지 유지된 기록²²⁾이 있으나 이후 활동 사항을 파악할 수는 없다.

일제강점기에는 평택지역에서는 종교단체, 지역유지, 사회단체 등에서 강습소, 야학, 서당 등 각종 사립 교육기관이 세워져 지역민을 교육하였다. 1910년대는 국어야학회, 포승면 국어강습소 등이 세워졌고, 1920~30년대는 교육 운동이 활발해져 구씨학원, 진평의숙, 진청학원 등 여러 사립 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²³⁾ 일제강점기 송탄지역 역시 사립 교육기관이 설립되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표1〉일제강점기 송탄지역 사립 교육기관 현황²⁴⁾

교명	개교연도	위치	설립자/직책	교원/직책	교과목	학생수	출전
야학부	1926	송탄면 장안리	이익래/ 전 송탄면장	이익래/ 전 송탄면장		남, 여	동아일보 1926.01.12
모곡 야학교	1930	송탄면 모곡리				남녀 60	조선일보 1928.06.16
방해 야학부	1930	송탄면 가재리	최기철	최기철	조선어, 산술	40	동아일보 1930.12.13

21) 《황성신문》, 1910년 4월 21일, 〈진동졸업〉

22) 《매일신보》, 1917년 2월 7일, 〈학교림의 현상〉

23) 《동아일보》, 1927년 4월 22일 〈순회 탐방〉 기사에 강습과 62개소와 기타 부락에 산재한 서당이 80여 개소라고 나와 있으나 기록으로는 모두 확인할 수는 없었다.

24) 서태정, 〈한말·일제강점기 평택지역 근대학교의 설립과 성격〉, 수원대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교명	개교연도	위치	설립자/직책	교원/직책	교과목	학생수	출전
농민 야학학원	1933	송탄면 가재리	동아일보 진흥회	박종갑 이영재		남녀 25	동아일보 1933.12.04
야학부	1933	송탄면 장당리	광천 진흥회			남녀 16	동아일보 1933.10.16
가재리 학원	1936	송탄면 가재리				100	동아일보 1936.06.20

〈표1〉와 같이 1920~30년대 송탄면 장안리·모곡리·가재리·장당리 등에서 행정관료, 지역유지, 언론 관계자, 지역단체, 지역민 등 각계 학교를 설립 하였으며, 이곳 외에도 서정리공립보통학교가 개교하기 전 학교 위치에 강 습소가 있었다고 한다.²⁵⁾²⁶⁾ 이처럼 활발한 사립 교육기관의 확대는 근대교 육 대한 필요성을 자각하고 욕구가 증대한 것을 볼 수 있다.

3. 서정리공립보통학교의 개교

일제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 해방이 되기까지 지배하기에 적당한 학교 체제를 세워서 식민지 국민을 양성했다. 지식계발에 따른 민족의식 성장과 정책비판, 독립사상 고조 등을 막으려는 ‘우민정책’을 했다. 저항이 폭발하 자 무단정치를 접고 문화정치로 회유하면서 각 읍면에 학교를 1개교씩 설 립할 것을 계획했다.²⁷⁾

서정리공립보통학교도 이러한 공립학교 정책에 따라 진위공립보통학교 (1898), 평택공립보통학교(1913), 안중공립보통학교(1922)에 이어 평택 에서 네 번째 공립보통학교로 1922년 6월 3일 설립 인가²⁸⁾를 받아 그해 10월 16일 4년제 3학급으로 개교하였다.²⁹⁾ 이후 청북보통학교(1926), 부 용보통학교(1927), 내기보통학교(1929), 서탄보통학교(1930), 고덕보통학

25) 박성석(1931년, 남, 서정리국민학교 19회 졸업생), 2022년 6월 28일 인터뷰

26) 진동학교가 유지된 것이지 다른 사립 교육기관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27) 평택시사편찬위원회, 《평택시사》, 평택시사편찬위원회, 2014

28) 《동아일보》 1922년 6월 25일 〈서정보통학교인가〉

29) 평택교육사편찬위원회, 《평택교육사》, 경기도평택교육청, 2005

교(1931), 현덕보통학교(1935) 등 각 면에서 모두 공립학교가 개교하였다.

서정리 공립보통학교는 총독부의 계획하에 설립되었다.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진위와 평택에 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된 이후, 평택지역에 학교를 설립한다면 지역 균형상 서부지역에 학교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런데 철도역이 설치된 후 철도역 주변으로 신시가지가 조성되면서 그 인구도 늘었을 것이다. 즉, 서정리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보통학교의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것이다. 물론 지역 전체적으로 공립보통학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철도역 근처에는 조선인 거주민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이 거주 및 왕래가 잦았기 때문에 조선인에 대한 일본어 교육의 필요성이 더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³⁰⁾

서정리공립보통학교는 개교 이후 많은 조선인이 입학하고자 하였다. 이는 《동아일보》 1936년 3월 25일 기사 〈학급증설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략) 우리군내 교육 사황은 어떠한가 소위 일면 일 교제는 소화 9년까지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반수 이상은 사학년 제도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일면의 취학아동 지원자는 이삼백 명인데 일교의 수용력은 오륙십 명에 불과하게 되니 나머지 미취학 아동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들은 부질없이 가두에 방황하고 잇는 것은 유지제씨도 잘 아는 사실이 아닌가?

그러나 서정리 보고만은 다행히도 송탄면 유지 제씨의 열렬한 활동으로 인하여 증축비 일만오천원으로써 육 학급으로 증설하자고 하여서 기성회 조직까지 보게 되었다는 것은 기쁜일이라고 하겠다.(하략)…³¹⁾

이처럼 진위군내 면 단위의 입학대상은 2~300명이나 한 학교의 수용은

30) 서태정, 〈한말·일제강점기 평택지역 근대학교의 설립과 성격〉, 수원대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31) 《동아일보》 1936년 3월 25일 〈학급증설문제〉

5~60명 정도라 학교가 부족하지만 서정리보통학교는 이를 수용하고자 지역유지들이 증설하고자 기성회를 조직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증축에 대해서 2년 뒤의 《동아일보》 1938년 3월 23일 기사〈서정리소교 증축 수인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택군 송탄면 서정리 소학교 연연히 신입학기만 되면 입학난으로 학교 당국자들의 고심과 일반 학부형들의 불만을 면치 못하였으나 금번 松崎校長の 부단한 노력과 학교후원회 제씨의 열렬한 지원하에 현재 6학급을 12학급으로 연장인가가 되었다는데 증축 공사는 금춘에 이 학급 십육 년³²⁾에 이 학급 십팔 년에 이 학급 반을 격년 증축하기로 결정되었다 한다.³³⁾

이처럼 신학기만 되면 입학난으로 학교의 고심과 학부형들의 불만이 컸으며, 이에 후원회를 조직해 증축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³⁴⁾

32) 소화 16년(1941년)

33) 《동아일보》 1939년 3월 23일 〈서정리소교 증축 수인가〉

34) 1937년 입학생(1941년 졸업)의 경우 입학 시에 단일반이었고 졸업할 때까지 단일반이라고 하였으나 1938년 입학생(1942년 졸업)에는 2개 반으로 입학하였으며, 졸업할 때까지 2개 반이 유지되었다고 하였다.[박성석(1931년, 남, 서정리국민학교 19회 졸업생), 오인선(1929년, 남, 서정리국민학교 20회 졸업생) 2022년 6월 28일 인터뷰] 졸업 현황을 살펴보면 1941년에는 79명, 1942년에는 152명으로 약 2배 늘어 학급이 증설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Ⅲ. 서정리공립보통학교의 변천과 활동

1. 서정리공립보통학교의 변천

서정리공립보통학교는 1922년 개교한 뒤 1924년 6년제가 시행³⁵⁾되었고, 교육정책의 따라 1926년 서정리보통학교, 1938년 서정리심상소학교, 1941년 서정리국민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고 해방 후에 1995년 현재의 교명인 서정리초등학교가 되었다.

1925년 서정리공립보통학교는 32명의 1회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졸업생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표2〉 서정리공립보통학교 졸업년도 별 졸업생수³⁶⁾

졸업년도	회수	졸업생수	졸업년도	회수	졸업생수	졸업년도	회수	졸업생수
1925년	1회	32명	1932년	8회	45명	1939년	15회	72명
1926년	2회	44명	1933년	9회	48명	1940년	16회	72명
1927년	3회	43명	1934년	10회	59명	1941년	17회	80명
1928년	4회	53명	1935년	11회	62명	1942년	18회	80명
1929년	5회	53명	1936년	12회	67명	1943년	19회	79명
1930년	6회	57명	1937년	13회	72명	1944년	20회	152명
1931년	7회	42명	1938년	14회	76명	1945년	21회	142명

〈표2〉를 보면 1회(1925년) 졸업생 32명 이후 19회(1943년)가 졸업생 79명까지 졸업생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20회(1944년) 졸업생은 학급이 한학년에 2개 학급으로 늘어 19회(1943년)에 비해 약 2배로 증가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회(1930) 졸업생 57명에서 7회(1931년) 졸업생이 42명으로 감소한 것은 1930년 개교한 서탄보통학교와 1931년 개교한 고덕보통학교의 영향으로 보인다.

35) 《동아일보》 1924년 4월 4일 〈육년제시행교 경기도의 십삼교〉

36) 평택교육사편찬위원회, 《평택교육사》, 경기도평택교육청, 2005

서정리공립보통학교 교장은 일본인으로만 이뤄졌었다. 다른 공립보통학교처럼 조선교육령에 의거한 교육과정이 이뤄졌을 것이다.³⁷⁾ 서정리공립보통학교의 초대 교장은 冲原南海이었으며 이후 교장과 교원은 다음과 같다.

〈표3〉 서정리공립보통학교 연도별 교원³⁸⁾

연도	교명	교장(관등)	훈도(관등)
1922	서정리공립보통학교	冲原南海(5)	-
1923	서정리공립보통학교	冲原南海(5)	金性達(10), 金鍾祥, 李貞淑(축탁교원)
1924	서정리공립보통학교	冲原南海(5)	金性達(7), 西村清治(8), 尹豪燮(11), 朴喜禹(11)
1925	서정리공립보통학교	冲原南海(5)	金性達(7), 横田彦胤, 尹益普(10), 尹豪燮, 崔台潤, 梁玉女(축탁교원)
1926	서정리보통학교	冲原南海(5)	金性達(7), 權田彦胤, 尹益普(9), 崔台潤, 李基澤, 崔承慶
1927	서정리보통학교	冲原南海(4)	金性達, 横田彦胤(8), 崔承愛(10), 陳錡範(10), 崔台潤, 李基澤
1928	서정리보통학교	冲原南海(4)	横田彦胤(8), 金瓊鉉(9), 崔承愛(10), 陳錡範(10), 崔台潤(10), 李基澤(10)
1929	서정리보통학교	進直好(5)	横田彦胤, 金瓊鉉(9), 崔承愛(9), 陳錡範(10), 崔台潤(10), 李基澤(10)
1930	서정리보통학교	進直好(5)	全瓊鉉(9, 휴직), 大塚欣一(7), 崔承愛(8), 陳錡範(9), 崔台潤(9), 李斗杓(9), 李基澤(9)
1931	서정리보통학교	進直好(4)	大塚欣一(7), 崔台潤(9), 李斗杓(9), 李基澤(9), 李完成(10), 崔貞順(10)
1932	서정리보통학교	進直好(4) ³⁹⁾	崔台潤(8), 李斗杓(9), 李基澤(9), 神島源清(9), 李完成(9), 崔貞順(10)
1933	서정리보통학교	進直好(4)	李斗杓(8), 神島源清(9), 李完成(9), 崔貞順(10), 申泰熊
1934	서정리보통학교	鳥原光好(6)	李斗杓(8), 神島源清(8), 李完成(9), 金壽吉(9), 申泰熊, 岡本利春

37) 서태정, <한말·일제강점기 평택지역 근대학교의 설립과 성격>, 수원대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38) <조선총독부 및 소속 관서 직원록>, 《평택교육사》

39) 1932년과 1933년에 교장은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록>에서는 進直好라고 나오나 《평택교육사》에서는 鳥原光好로 나온다.

연도	교명	교장(관등)	훈도(관등)
1935	서정리보통학교	鳥原光好(6)	神島源清(8), 李完成(9), 金壽吉(9), 申泰熊(10), 禹箕鍾, 岡本利春
1936	서정리보통학교	松崎正雄(6)	神島源清(8), 李完成(8), 金壽吉(9), 申泰熊(10), 禹箕鍾, 岡本利春
1937	서정리보통학교	松崎正雄(6)	李完成(8), 金壽吉(9), 松田龍一(9), 申泰熊(10), 禹箕鍾(10), 岡本利春
1938	서정리심상소학교	松崎正雄(5)	李完成(8), 松田龍一(8), 江並幸郎(9), 申泰熊(10), 禹箕鍾(10), 金煌喜(11)
1939	서정리심상소학교	松崎正雄(5)	高橋靜一, 江並幸一郎(8), 申泰熊(9), 禹箕鍾(9), 高山貞子(11), 柳相熙(11), 朴濟萬(축탁교원)
1940	서정리심상소학교	繁山一秀(4)	高橋靜一, 江並幸一郎, 小島藤衛(8), 金鎮鳳, 李敏宜(10), 高山貞子(10), 柳相熙(10)
1941	서정리국민학교	繁山一秀(4)	江並幸一郎(7), 山本仁淳, 小島藤衛, 森吉恒夫(9), 西原隆平(9), 山根吟子(9), 青木明, 石見富子(11)
1942	서정리국민학교	越知通雄	-
1943	서정리국민학교	小深田順治	-
1944	서정리국민학교	小深田順治	-
1945	서정리국민학교	小深田順治	-

〈표3〉를 보면 1923년 교장을 포함해서 4명이었던 교원은 1941년 9명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학생 수의 증가와 학급의 증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교장은 지속적으로 일본인이 맡았으나 교원은 조선인과 일본인이 함께 있었고 조선인의 비율이 높았다.

2. 서정리공립보통학교의 활동

1) 농사 지도학교 활동

조선총독부는 농촌의 중견인물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식민농정과 전쟁 수행을 밑에서 부터 지탱하는 ‘황국농민’으로 만들려 했다.⁴⁰⁾ 이러한 정책

40) 김민철, 〈조선총독부의 촌락지배와 촌락사회의 대응-1930~40년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논문, 2008, 137쪽

에서 서정리보통학교도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각종 강습회⁴¹⁾를 개최하는 등 농사 지도를 하였고, 소화 2년(1927년) 봄에⁴²⁾ 농사 지도 학교로 지정되었다. 적극적으로 농사 지도를 시행한 서정리보통학교는 우수한 성과를 내어 우가키 가르시게 총독이 시찰하러 왔으며,⁴³⁾ 대전⁴⁴⁾ 등 다른 지역에서도 시찰을 오기도 하였다. 특히 《매일신보》에서는 1932년 8월 7일부터 12일까지 <우량지도학교 서정리공보를 방문함>을 5회의 연재하였다. 회차별 부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4〉 <우량지도 학교 서정리공보를 방문함>의 회차별 부제와 내용

회차	부제	내용	게재일
1	열과 애와 한으로 진지한 실지 교육 농촌 실생활에 즉한 산지식과 - 중견청년의 양성	지도 학교의 개요, 교육표어, 지도신념	7일
2	농업의 취미와 근로정신의 함양 재학 아동들도 모다 농사 실습 - 완전한 농촌 축도	학교의 교원과 학생 수, 학년별 교육내용과 방법	9일
3	졸업생들로서 농개조합을 조직 세밀한 규약 아래 지도에 노력 - 완전한 계발의 지침	농사개량조합의 개요와 규약	10일
4	지도계발의 천원 천연한 농촌 등대 지도종료생은 훌륭한 자작농 그들의 헌신적 활동	소화 7년(1932년) 지도생 지도계획	11일
5(了)	산업도로 수축과 황지개간에 노력 농촌 불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각 반의 시설과 계획	조합의 확대와 장안리조합, 교장훈시	12일

41) 《조선신문》 1929년 3월 17일 <농사지도생 서정리보통교에서>

42) 《매일신보》 1932년 8월 7일 <우량지도학교 서정리공보를 방문함1>

43) 《경성일보》 1932년 5월 27일 <우원총독 수원, 성환시찰>

44) 《경성일보》 1932년 6월 2일 <지도생의 모범장시찰>

이 보도에는 기사와 함께 기사마다 <서정리공보생의 작업실황>이라고 하는 사진 2장을 넣어 총 10장의 사진이 함께 게재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5〉〈서정리공보생의 작업실황〉의 회차별 사진 내용

회차	내용	
1	퇴비 제조	우분좁는 광경
2	아동들의 초예경기회(풀베기 경기)	전작 실습
3	학교 양잠실에서 아동들의 양잠 실습	동 양계장에서 아동들의 양계 실습하는 광경
4	지도생의 촌락순회	아동들의 도로 수선
5(了)	모곡리 지도촌락 부인들의 이앙	지도촌락 부인들의 공동취묘

서정리보통학교 재학생은 학교를 통해 퇴비 제조나 풀베기, 양잠·양계와 같은 농사를 실습하였고 졸업생은 지도생이 되어 재학생을 지도하였다. 또한 졸업생들은 농촌 수리조합을 조직하고 각 지로 이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서정리보통학교의 농사 지도학교 역할은 농업을 통한 중견인물 양성과 이를 통한 일제의 식민지배를 보여주는 모습이지만 이와 함께 근대 농업기술의 확대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2) 운동회와 학예회

서정리공립보통학교는 교육기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운동회를 비롯해 여러 행사를 통해 지역에서 사회적 역할을 해왔다.

운동회나 체육행사는 당시 연례 행사로 개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5월이나 10월이면 운동회와 체육행사에 관한 기사가 유난히 많다.⁴⁵⁾

45) 성주현, 〈근대 평택의 체육활동〉, 《소사벌》 제30호, 평택문화원, 2017

특히 1920년대 이후의 학교 운동회 종목은 유희 중심이었고, 이것은 개인적인 즐거움보다는 단체경기를 통하여 협동과 단결의 정신을 배양하는 데 힘썼다. 지역사회에서 운동회는 학교를 포함한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1년 중 가장 큰 행사로 대두되었다.⁴⁶⁾

서정리공립보통학교 역시 운동회를 개최되었으며 지역사회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운동회의 규모는 《동아일보》 1924년 10월 20일 〈청년 기타집회〉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서정공보운동회 기보한바와 가치 거 십칠일 오전 구시부터 동교 운동장에서 개최하였는데 진위, 평택 오산 각 학교 급 본교 생도가 일천백 명이오. 관람석은 입추의 여지가 없는 중 각 학교 선수 연합 리레경주로 우승기 쟁탈전이 잇서 흥미를 한층 더 잇스며 만장한 인사에 박수갈채로 예정의 과목을 맞치고 오후 오시에 산회하였다는데 우승기는 진위공보생도에게로 갔다⁴⁷⁾

이 운동회는 춘계운동회로 서정리보통학교를 비롯해 인근 학교인 진위, 평택, 오산보통학교가 참여하였고 참가한 학생 수는 총 1,100명이며, 관람객들은 입추의 여지가 없다고 할 만큼 학교에 가득 찼다고 한다. 이처럼 운동회는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주요한 행사로 여겨진 것을 알 수 있으며, 이후 운동회는 지속해서 개최되었다.⁴⁸⁾

서정리공립보통학교에서는 운동회뿐만 아니라 학예회도 열렸으며 이

46) 황의룡·임우택, 〈일제강점기의 보통학교 운동회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제4호, 한국체육과학회, 2010

47) 《동아일보》 1924년 10월 20일 〈청년 기타집회〉

48) 《조선신문》 1928년 10월 23일 〈서정리보교추계운동회〉; 《조선중앙일보》 1934년 10월 13일〈서정리공보교운동회〉; 《조선신문》 1935년 10월 4일 〈경기도, 서정리공보추계대운동회〉; 《조선신문》 1937년 10월 1일 〈운동회일속〉 등 운동회 개최와 관련된 기사가 지속적으로 보도되었다.

역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학예회의 개최는 《조선일보》 1929년 3월 2일 〈서정리공보 학예회개최〉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진위군 송탄면 서정리공립보통학교에서는 학예회를 지난 이십사일 오후 칠 시반부터 동교강당에서 개최하였는데 관객이 오백여 명에 달하여 대성황을 일우었으며 정각이 되자 교장 進眞씨의 개회사를 비롯하여 육학년 윤승학군의 여자교육이라는 연제로 강화가 끝나자 이십육종순서에 간간히 음악 급 연극까지 잇서서 대성황리에 익 오전 이시에 무사히 폐회하였더라.⁴⁹⁾

이 학예회는 학교 강당에서 관객 오백여 명 모여 진행되었으며, 오후 7시반에 시작하여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진행되었고 학예회 내용은 강연, 음악, 연극 등 26종에 달하였다. 이처럼 학예회는 늦은 시간까지 진행되에도 많은 인파가 몰렸고 지역주민에게는 높은 인기를 구가했다. 이후 비정기적으로 학예회가 개최되었는데 주로 2월과 3월이 많았다.⁵⁰⁾ 2월과 3월은 농한기라는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학교에서는 3월에 졸업을 앞두고 수업적인 여유가 있어 진행하기 수월했을 것으로 보인다.

서정리공립보통학교는 운동회나 학예회 등 학교행사 외에도 서정리노총위원회 집회 및 강연⁵¹⁾, 송탄면 외 삼면 연합 농림산물품평회 개최⁵²⁾, 서정리소년창립총회⁵³⁾ 등 지역사회의 각종 집회와 강연의 공간으로도 사용되던

49) 《조선일보》 1929년 3월 2일 〈서정리공보 학예회개최〉

50) 《조선신문》 1930년 2월 17일 〈서정리보교아동학예회〉; 《조선신문》 1931년 3월 7일 〈서정리보교부인회총회, 학예회개최〉, 《조선신문》 1932년 3월 12일 〈경기도 서정리보교아동학예회〉; 《조선신문》 1937년 2월 23일 〈서정리보교학예회〉 등 학예회 기사가 보도되었다. 2월 말에서 3월 초에 개최되었다.

51) 《조선일보》 1930년 2월 1일 〈서정리노총위원회〉

52) 《동아일보》 1926년 11월 7일 〈농림산물〉

53) 《조선일보》 1927년 8월 18일 〈지방집회〉

서 교육기관 외에도 지역의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3) 서정공보초리사건

《조선일보》 1927년 6월 24일에 <서정공보교장을 박하노라>라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정리공보교장 沖原군의 괴거행동은 각지의 누보로 일반이 공지하는 바임으로 경히 체언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후 沖原군의 태도를 견하면 그 고집하는 특징이 마치 오장에 침염된 고질인 듯 하다.

경제의 목적이라는 구실로 일본초리⁵⁴⁾를 신긴다는 것임으로 엇더한 안목으로 보아서 그리 중대문제가 아닐지도 몰을 것이나 일반생도와 학부형의 비난은 그만두고라도 사회적여론이 비등의 상태에 급하도록 차의 강요를 고집함은 억하심정이나?

그러나 해교장은 의연한 태도로 사회여론은 염두에도 안두다가 생각지 안튼 위협적투서를 보게 되었다. 즉 ‘또다시 그런 불상사를 감행하면 육혈포로 발사한다’는 청천의 벽력가튼 경고문이 그것이었다.

물론 적극적으로 흥분된 악감정에서 이러한 문순을 투하였을것이다. 일본초리를 신고집단 고속을 엮에끼고 시가를 통과하든 해교 여학생의 태도를 보고 그 현상에서 발한 감정이 아니면 과반생도들이 수원, 경성, 개성 등지로 수학여행을 하였을 때에 일반생도에게 광고적으로 일본초리를 신것든바 도처마다 조소로 환영을 받은 사실로 기교장의 비행을 분개함에서 생기었을 것이다.

沖原군은 기서를 독하고 대경하야 생도를 교정에 소집하고 차에 대한 가부를 묻하였다한다. 당초에 그 복종을 강요함에 일언 반구를 토로치 못한 천진의 심정으로 이의가 무하고 진땀잡은 동의를 표하였다.

沖原군에 대한 이반의 행동이 넘우도 이타을 경타하기로 구조가 충분치 못하고

54) 일본조선

기락이 분명치 못한 두서업는 문구나마 충고코저하는 소이는 청컨대 군은 차에대한 정제책은 타파하야버리고 교육에 익익권가려하기 바란다. 억압력으로 약자에게 복종을 강요함은 땃땃지못한일이다.⁵⁵⁾

일본인 교장 沖原이 경제적인 목적이라는 구실로 일본식 짚신을 수원, 경성, 개성 등의 수학여행에서 일제에 대한 복종과 내선일체를 보여 주기 위해 학생들에게 강제로 신겼고 이 모습을 본 수학여행지에서 비웃음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사회여론도 들끓었으나 오히려 교장은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육혈포를 발사한다’라는 경고장까지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이미 《조선일보》 1927년 6월 11일에 〈사백 학생을 강제로 일본초리 신겨〉라고 보도되었다. 학생들에게 강제로 일본식 짚신을 신기고 조선신을 신으면 처벌을 주어 학생들은 부끄럽고 불편하여 불만을 많았다는 것이다. 특히 수학여행에서 일본 짚신을 신기는 사건으로 인해 학부모들은 반발하여 전학을 시키려고 하는 이들까지 있다고 한다.⁵⁶⁾

이 사건은 일본인 교장에 독단적인 행위였지만 당시 총독부의 내선일체를 보여주는 사건이며, 동시에 지역민이 일제에 대한 반감을 들어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55) 《조선일보》 1927년 6월 24일 〈서정공보교장을 박하노라〉

56) 《조선일보》 1927년 6월 23일 〈학부형 등은 전학을 운동〉

IV. 맺음말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1922년 서정리초등학교의 개교부터 1945년 해방까지를 다루면서 경부선 서정리역 설치와 사회적 변화를 보고 개항기와 일제강점기의 송탄의 사립 근대교육의 모습을 확인했다. 서정리공립보통학교의 규모의 변화는 졸업생수와 교원을 통해 살폈으며, 농사 지도 학교로의 활동과 대표적 학교행사인 운동회·학예회를 연구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사건인 서정공보초리사건을 알아보았다.

조선시대 송탄은 진위현의 송장면과 일탄면 일원으로 중심지와 거리가 있는 농촌지역이었으나 1905년 경부선 서정리역이 개통되면서 사회경제적 변화가 나타났다. 근대공간으로서 서정리역 일원에는 학교, 단체, 종교시설, 시장 등 근대기관과 시설이 형성되어 평택 북부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아 갔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근대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자각하고 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송탄에는 진동학교 등 근대적인 사립 교육기관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공립 교육기관으로는 1면 1교 일제의 정책에 따라 1922년 서정리공립보통학교가 개교하였다. 서정리공립보통학교는 개교 이후 꾸준히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그 인원은 점점 증대하였고 교원 역시 증가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촌의 중견 인물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서정리보통학교는 농사 지도 학교로 지정되었으며,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전국적으로도 우량한 지도 학교로 꼽혔다. 우량지도 학교로 서정리 보통학교는 식민지배의 확대와 함께 지역의 농사법을 보급 확대하는 역할을 하였다. 지역사회의 중요한 행사인 서정리공립보통학교의 운동회와 학예회는 지역민에게 유희를 주었으며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일제의 내선일체를 보여주는 사건이자 지역민의 반감을 보여주는

주요 사건인 서정공보초리사건은 전학을 시키려고 하는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본고를 통해 서정리공립보통학교가 송탄 근대교육과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해방 이후에는 서정리국민학교는 한국전쟁 시기에 교사가 소실되는 등의 위기를 마지하기도 했지만 꾸준히 졸업생을 배출하고 지역적 역할을 하면서 송탄의 중심학교로 100여 년 동안 역할을 하였다.

부록

《매일신보》(1932년 8월 7일~12일) 〈우량지도학교 서정리공보를 방문함〉

서정리공보생의 작업실황의 회차별 사진



1 회차 - 퇴비제조(上), 우분줍는 광경(下)



2회차 - 아동들의 초예경기회(풀베기경기)(上), 전작실습(下)



3회차 - 학교양잠실에서 아동들의 양잠실습(上)
양계장에서 아동들의 양계실습하는 광경(下)



4회차 - 지도생의 촌락 순회(上), 아동들의 도로수선(下)



5회차 - 모곡리 지도촌락 부인들의 이앙(上)
지도촌락 부인들의 공동취묘(下)

〈참고자료〉

단행본

- 평택교육사편찬위원회, 《평택교육사》, 경기도평택교육청, 2005
- 진위향교지편찬위원회, 《진위향교지》, 진위향교, 2007
- 평택시사편찬위원회, 《평택시사》, 평택시사편찬위원회, 2014
- 임봄, 《이것이 평택의 토종이다》, 평택문화원, 2014
- 김해규, 《평택사람들의 길》, 평택문화원, 2019

논문

- 서태정, 〈한말·일제강점기 평택지역 근대학교의 설립과 성격〉,
수원대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황의룡·임우택, 〈일제강점기의 보통학교 운동회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제4호, 한국체육과학회, 2010
- 성주현, 〈근대 평택의 체육활동〉, 《소사별》 제30호, 평택문화원, 2017
- 장연환, 《진교일기》, 〈진교일기와 평택의 근대교육〉, 평택문화원, 2020

신문

《경성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조선신문》

《황성신문》

여 백

근·현대 평택지역 천주교의 교세 확장과 발전

황우갑/민세아카데미 대표

차 례

- I. 머리말
- II. 한국 최초의 천주교 영세자 이승훈과 평택
- III. 19세기~20세기 초 평택지역 천주교의 교세 상황
- IV. 일제강점기 평택지역 천주교의 교세 확장
- V. 해방 이후 평택지역 천주교의 확산과 발전
- VI. 맺음말

I. 머리말

한국 천주교는 초기 선교사의 도움없이 남인 소론 계열의 양반과 평민 신자들의 자발적인 신앙공동체로 출발했다. 한국 천주교의 기원과 관련해서 3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임진왜란 기원설이 있다. 이는 임진왜란을 계기로 하여 일본에 나와 있던 선교사들에 의해 조선교회가 세워졌고 이것이 조선교회의 기원이 된다는 주장이다. 1592년 임진왜란 발발과 함께 일본에 나와 있던 선교사들의 조선 입국 시도는 세스페데스(1551~1611)에 의해 이루어졌다. 스페인 예수회 출신 선교사인 그는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초청으로 1593년 12월 조선의 남해안에 도착, 웅천(熊川)에 있던 고니시 진영에 머무면서 천주교 신자인 2000명에게 성사를 집전했다. 그러나 그가 당시에 조선인을 대상으로 포교했다는 기록은 없으며 이는 조선 천주교의 기원이 일본의 영향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식민사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조광, 2010).

둘째, 1779년 천진암(天真庵) 기원설이 있다. 1779년 현재의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우산지 소재에서 창립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천주교 교리를 연구하는 강학회가 열렸고 이벽·권철신·이승훈·정약종 등 한국 천주교회 창립 선조들이 본격적인 신앙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강학은 천주교 교리연구를 1차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며 유학 연구를 위한 모임이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조광, 2010) 기원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셋째, 한국 천주교회의 기원은 최초의 영세자 이승훈(李承薰)(1756~1801)의 세례로 보는 설이다. 1783년 부연사(赴燕使) 일행으로 북경을 방문했던 이승훈이 1784년 봄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귀국한 후 그해 가을 이벽(李檠)의 집에서 이벽에게 그리스도교 세례를 집전했다. 이로써 조선에서는 세례 받은 신자로 구성된 복음 선포적 신앙공동체가 구성되어 여기에 한국교회의 기원이 있다가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조광, 2010)

1784년 창설된 천주교 신앙은 당시의 사회와 사상에 대한 일대의 도전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 집권층에서는 교회 창설 직후 천주교에 대한 탄압을 강행해왔고 그것이 대규모로 실천된 것이 1801년 신유교난이다(조광, 2010).

천주교는 제사를 부정하고 유교의 통치이념과는 다른 내세론과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기에 신해교난(1791년), 신유교난(1801년), 병인교난(1866년) 등 지속적인 탄압을 겪어야만 했고 이 가운데 103위 성인 등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하면서도 신앙의 자유를 얻기위해 고군분투했다. 특히 대원군 시기는 10년 넘게 천주교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지속되었다. 대원군은 초기 천주교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고종의 유모 박씨가 마르타라는 세례명을 가진 독실한 교인이었고 프랑스 선교사인 베르뇌 주교의 기록에 의하면 1864년에 개인적으로 오래 전부터 서교(西敎)에 친숙하여 선교사를 통해 프랑스와 대러시아동맹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천주교 교인들과 접촉한 사실도 있었다. 대원군의 강경한 배외적 태도는 그의 국내정책에 대한 보수 유럽 세력을 비롯해 잠재적이면서도 완강한 반대세력의 비판을 현실적으로 무마시키는 완충기능을 담당 했다. 이는 서양 열강과 주변국과의 긴장 관계를 극도로 고조시켜 조선의 대외적 입지를 위태롭게 하였고 세계정세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어렵게 했다(강상규, 2007)

그러다가 1886년 한불수교를 통해 천주교는 종교의 자유를 획득했으며 이후 프랑스, 독일, 미국 지역에서 수도회를 통한 선교사의 파견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세를 확장해나갔다. 그러나 한국천주교회는 천주교 신자인 안중근 의사(세례명:도마) 등의 항일운동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한국침략에 대한 온건한 태도를 보였으며 신사참배 등을 지지했다. 해방 이후에는 남한단독 정부 지지와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속에 1961년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거치면서 사회교리의 강화속에 급속한 교세 확장을 거쳐 오늘날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종교로 발전하였다.

한국 천주교사 연구는 천주교가 전래되던 시대에는 호교론적 차원에서는 조선인 신도들과 선교사들에 의해, 탄압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척사적인 인물들에 의해 전개되었으며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식민사관의 관점에서 연구되어왔다(조광, 2010). 이런 연구는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에서 시작되었다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학문적 차원에서 한국천주교사 연구는 196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한국 천주교의 기원과 전래, 신부와 선교사들의 활동, 시기별 활동에 대한 연구도 교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평택지역에서 천주교의 교세와 본당 활동 등에 대한 연구는 미약하며 평택시사 등에도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다. 이제 5년 후인 1928년이면 평택지역에 천주교 성당이 처음 설립된지 100년이 된다. 평택지역 천주교 역사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최근 수원교구 수원교회사 연구소는 1882년 이후 수원지역 천주교 교세 현황 등의 자료를 꾸준히 정리해오고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평택 근현대 천주교의 역사를 정리해보았다. 평택지구내 17개 천주교 본당은 1928년 설립한 평택본당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각 본당의 25주년, 50년사를 정리해오고 있다. 그러나 대개 해당 본당 설립 과정과 그 이후 본당의 활동을 중심으로 역사를 정리해왔다. 그러다보니 19세기 이후 현재까지 평택지역내 천주교의 정착과 확산 과정을 알기에 어려움이 많다. 여기에서는 수원교회사 연구소가 정리한 수원교구 전체의 자료 가운데 평택지역 관련 자료만을 모아서 평택지역 천주교의 교세 확장 과정을 중심으로 그 대강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이 평택 지역내 천주교사 연구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면 좋을 것이다.

II. 한국 최초의 천주교 영세자 이승훈과 평택

조선 최초의 세례자이자 한국 천주교의 선구자인 이승훈이 평택현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은 평택천주교 역사에서 크게 기억해야 할 일이다. 비록 이승훈이 최초 세례를 받고, 위기의 상황에서 교회를 떠나고, 다시 돌아와 포교를 하다가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교회를 떠나기를 반복했기에 그가 1801년 신유박해때 서대문 성지에서 순교했음에도 한국 천주교회의 평가는 인색한 편이다.

조선 최초의 세례자인 이승훈은 남인 시파에 속하는 인물로 공조판서를 지낸 이가환(1742~1801)의 외종질이자, 정약전, 정약중, 정약용 등과 친한 처남 매부지간이었다. 또한 조선 교회 창설에 주동적 역할을 한 이벽과도 먼 친척이었으며 윤지충, 황사영 등과도 관계가 있는 인물이었다(조광, 2010).

이승훈은 이가환의 영향을 받아서 서학의 천문, 역상, 특히 수학에 관심이 많았고 신앙의 동기는 이벽의 권유에서 비롯되었다. 1783년 10월 부친 이 동옥을 따라 북경에 갈 때 이벽의 요청에 따라 북경 천주교회를 방문해서 《천주실의》, 《기하원본》 등의 자료를 받았으며 당시 27세인 그는 그 서적들을 열심히 읽고 교리를 깊이 연구한 다음 입교를 결심했다. 1784년 2월 북경성당에서 그라몽(Grammont) 신부는 그가 신앙의 문을 처음으로 열었기에 성 베드로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주었으며 귀국 후 그해 겨울 서울 수표교 인근 이벽의 집에서 이벽과 권일신, 최창현, 정약용, 김범우 형제들에게 세례를 주었다(여진천, 2013). 이벽의 세례명은 세례자 요한, 정약용은 사도 요한, 권일신은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김범우는 토마스, 최창현은 사도 요한이었다. 이 세례명은 본명 성인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본명 성인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철저했던 결과로 18세기 말 조선 천주교회의 발전과 연결되어 있다(방상근, 2010).

1791년(정조 5년) 최초의 천주교 박해인 신해박해(辛亥迫害)가 일어났다. 진산사건으로 불리는 이 교난(敎難)은 전라도 진산군의 선비 윤지충과 권상연이 윤지충의 모친상을 당해 신주를 불태우고 제사를 거부하며 가톨릭식으로 제례를 지내 일어났다. 이 때 정조는 윤지충과 권상연을 사형에 처하고 천주교 핵심인물인 권일신은 유배를 보냈으며 천주교 관련 서적 등을 보급한 이승훈은 그해 11월 8일에 관직에서 물러났다.

이 신유박해 직전인 1791년 6월 이승훈(李承薰) 베드로가 평택 현감으로 부임했다. 이승훈은 상황에 따라 천주교를 멀리하기도 하고 가까이 하기도 했기에 이시기 평택 현감 이승훈이 천주교도였다는 것은 평택지역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조선 시대에는 고을에 수령이 부임하면 3일 이내에 향교에 있는 문묘(文廟)에 배향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이 때 이승훈은 평택 현감으로 부임하여 여러 달이 지나도록 문묘에 배향하지 않았다고 모함을 받았다. 이것이 '이승훈 성묘불배 사건'이다. 신해박해(辛亥迫害)로 관직에서 물러난 이승훈은 다음해인 1792년 봄에 이 성묘불배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평택현의 유생들이 이승훈이 성묘에 배례하지 않은 것은 그가 천주교인이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글을 성균관에 보내 이를 문제 삼고 나섰다.

이에 조정은 김희채(金熙采)를 안핵어사(按覈御史)로 삼아 진상 조사를 나눴다. 평택의 유생 권위(權瑋)가 이승훈(李承薰)이 서양의 천주교에 물들어 평택 고을에 사는 3년 동안 공자의 사당에 참배하지 않았으며 이 사실을 다른 유생에게 말하니 그가 사적(士籍)에서 이름을 빼버렸다. 이에 이승훈의 아우 이치훈(李致薰)이 자기 형 이승훈이 죄가 없음을 밝혀달라고 상소를 올려 정조가 진상 조사를 지시한 것이다. 정조는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일체(一體)이니, 그 임금이나 아버지에게 절을 하지 않는 자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금수이다. 스승 또한 그러한데 더구나 만대의 스승인 공자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록 도둑(盜跖)이 후세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감히 생 각조차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른바 이승훈(李承薰)이란 자는 간담이 얼

마나 크길래 참으로 절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는가. 사민(士民)들의 수많은 시신 속에 누구를 속이겠는가. 결코 사민들의 수많은 눈을 속일 수 없을 것이니 공자의 사당에 절하지 않았다는 말은 평상적인 이치로 규명하기는 어렵다. 본 사건은 관계된 바가 지극히 중하니, 잠시라도 방치해 둘 수가 없다. 승훈이 향교에 배알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을의 유생이나 향교의 생도나 하인이나 백성들 중 그 실제의 상황을 듣고 본 자가 있을 것이니, 이 한 조목을 마땅히 먼저 조사하라" 라고 말하며 조사를 명했다(정조실록 34, 정조 16년(1792년), 2월 28일자).

조사관 김희채는 이승훈이 공자의 사당을 참배할 때에 향을 피우고 절하는 예를 의식대로 행한 것은, 재실의 선비들과 향교의 생도들이 홀기 부르는 반열에 동참하였고 고을의 아전과 지키는 노복들이 절할 때에 함께 보았으니, 알성(謁聖)할 때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헛말이며 유생 권위(權瑋) 등이 모함한 것이고 평택은 유림 간의 갈등이 있는데다가 이승훈이 신유(新儒)로서 왕래하는 자를 하나도 영접하지 않고 이치에 닿지 않게 송사하는 것도 간혹 금지한 것이 많아 신유(新儒)들과 원한을 맺게 되어서 이런 무고를 당했으며 유생 권위(權瑋) 등은 수완 또한 몹시 음흉한 자라고 조정에 보고하였고, 상소한 유생들을 무고죄로 몰아 형벌을 가하였다(정조실록 34권, 정조 16년(1792년) 3월 14일자).

이승훈은 ‘성묘불배 사건’이후인 1791년 11월 유생 송도정(宋道鼎) 등의 상소로 비난을 받는다. 그는 유생들에 의해 천주교 관련 도서를 유포한 혐의로 홍적이며 권일신 등과 함께 천주교를 전파한 괴수로 지목되었다(정조실록 33, 정조15년(1791). 11월6일). 이 때문에 평택현감에서 사직했고 후에 1795년 7월에 다시 이가환 등과 함께 유생들에 의해 천주교 관련 핵심인물로 공격을 받았고 정조도 이승훈에게 충남 예산 유배를 명했다.

연전에 서양의 책을 구입해 온 이승훈에 대해서 그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했던 무의식적으로 했건 따질 것 없이 그를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면서

감히 그의 집에서 편안히 있게 해서야 되겠는가. 이는 형정(刑政)에 관계되는 일이다. 승훈의 아버가 책을 불사른 증거와 그 뒤 승훈이 글을 작성하여 자기 죄를 털어놓은 사실이 또한 공가(公家)의 문서에 드러나 있기는 하다 마는, 마음을 고쳐 먹은 것은 고쳐 먹은 것이고 그런 짓을 저지른 것은 저지른 것인만큼 일단 그의 이름이 공거(公車)〈?〉에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즉시 처분을 내려주지 않는다면 역시 그 사람을 그 사람답게 대우해 주는 의리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전 현감 이승훈을 예산현으로 정배하라(정조실록 43권, 정조 19년(1795년) 7월 26일).

그러나 이승훈은 예산에 유배되었을 때 유혹문(膺惑文)을 지어 그 지역의 지방관들에게 나눠주고 예산 일대에 천주교 확산을 막았다고 한다. 유혹문(膺惑文)은 사학 가운데서 가장 요상하고 도리에 어그러진 말들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깨부수고 미혹됨을 깨우치는 글이라는 뜻으로 이승훈은 이를 통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천주교를 배척하였다(여진천, 2013). 그 내용은 천주교 핵심 교리들인 강생구속, 천당지옥설, 상선벌악설을 한 것으로 1801년 신유교난 당시에는 영세 초기의 긍정적 입장에서 거의 이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정조 사후인 1801년(순조 1) 2월 26일 신유교난(辛酉教難)이 일어나자 이승훈은 주문모(周文謨) 신부, 다산 정약용의 셋째 형 정약중(丁若鍾) 아우구스티노 등과 서울 서소문에서 함께 처형되었다. 이 때 이승훈은 서학서를 전래하여 천주교를 전파시켰으며, 스스로 교주가 되었고, 서양인들과 비밀리에 교통했으며 남인의 핵심인물인 이가환과 은밀히 모의하고 있었다는 혐의를 받았다. 신유교난 당시 이승훈은 천주교를 버린 상태였다. 이승훈은 조선 후기 사회를 살면서 새로운 가르침을 따랐던 구도자로 조선 천주교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영예와 함께 18세기 지식인중 전통문화와 새로운 문화 사이에서 무수한 갈등과 고뇌를 겪었던

인물이다(조광, 2010)

그러나 이런 이승훈의 1785년, 1791년, 1795년에 이르는 영세와 배교의 반복적 행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즉 체포되어 심문을 받을 때마다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거나 공동체를 보호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신앙을 배척했지만 박해가 잠잠해지면 다시 교회로 돌아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의 선익을 위해 세례를 주고, 가성무집행제도를 만들어 북경교회와 연락하는 등 교회의 발전에 기여했기에 기교자(棄敎者)였지 배교자(背敎者)는 아니었다는 것이다(여진천, 2013). 향후 한국 최초의 영세자였던 이승훈의 삶과 활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Ⅲ. 19세기~20세기 초 평택지역 천주교의 교세 상황

1886년 조선과 프랑스의 통상조약으로 인해 수많은 박해를 받았던 천주교는 공식 승인이 되었다. 이후 프랑스 선교사들의 활동이 자유로워지고 천주교회의 거점이 마련되자 파라외방전교회가 한국 선교를 담당한 1831년 이후부터 천주교 조직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뫼텔 주교는 블랑 주교의 뒤를 이어 1890년부터 1932년까지 43년간 교구장으로 재임하며 그 변화를 이끌어나갔다. 이 시기 기초 조직의 대표 성격을 띠고 있는 각 성당에 중요 사업이 집중되었고 세계 천주교회의 보편법이 한국 천주교회에도 적용되었다. 또한 성당 재정 자립의 안정성과 새로운 신자마을 형성을 위해 농지를 운영했다. 또한 1911년 조선교구는 경성교구와 대구 교구로 분리되었으며 1920년 함경도와 간도지방까지 관할하는 원산대목구, 1927에는 평양교구가 분리되었다(김정환, 2010). 성당 신부들의 주된 업무는 성사집행이었다. 판공성사를 통해 신자들을 1년에 한번 정도 만나는데 이때는 교리문답이 함께 진행되었다. 평상시 고해성사를 통해서도 2번 정도 만나며 평균 한 성

당 신부는 한 해 3번 정도 신자들에게 고해성사를 줬다(김정환, 2010).

공식 승인 이전부터 사제들의 사목활동과 신자들의 신앙생활 등 천주교 관련 각종 현황을 항목별로 해마다 파악한 교세 통계(敎勢統計)에 의하면 1882년부터 체계적인 통계자료가 작성되었다. 이 시기 두세 신부는 당시 충청도에 속한 평택현의 팽성읍 두리로 추정되는 지역의 머래와 대추리 교우촌이 있었음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1882년에 수원과 평택, 용인지역의 이 시기 신자 수는 261명이었으나 1888년에는 1,036명으로 늘어났다. 자료상으로 평택지역에 나타나는 공소들은 평택 서북부 지역은 초기 건이 공소(청북면 현곡리), 신야리 공소(서탄면 적봉리), 황새울(고덕면 문곡리) 등이 남부 지역은 대추리 공소(팽성읍 대추리), 신흥리(팽성읍 신궁리) 지역 등이 보이며 이후 조금씩 공소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1885년에 뮌텔 신부가 작성한 현재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 지역 건이공소의 신자 수는 총 76명이었다. 이 시기 두세 신부가 작성한 평택 대추리 공소의 신자 수는 20명이었고 머래 공소(팽성읍 두리 추정)의 신자 수는 53명이었다. 1886년 건이 공소의 신자 수는 총 77명이었으며 머래 공소(팽성읍 두리 추정)의 신자 수는 68명이었다. 1887년 건이 공소의 신자 수는 총 56명으로 다소 감소추세에 있었다. 이 시기 머래 공소는 21명, 대추리 공소의 신자 수는 33명이었다. 1888년에는 대추리 공소 28명, 모래(머리) 공소 50명이었다. 1888년에는 왕림본당(갯등이 본당)이 신설된 해였다. 이때 갯등이 본당 앙드레 신부가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후에 K-55 미군기지에 편입된 지역) 신야리 공소에 24명의 신자가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 충청도 지역을 담당하던 두세 신부의 자료에 의하면 평택 신흥리 공소(현재 팽성읍 신궁리)에 50명, 대추리에 25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시기 자료들은 평택지역 초기 공소의 상황을 알려주는 귀한 자료로 교세 확장이 남부 지역은 충청도와 인접한 팽성지역에서 북부 지역은 화성 왕림 본당(갯등이 본당)과 가까운 서탄면 지역을 중심으로 전

교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885년~1888년 시기 평택지역의 공소와 신자현황은 아래<표 1>과 같다.

<표 1>1885년~1888년 평택지역의 공소와 신자현황

공소명 /연도	1885년 (신자수/기록 신부)	1886년 (신자수/기록 신부)	1887년 (신자수/기록 신부)	1888년 (신자 수/기록 신부)
건이	76(위델)	77(무아넬)	56(무아넬)	
대추리	20(두세)	*	33(드게트)	28(두세)
머래	53(두세)	68(두세)	21(드게트)	50(두세)
신야리				24(앙드레)
신흥리				50(두세)

1890년 신야리 공소 27명, 황새울 공소(현재 고덕면 문곡리) 22명이 처음 기록에 보인다. 신흥리 공소는 49명으로 기록되고 있다. 1891년 갯등이 본당 알릭스 신부 기록에 의하면 신야리 공소 27명, 충청도 간양골 본당 파스키에 신부 기록에 의하면 신흥리 공소 (현재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55명이었다. 1892년 갯등이 본당 알릭스 신부 기록에 의하면 신야리는 누락되어 있고, 황새울 공소는 23명이었으며 충청도 간양골 본당 파스키에 신부 기록에 의하면 신흥리 76명, 대사골 공소 35명이었다.

1893년에는 신야리 19명, 황새울 39명, 건의(현덕면 건의)공소 24명, 신흥리 66명, 대사골 18명이었다. 1894년에는 황새울 79명, 대사골 27명, 신흥리 63명이었으며 1895년 간양골 본당 퀴클리에 신부 자료를 보면 신흥리 72명, 대추리 28명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1886년 천주교 승인 이후에 평택 서북쪽은 갯등리 본당의 신부들에 의해 적극적인 천주교 전파가 시작되었으며, 남부지역은 간양골 본당 신부들에 의해 지속해서 공소가 꾸

준하게 세워지는 계기를 만들었다. 1890~ 1895년 시기 평택지역의 공소와 신자현황은 아래<표 2>와 같다.

<표 2>1890년~1895년 평택지역의 공소와 신자현황

공소명 /연도	1890년 (신자수 /기록신부)	1891년 (신자수/ 기록신부)	1892년 (신자수/ 기록신부)	1893년 (신자수 /기록신부)	1894년 (신자수 /기록신부)	1895년 (신자 수 /기록신부)
건이				24 (알릭스)		
대추리						28(뤼퀴에르)
머래						
신야리	22(앙드레)	27(알릭스)		19 (알릭스)		
신흥리	40	55(파스키)	76 (파스키)	66 (파스키)	63 (파스키)	72(뤼퀴에르)
황새울	27(앙드레)		33 (알릭스)	39 (알릭스)	79 (알릭스)	
대사골			35 (파스키)	18 (파스키)	27 (파스키)	

자료를 보면 평택지역 천주교의 교세가 본격적으로 확장된 것은 1896년 이후로 볼 수 있다. 평택·안성지역의 공소들은 현재 충남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에 있던 간양골 본당의 관할 아래에 있었다. 간양골 본당은 현재 대전 교구 최초로 내포 지역 첫 본당이였다. 간양골 본당은 충청도 신창, 온양, 공세리, 안성, 안중, 평택 지역을 관할했고 1890년 본당이 설정되었다. 그러나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1895년 주임 파스키 신부가 신병으로 홍콩으로 요양을 떠나자 본당이 폐쇄되었다.

그 후 1895년 6월 드비즈 신부가 부임하면서 공세리 본당이 새로 설정되자 평택, 안성지역 공소들은 공세리 본당에 편입되었다. 1896년~1900년 평택지역의 신자수를 살펴보면 왕림본당 관할 14개 공소와 공세리 본당 관

할 3개 공소의 총 신자 수는 1896년 198명, 1897년 339명, 1898년 539명, 1999년 538명, 1900년 589명으로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소의 숫자도 이전과 비교해서 3배 이상 증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평택지역의 자세한 공소 현황과 신자 수 등은 아래 <표3> 과 같다.

<표 3>1896년~1900년 평택지역의 신자수

관할 본당	당시 행정 구역	공소명	1896년	1897년	1898년	1899년	1900년	현재지명
안 원	진위	도도리 [도두리]			26	24	19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진위	뒤성터(?)				22	26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수원	신아리 [신야리]		35	56	53	63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평택	황새울	40	45	34	51	45	평택시 고덕면 문곡리
	수원	개미둑					38	평택시 고덕면 동청리,가산동
	수원	동청리			25	24	32	평택시 고덕면 동청리
	수원	새말		20	56	73	66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수원	여루물	32	29	35	41	45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평택	중다리		31	42	26		평택시 오성면 신리
	수원	길마원			53		62	평택시 오성면 당거리
	평택	동안	30					평택시 오성면 교포 리, 동원말
	수원	토나루		47	36			평택시 청북면 토진리
	양성	구설창				39	48	평택시 청북면 어소리
	수원	광덕			30			평택시 현덕면 신왕리

관할 본당	당시 행정 구역	공소명	1896 년	1897 년	1898 년	1899 년	1900 년	현재지명
공 세 리	평택	대추리 (대추원리)	34	38	40	52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평택	검은돌(?)			10	16		평택시 팽성읍 석봉리
	평택	신흥리	62	94	96	117	145	평택시 팽성읍 대사리
계			198	339	539	538	589	

IV. 일제 강점기 평택지역 천주교의 교세 확장

한국 천주교회에서 한일강제병합 직전에 일어난 천주교도 안중근 의거는 종래 친러배일 노선을 친일 노선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천주교 신자들에게 있어 항일 독립운동을 계속 전개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 그럼에도 안명근, 이기당 같은 용감한 평신도들이 안악사건, 105인 사건 등을 주동했고 3.1운동때는 대구·서울의 신학생과 해주, 강화, 고양, 경기도 광주, 수원, 안성 등 주요도시에서 평신도들이 만세 시위에 참여했다. 한국 천주교 당국이 신자들의 독립을 엄격히 금지한 이유는 한국의 독립이 불가능하다는 정치적 현실주의때문이었다(최석우, 1982). 일제강점기 파리 외방전교회나 배네딕토수도회의 서양 선교사들의 한국 인식에 대한 특징은 조선안에서 천주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되 일제식민지배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 필요한 것, 어쩔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윤용복, 2017). 한국 교회의 선교 방침은 정

교 분리의 원칙하에서 한국인 성직자를 양성하여 한국인 성직자를 포함한 한국 교회를 세우는 것, 신자들의 신앙심을 심화시키는 것, 미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시대 선교사들의 1차적 목표는 선교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선교지의 민족문제나 민족의식 고취에 있지 않았다. 선교사들은 세례를 인간의 품위와 문화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었고 서양문화의 우월감에 빠진 선교사들은 한국의 토착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토착문화를 파괴하는 일을 하기도 했다. 로마 교황청은 일제의 침략행위를 지지하고 신사참배를 허용하기까지 했다(김진소, 1982).

1914년~ 1918년 평택지역의 신자 수를 살펴보면 신자 수가 700명대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왕림 본당 관할 3개 공소, 미리내 본당 지원 9개 공소, 안성 본당 4개 공소 등에서 1914년 760명, 1915년 718명, 1916년 730명, 1917년 688명, 1918년 719명으로 이전보다 200여 명 이상 신자 수가 증가했다. 이 시기 미리내 본당 1913년 미리내 본당 강도영 신부는 행주 본당 주임신부인 김원영 신부를 돕기 위해 왕림 본당 일부 지역인 양감면 일대와 평택시 지역을 대신 맡아 사목 방문을 했다. 이 시기 평택지역의 자세한 공소 현황과 신자 수 등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1914년~ 1918년 평택지역의 신자수

관할 본당	당시 행정 구역	공소명	1914년	1915년	1916년	1917년	1918년	현재 지명
왕림	진위	벌말	46	54	52	47	51	진위면 신리
	수원	여루물	51	60	46	55	49	고덕면 방축리
	수원	창안말	23					오성면 창내리

관할 본당	당시 행정 구역	공소명	1914년	1915년	1916년	1917년	1918년	현재 지명
왕림/ 미리내	진위	도도리(도 두리)	40	40	45	44	42	서탄면 수월암리
	진위	가마골	50	46	50	58	63	서탄면 적봉리
	평택	황새울	42	54	48	37	21	고덕면 문곡리
	진위	도구머리	45	43		46	51	고덕면 좌교리
	진위	해창	22	25	73	19	31	고덕면 해창리
	진위	건곤이	54	45	56	59	63	고덕면 궁리
	수원	토나루 (토진)	85	72	104	65	71	청북면 토진리
	진위	송티 (송대)	26	26			28	오성면 안화리
	수원	동안말 (동원말)	30	30	74	90	68	안중읍 안중리 /현덕면 인광리
왕림 → 안성	진위	길마원	47	47				오성면 당거리
안성	평택	대추리	63	62	69	71	62	팽성읍 대추리
	양성	송하리	31					
	평택	신흥리	105	114	113	97	119	팽성읍 신흥리
계			760	718	730	688	719	

1924년~1933년 시기는 신자 수가 860명대에서 930명대로 증가했다. 왕림 본당 관할 1개 공소, 왕림 본당에서 평택 본당으로 관할이 넘어온 12개 공소, 평택 본당 관할 4개 공소, 안성 본당 관할 1개 공소가 있었다. 1924년에 865명, 1930년에 937명, 1931년에 922명, 1932년에 932명 정도의 신자가 있어 이 시기 200여 명 이상 신자 수가 증가했다. 1933년 이후 통계는 빠져있다.

이 시기 왕림 본당 6대 주임신부 김원영 신부가 1933년 5월까지 재임했는데, 본당의 관할 구역이 넓어 원활한 사목이 어렵게 되자 1923년 수원 본당, 1925년 가마골 본당이 분리 설정되었고 1927년에는 평택지역공소가 평택 본당에 이전되었다. 1925년 평택 진위면에 가마골 본당이 설정되었고 왕림 본당 보좌 김영근 신부가 가마골 본당 주임으로 이동하였으나 1927년 8월 초 김영근 신부가 용문 본당으로 이임하면서 가마골 본당은 폐지되었다. 대신 평택지역 공소들은 당시 병점공소에 주재하던 몰리마르 신부의 관할로 편입되었으며 1928년 안성 본당에서 평택 본당이 분리 설정되면서 몰리마르 신부가 초대 주임으로 부임했다. 평택에 있는 안성 본당 공소와 함께 왕림 본당 공소도 인계받아 관할하게 되었다. 이 시기 평택 지역의 자세한 공소 현황과 신자 수 등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1924년~1933년 평택지역의 신자수

관할 본당	당시 행정 구역	공소명	1923년 ~24년	1929년 ~30년	1930년 ~31년	1931년 ~32년	1932년 ~33년	현재 지명
왕림	진위	송티 (송대)	22					오성면 안화리
왕림 → 평택	진위	도구머리	44 (왕림)	39	40	33	통계 누락	고덕면 방축리
	수원	여루물	38 (왕림)	41	44	45		고덕면 방축리

관할 분당	당시 행정 구역	공소명	1923년 ~24년	1929년 ~30년	1930년 ~31년	1931년 ~32년	1932년 ~33년	현재 지명
왕림 → 평택	진위	해창	22 (왕림)	28	20	19		고덕면 해창리
	진위	건곤이	72 (왕림)	100	111	104		고덕면 공리
	수원	토나루 (토진)	46 (왕림)	32	33	27		청북면 토진리
	평택	동안말 (동원말)	45 (왕림)	49	48	51		오성면 교포리
	수원	안중	89 (왕림)	72	75	84		안중읍 안중리
	진위	벌말	69 (왕림)	57	47	45		진위면 신리
	진위	도도리 (도두리)	44 (왕림)	35	39	32		서탄면 수월암리
	진위	가마골	26 (왕림)	72	73	74		서탄면 적북리
	수원	신아리 (신아리)	28 (왕림)	33	34	36		서탄면 적북리
	평택	황새울	26 (왕림)	33	34	36		고덕면 문곡리
안성 → 평택	평택	대추리	79 (안성)	43	47	45		팽성읍 대추리
	평택	신흥리	131 (안성)	43	47	45		팽성읍 대사리
	평택	평택통복 리	84 (안성)	120				평택시 통복동
평택	평택	낭떨 어지			112	120		평택시 통복동(落 村)
	평택	삼다리		48	45	45		평택시 신대동
	평택	성뒤		40	31	33		진위면 하북리
	평택	마두리		26	21	29		서탄면 마두리
안성	진위	신대리		26	21	29		팽성읍 신대리
			865	937	922	932		

1933년~ 1937년 시기는 신자수가 760명대에서 950명대를 유지했다. 평택 본당 관할 1개 성당과 23개 공소가 있었다. 1934년에 764명, 1935년에 853명, 1936년에 924명, 1937년에 948명 정도의 신자가 있었다. 평택성당과 서정리 성당의 초대 주임신부로 평택 천주교 발전에 토대를 놓은 사람은 조제프 에밀 쥐스탱 몰리마르 신부이다. 평택성당의 초대 주임 몰리마르 신부는 1930년대 중반 이전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비전리와 서정동 일대까지 전교 활동을 하여 관할 구역을 확장했다. 1937년 1월 몰리마르 신부가 휴가를 얻어 프랑스로 떠나자 그해 3월 김영식 신부가 제2대 주임신부로 부임하여 6개월 동안 사목활동을 했다. 1937년 말 프랑스에서 귀국한 몰리마르 신부는 공소에 사제관을 신축하는 등 본당 분리작업에 나서 1938년 10월 평택 본당에서 서정동 본당을 분리하고 초대 주임신부가 되었다. 이시기 몰리마르 신부는 평택성당과 서정리 성당 활동 관련해 다양한 기록자료도 남겼다.

천주께서 도와주시고, 신자들이 우리의 성교회를 좀 더 잘 알아서 성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과 열의의 은총으로 수계하면 천주께서 원하시는 때에 열매가 익듯 믿는 이들의 수도 증가할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천주의 말씀을 말로 전하는 방법과 글로 전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만합니다. 후자의 방법은 특히 본당에서 떨어져 있는 공소들과 불가결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주일 미사 참례를 엄격히 지키기와 성사 생활을 자주 실천하게 해줍니다. 여러 달 전부터 주일미사 참례자는 1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수원교회사 연구소, 천주교 평택성당, 2015. 241쪽)

몰리마르 신부는 1897년 3월 프랑스 남부 보베르에서 태어나 1924년 6월

사제서품을 받았다. 1925년 6월 서울대목구 선교사로 발령 받았고 이 시기 서울 대목구내 기관과 본당을 방문하여 사목 견습을 했다. 1926년 5월 황해도 매화동 본당 보좌를 거쳐 같은해 11월 수원 병점 공소로 부임 1928년 4월까지 사목했다. 1928년 4월 14일 평택 본당 초대 주임신부로 부임하여 성당을 새로 건축했다. 1934년 서정리 공소에 성당 부지를 구입하고 파리 외방전교회 본부 지원을 받아 성당을 건축했다.

1937년 휴가를 얻어 프랑스 고향을 방문했고 돌아와 평택 본당 주임에 복귀했다. 1938년 10월 평택 본당에서 서정동 본당이 분리 설정되면서 초대 주임신부로 부임했다. 해방 후 1949년 부여 금사리 본당으로 전임되었던 물리마르 신부는 6.25 전쟁 때 북한군에 피살되었다(수원교회사 연구소, 천주교 평택성당, 2015). 1933년~1937년 시기 평택지역의 천주교 교세는 <표6>과 같다.

<표6>1933년~ 1937년 평택지역의 신자수

관할 본당	당시 행정 구역	공소명	1933년 ~34년	1934년 ~35년	1935년 ~36년	1936년 ~37년	현재지명
평 택	수원	토나루 (토진)	21				청북면 토진리
	평택	후사리		21	21	29	청북면 후사리
	수원	안중	56	66	71	69	안중읍 안중리
	평택	동안말 (동원말)	28	28	15	15	오성면 교포리
	평택	대추리	49	45	43	45	평성읍 대추리
	수원	안중					안중읍 안중리
	평택	신흥리					평성읍 대사리
	평택	도구머리	29	22	33	30	고덕면 방축리
	수원	여루물	48	35	38	30	고덕면 방축리
	평택	해창	20	19		12	고덕면 해창리
	평택	황새울	46	39	42	50	고덕면 문곡리

관할 본당	당시 행정 구역	공소명	1933년 ~34년	1934년 ~35년	1935년 ~36년	1936년 ~37년	현재지명
평 택	평택	황세울	46	39	42	50	고덕면 문곡리
	평택	마두리	38	40	55	43	서탄면 마두리
	평택	도도리 (도두리)	25	31	20	33	서탄면 수월암리
	평택	가마골		40	47	55	서탄면 적봉리
	수원	신아리 (신야리)	29	24	25	25	서탄면 적봉리
	평택	성뒤	36	31	27	25	진위면 하북리
	평택	벌말	46	46	40	36	진위면 신리
	평택	서정리	56	166	90	88	평택시 서정동
	평택	새말 (짐촌)			100	101	평택시 서정동 짐촌
	평택	울성리	16	19	27	25	팽성읍 대추리
	평택	삼다리	79	79	108	104	평택시 신대동
	평택	낭떨어지	78				평택시 통북동(落 村)
	평택	비전리	64	74	92	103	평택시 신대동
	안성	진말 (진사리)		28	30	30	진위면 하북리
계			764	853	924	948	

1930년대는 한국천주교회 전체가 1920년대의 부진에서 벗어나 교세가 다시 확장되는 시기였다. 1931년 조선대목구 100주년 기념을 기점으로 천주교회는 바뀐 시대적 상황에 부응해서 교구의 재정 자립화, 평신도 단체의 조직 활성화, 적극적인 복음 전파에 나섰다. 특히 도심지에 있는 북수동 본당과 평택 본당의 발전이 두드러졌다. 1938년 평택 본당에서 서정리 본당이 분리되면서 평택지역에 2개의 본당이 자리 잡게 되었다. 따라서 일제 말기에는 10개 본당(왕림, 미리내, 하우현, 안성, 북수동, 양지, 평택, 서정동, 이천, 양평) 이 수원 교구 지역에 자리 잡았다.

한동안 물리마르 신부가 평택본당과 서정동 본당을 관할했고 1939년

7월 멜리장 신부가 제4대 주임신부로 평택본당에 부임했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파리와방전교회 선교사들은 적성국 국민이라 연금 상태에 놓였고 성당 내 성무 활동만 허용되고 공소 방문은 경찰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등 사실상 금지되었다. 1938년 평택 본당에서 서정리 본당이 분리될 시기 평택본당은 1,222명 정도, 서정리 본당은 신자수 581명에 12개의 공소가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 평택지역 천주교 교세는 아래 <표7>와 같다.

<표7>1933년~1937년 시기 평택의 천주교 교세

지역	본당	1930년 ~31년	1931년 ~32년	1932년 ~33년	1933년 ~34년	1934년 ~35년	1935년 ~36년	1936년 ~37년	1938년
평택 동남	평택 (1928)	917 (18)	883 (19)	842 (18)	937 (21)	1,058 (22)	1,129 (22)	1,130 (23)	1,222
평택 서북	서정동 (1938)	평택본당에서 분리 신설 * 1938년 신설 당시 신자수 581명 공소수 12개 추정							

최근 천주교 차원에서 자성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 시기 선교사 중심의 한국 천주교회 지도자들은 일제 식민통치에 적극 협력하는 태도도 보였다. 1937년부터 1939년까지만 보더라도 평택과 서정리 본당이 포함된 경성교구 49개 지방에서 동양의 평화, 일본군의 전쟁 승리 기원, 전몰 장병 위령을 위한 각종 미사가 29,622회 기도가 55,452회 있었다. 이는 일본의 국가주의를 종교적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고난당하는 아시아의 이미지를 유포하여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며 총독부의 시책에 적극 부응하는 천주교의 모습을 각인시켰다(조현범, 2002). 이는 천주교 신앙의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한국 천주교의 어두운 역사이기도 했다.

또한 1937년 말부터 조선천주교회는 1925년 복자위(福者位)에 오른 79위를 비롯한 순교자를 기념하는 순교자 현양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는 조선 천주교회의 뿌리찾기 운동이었지만 순수한 종교적 기념행사에 그치지 않고 순교자 정신으로 일제의 전쟁 수행에 협력해야 한다는 관념을 유포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했다(조현범, 2002)는 비판을 피할수 없을 것이다.

1939년 12월 로마교황청은 중국 예식에 관한 교서를 발표했고 이는 공사 공경 의례에 대한 전면적인 허용으로 이를 통해 조선천주교회에서 동아시아 유교문화권의 의례문화에 대한 재인식이 일어났다. 이는 조상 제사에 대한 금지 규정을 완화하고 혼례와 같은 전통적인 의례문화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용인하는 태도를 취했다. 그리고 천주교가 선교지역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가진 것은 1962년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계기였다(조현범, 2002). 한국 천주교 초기 신해, 신유, 병인 박해가 제사 문제에 기인했기에 이 시기 제사의 기준 완화는 때늦은 감은 있지만 해방 이후 천주교의 본격적인 확산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일제 말기 외국인 선교사들과 한국인 성직자, 지도급 신자들에 대한 일제의 감시와 구금, 추방과 재판은 한국 천주교회를 크게 위축시켰다. 전쟁에 광분한 일제의 압박에 한국 천주교회는 무력하였다. 일제가 한국 천주교회의 관할권을 장악하려 하였지만 경성교구의 프랑스인 교구장은 한국인 신부를 후임 경성교구장으로 추천하였다. 한국인 성직자들은 외국인 선교사들의 공백을 감내하면서 선교에 주력했다. 한국인 성직자들과 신자들은 불경죄, 치안방해죄, 군기보호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처형되기까지 일제에 항거하였다. 1940년대 전반기 한국천주교회는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냈다(윤선자 2020)는 긍정적 평가가 있기도 하다.

V. 해방 이후 평택지역 천주교의 확산과 발전

광복 후 한국 천주교회의 민족사 참여는 크게 4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광복에서 1960년대까지이다. 이 시기는 교회가 공산주의에 대해 선악의 이분법으로 단독정부를 출범시킨 남한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 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동시에 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개최되어 사회영성이 본격적으로 싹트는 시기였다들째 1960년대 후반부터 1987년까지이다. 이 시기 천주교회는 국가 권력과 갈등 관계를 유지하면서 반유신체제 저항 활동, 인권 수호운동, 민생 운동에 투신했다. 셋째, 1988년부터 2007년까지이다. 이 시기는 시민사회가 성장하면서 교회의 참여요구 빈도가 줄었으며 교회의 사회적 관심이 제도화된 교회 영역을 넘어 뻗어갈수 없었다, 그럼에도 이 시기의 사회 영성은 형태가 더 다양해지고 분야도 더 넓어졌다. 넷째,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이다. 이 시기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추진으로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시기였다. 사회 영성의 측면에서 구성요소가 다양하고 평화를 통해 국제적 영역까지 관심의 영역이 넓어졌다(박문수, 2013).

아시아 전교를 목적으로 창설한 미국 최초의 가톨릭 외방전교회는 메리놀회는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본국에 강제 추방되었다. 이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매체를 통해 한국 문제를 본격 거론했으나 한국이 주권을 회복하고 종교와 선교활동의 자유를 회복하며 트루먼 행정부가 한국 문제와 관한 분명한 입장과 미국이 한국에 신의를 지킬 것, 한국이 독립국가로 설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선헌, 2014) 또한 해방 이후 정부수립 과정에서 메리놀회 소속 미국인 번주교는 초대 교황사절로 임명되어 신생 대한민국 정부가 거국정부로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 외교활동을 전개했다(최선헌, 2014)

평택 본당은 1948년 8월 대전지목구가 서울대목구에서 분리되면서 당시 서울대목구에서 사목하던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은 같은 전교회에서 관

할하게 된 대전지목구 소속으로 편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평택 본당 주임 멜리장 신부는 같은 해 9월 충남 온양본당 초대 주임으로 전임했다. 이어 메리놀회 부스 신부와 페티프런 신부가 부임했고 한국전쟁의 발발로 사목활동이 중단되었다. 휴전 이후 구제 및 보육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본당의 위상을 높이고 교세 확장에 기여했다. 서정동 본당도 몰리마르 신부가 1948년 8월 부여 금사리 본당으로 전임되었다. 한국 전쟁 이후 본당 사목이 정상화되어 6.25 전쟁 이후 피란민들이 많이 정착했으며 송탄에 오산미공군기지가 주둔함에 따라 인구도 급격하게 유입되었다. 1952년 서정리성당 제3대 신부로 부임한 유수철 신부는 신장리에 부지를 마련해 송탄성당 분리작업을 시행했고 1965년 송탄성당이 창립돼 초대신부로 강원 유 신부가 부임했다. 유신부는 교육사업에 뜻을 두고 1953년 5월 21일 효명고등공민학교를 설립했고 이후 효명중학교와 효명고등학교로 발전하여 지역사회 천주교 확산과 청소년 교육에 크게 이바지했다.

교육열이 돈독한 평택군 송탄면장 한상복(韓相復)씨와 서정리 천주교회 신부 유수철(柳秀徹)씨는 경제난으로 진학치 못하는 아동을 위하여 고등공민학교를 사재를 들여 신설하고 오는 15일부터 천주교회를 임시교사로 개교하리라고 한다(조선일보 1953년 5월 8일자. 2면) 6.25 전쟁 이후인 1954년 평택본당과 서정리 본당의 신자수는 2,282명이었으며 계속해서 신자수가 증가해서 1964년에는 6,609명 정도까지 증가했다. 이 시기 신자수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1954년~1964년 평택본당과 서정동 본당 신자수

지 역	본당	1954년	1955년	1956년	1957년	1958년	1959년	1960년	1961년
평 택	평택 (1928)	1,321	1,441	1,718	1,990	2,107	2,409	2,609	2,832
	서정동 (1938)	961	1,068	1,084	1,072	1,324	1,626	2,118	2,321

지 역	본당	1962년	1963년	1964년
평 택	평택 (1928)	3,163	3,179	3,609
	서정동 (1938)	2,565	2,908	3,000

1954년 11월 신인균 신부가 오성면 안중리를 방문하고 김동수(프란치스코) 집에서 안중리 교우들이 모인 가운데 첫 미사와 가을 판성 성사를 집전했다. 이를 계기로 안중리 공소가 태동했다. 안중 교우들은 곧 본당 신부의 허락을 받아 약사인 서재복(야고보)의 단칸방 약국에 ‘안중천주교회공소’라는 간판을 달고 평택성당 관할 공소로 출발했다. 초대 회장은 서재복이 임명됐다. 이후 1966년 1월 1일 안중리 교인들의 노력 끝에 본당으로 승격됐다. 1957년 평택천주교회 봉희만(奉喜萬) 신부는 연인원 4300명에 달하는 많은 지역내 빈민을 위한 구호 사업에도 크게 힘썼다.

평택 천주교회에서는 항상 이 지방민들을 위하여 많은공헌을 하여와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는데 특히 동교회 봉희만(奉喜萬) 신부는 부임이래 각방면으로 노력을 하여 지난 춘궁기부터 현재까지 연인원 사천삼백 여명에 달하는 절량민에게 양곡과 우유 등을 주어 구제하여 왔다한다. 그런데 동교회서는 앞으로도 빈민구제를 위하여 많은 활약을 할것이라고 하는데 당지출신 민의원 황경수(黃慶秀) 씨도 이에 많은 협조를 하고 있었다한다(조선일보 1957년 8월 28일자 3면). 1963년 서울교구에서 독립하여 수원교구가 설정되고 초대 윤공희 주교가

1973년까지 재임했다. 이 시기 평택지역의 교세 증가도 두드러졌다. 1982년 3월 송탄 제2성당이 분리 신설된 후 6월 송서성당으로 개칭돼 1985년 9월 성당이 준공됐다. 1983년 팽성성당을 평택성당에서 분리해 그 다음 해에 성당을 준공했고 초대신부로 박철 신부가 부임했다. 비전동성당이 평택성당에서 분리돼 1995년 비전2동에 성당이 설립됐다. 1998년 고덕면 궁리성당이 평택성당에서 분리 창립돼 이동춘 신부가 부임했다.

1998년 송서본당에서 송현본당이 분리되었다. 2022년 8월 현재 평택지역에는 평택성당을 비롯해 서정동성당·송탄성당·안중성당·송서성당·팽성성당·비전성당·진사리성당·송현성당·궁리성당·모산골성당·세교동성당·포승성당·청북성당·용이동성당·소사별성당·고덕동 성당등 17개 성당이 있으며 신자수는 31,995명으로 평택시 전체인구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 8월 현재 평택지역내 성당 현황과 신자수는 아래 <표9>과 같다.

<표9>평택지역내 성당 현황과 신자수 (2022년 8월 현재: 수원교구 홈페이지 참조)

번호	성당명	설립일	신자수(명)	주보성인
1	평택	1928. 4. 14	2,979	하늘에 올림 받으신 성모마리아
2	서정동	1938. 10. 1	3,704	아기예수의 성녀 테레사
3	송탄	1965. 8. 22	2,098	성 김대건 안드레아
4	안중	1966. 1. 10	3,317	노동자의 모범이신 성요셉
5	송서	1982. 3. 4	601	티없이 깨끗하신 성모성심
6	팽성	1983. 8. 1	1,631	성 정하상 바오로
7	비전	1995. 1. 20	3,885	성 파스칼
8	진사리	1998. 1. 30	1,512	성가정의 성마리아와 성요셉
9	송현	1998. 1. 30	2,204	성 정하상 바오로
10	궁리	1998. 1. 30	734	한국순교성인
11	모산골	2004. 10. 1	2,212	묵주기도의 모후
12	세교동	2005. 9. 24	1,086	성베드로 사도
13	포승	2007. 8. 28	703	복되신 동정마리아

번호	성당명	설립일	신자수(명)	주보성인
14	청북	2011. 8. 30	1,077	성 가브리엘 대천사
15	용이동	2015. 12. 15	1,567	성 루카 복음사가
16	소사벌	2016. 12. 20	1,976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17	고덕동	2020. 12. 15	709	*
계			31,995	

1990년대 이후 언론을 통해 보도된 평택지역 천주교 관련한 주요 기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94년 8월에는 당시 수원가톨릭대 학장으로 1982년 서정동 성당 주임신부였던 배문한(裵文漢) 신부가 강원도 삼척 동해바다에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물에 빠진 서정동 성당 신자 3명을 구하고 자신은 체력 소진으로 익사한 가슴아픈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5일 오후1시 30분쯤 강원도 삼척군 근덕면 본촌리 생불수도원 앞바다에서 수원가톨릭대학장 배문한(裵文漢)신부(60)가 함께 물놀이를 하다 빠진 문병선씨(39) 등 신도 3명을 구하고 숨졌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배(裵)신부는 낮12시50분쯤 신도들과 물놀이를 하던중 고무튜브 2개에 타고 있던 신도 문씨,정순화,장주영씨 등 여신도 3명이 1m높이의 파도에 밀려 허우적거리며 20m쯤 떠내려가자 다른 신도들과 함께 물에 뛰어 들어 이들을 모두 해변으로 구조한 뒤 자신은 탈진, 물에 빠졌다는것. 배(裵)신부는 튜브와 밧줄을 갖고 물에 뛰어든 일행과 다른 피서객들에 구조되어 인공호흡등 응급조치로 일단 맥박이 되살아났으나 병원으로 옮겨지던중 숨졌다. 목격자들은 “맨먼저 물에 뛰어든 배(裵)신부가 신도들을 구하는 과정에서 물을 많이 먹어 구조됐을 때는 이미 거의 숨이 멎어있었다”고 말했다. 배(裵)신부는 자신이 82년주임신부로 재직했던 송탄시 서정동성당 시절의 신자들과 함께 휴가차 지난3일 동해시 북평천주교회에 도착, 이날 이곳에서 물놀이 중이었다(조선일보 1994년 8월 6일자).

2001년에 (주)LG복지재단(이사장 구자경)은 17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부락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하였다. 이는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가 맡아 그리스도의 복음정신에 따른 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음화와 가난한 이들의 총체적 인간발전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 성인을 위한 가정복지사업과 노인, 장애아동,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복지사업,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상담하거나 재가복지서비스, 결연후원 서비스 등의 재가복지봉사센터로 평택지역 사회복지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평택시민신문 2001년 9월 1일자).

2003년 3월에는 종교간 소통 실천 차원에서 흥미를 끄는 활동이 있었다. 천주교 수원교구 안중성당 이기수 주임신부와 심복사 윤정견 주지스님이 지난 9일과 16일 사찰과 성당에서 교환 특강을 가져 지역사회와 종교계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기수 신부가 심복사를 방문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불교신도들을 상대로 특강을 한데 이어 지난 16일에는 윤정견 스님이 안중성당에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성당 신도들을 상대로 특강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평택시민신문 2001년 3월 20일자).

2003년 5월에는 평택지역 천주교 발전에 커다란 토대를 놓은 순교자 몰리마르 신부의 유해 안장식이 평택성당에서 열렸다. 한국 전쟁 중에 북한군에 피살당한 순교신부인 몰리마르 신부의 유해는 1951년 목동성당 교회 묘지에 이장되었다가 1960년 3월24일 천주교 대전교구 묘원내 성직자 묘역으로 이전 안치됐고 몰리마르 신부가 처음으로 평택에 첫 부임을 한 같은 날 4월 14일부터 이장 작업을 해 5월 10일 평택성당에 안장됐다(평택시민신문 2003년 5월 14일자).

VI. 맺음말

지금까지 교세 변화를 중심으로 근현대 평택지역 천주교의 정착과 확산, 발전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택지역 천주교는 초기 많은 탄압 속에서도 불구하고 사제들과 평신도들의 노력 속에 공소를 중심으로 서서히 성장을 거듭해왔다. 천주교 교세 조사가 시작된 1882년 수원지역 천주교 신자가 261명이었으니 평택지역도 이 시기 수십 명의 신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가 1885년 76명으로 조사되었고 천주교 교세가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1896년 589명, 일제식민지 초기인 1914년 719명에서 평택의 첫 본당이 설립된 1928년을 지나 1933년 932명, 서정동 성당이 설립 활동하던 1938년을 지나 해방 전까지 1700명대를 유지했다. 이후 6.25 전쟁을 거치면서 선교와 구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평택지역 천주교는 1954년 2,282명을 넘어섰고 1964년에는 6,609명으로 신자 수가 증가하면서 1965년 송탄 본당, 1966년 안중 본당이 설립되기에 이르렀고 2022년 현재 평택지역은 17개 본당 31,995명으로 많이 늘어났다.

둘째, 평택지역 초기 공소의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에서 보듯이 평택지역 천주교의 교세 확산과 발전은 크게 두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남부 지역은 충청도와 인접한 팽성지역에서 북부지역은 화성 왕림 본당(갯등이 본당)과 가까운 서탄면 지역을 중심으로 전교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평택 남부 지역은 아산 공세리 성당에서 안성 성당으로 교세 확산이 이루어지다가 1928년 평택 본당, 1938년 서정리 본당이 설립되었으며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1965년 송탄 본당 설립 이후 확산이 본격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북부지역은 화성 왕림 본당에서 전교가 시작되어 가까운 서탄면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공소가 증가했

으나 1950년대 중반 이후 서탄면 일부 지역이 K-55 미오산공군기지에 편입되어 이후 크게 위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한국의 다른 지역과 유사하게 한국 천주교회가 크게 발전한 것은 1945년 광복 이후 미군 주둔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앞서 평택지역 자료에서 보듯이 1950년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천주교는 특히 사회복지 지원과 교육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1961년 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개최되어 사회영성이 본격적으로 싹트는 시기에 때맞춰 종래 서양 선교사 중심에서 한국인 사제들 중심의 천주교 지도자의 중심축이 바뀌었다. 1970년대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저항과 민주화운동 참여, 1990년대 이후 환경과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속에 비신앙인들을 천주교에 다수 입교시키면서 교세 확장이 가능했다.

물론 그 바탕에는 봉건적 기존 질서를 거부하고 탄압에도 굴하고 않고 신앙을 굳게 지킨 신앙 선조들의 노력을 잊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 갖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평택 각지 공소를 찾아 신자들을 보살핀 천주교 사제들의 헌신, 여기에 사제들과 호응하며 공소를 관리하고 새 본당을 짓고 전교에 힘쓰며 신앙공동체 안정과 사회 복음화에 마음과 뜻을 모은 평신도들의 열정이 있어 가능했다.

본 연구 이후 평택 천주교회사 심층 연구의 과제에 대해서도 몇가지 제언을 한다.

첫째, 평택 천주교회사의 기초 자료 확보와 연구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는 평택지역 각 본당에서 발간하고 있는 본당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각본당의 구체적인 신앙공동체 활성화 내용들에 대한 시간적·공간적 정리작업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둘째, 문헌 등 기초 자료에 대한 정리와 함께 시기별 핵심 동 신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정리하고 구술 영상 자료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다른 지역

과 마찬가지로 기존 평택지역 천주교 본당사도 본당 주임신부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어 평신도의 활동이 가지는 구체적 의미와 맥락을 파악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이런 보완 작업은 꾸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끝으로 지역 종교사의 한 부분으로 평택지역 천주교회사를 평택의 지방사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평택지역에서 경험된 평택지역 주민들의 삶에 대한 기록의 변천과정이기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향후에 이런 보완작업을 통해 평택지역 천주교회사 연구가 더 심화되어 지방사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데도 기여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강상규, 〈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에 대한 정치학적 고찰〉,
《정신문화연구》 제30권 제1호, 2007.
- 김정환, 〈한말·일제 강점기 한국 천주교회의 재편〉,
《역사와 담론》 제57집, 2010.
- 김진소, 〈일제하 한국천주교회의 선교방침과 민족의식〉,
《교회사연구》 제11집, 1982.
- 박문수, 〈광복 후 천주교의 민족사 참여와 사회영성의 성장〉,
《교회사연구》 제42집, 2013.
- 방상근, 〈18세기 말 조선 천주교회의 발전과 세례명〉,
《교회사연구》 제34집, 2010.
- 수원교회사연구소&천주교 수원교구 평택성당(2015)
몰리마르신부 자료집.
- 수원교회사연구소, 〈통계와 지도로 보는 수원교구 역사
:1896년~1900년까지 수원교구 지역의 천주교 교세와 지도〉,
《상교우서》 2012년 봄 통권 34호, 2012.
- 수원교회사연구소, 〈통계와 지도로 보는 수원교구 역사
:1914년~1918년까지 수원교구 지역의 천주교 교세와 지도〉,
《상교우서》 2013년 봄 통권 38호, 2013.
- 수원교회사연구소, 〈통계와 지도로 보는 수원교구 역사

:1924년~1933년까지 수원교구 지역의 천주교 교세와 지도>,
《상교우서》 2013년 가을 통권 40호, 2013.

수원교회사연구소, <통계와 지도로 보는 수원교구 역사
:1933년~1937년까지 수원교구 지역의 천주교 교세와 지도>
《상교우서》 2014년 봄 통권 42호, 2014.

수원교회사연구소, <통계와 지도로 보는 수원교구 역사
:1938년~1945년까지 수원교구 지역의 천주교 교세와 지도>,
《상교우서》 2014년 여름 통권 43호, 2014.

수원교회사연구소, <통계와 지도로 보는 수원교구 역사
:1945년~1963년까지 수원교구 지역의 천주교 교세와 지도>,
《상교우서》 2014년 가을 통권 44호, 2014.

수원교회사연구소, <수원본당 신설과 지구 개편의 역사(1)>,
《상교우서》 2015년 여름호, 2015.

수원교회사연구소, <수원교구지역 본당 및 공소 교세통계표(1)>,
《상교우서》 2016년 봄호, 2016.

수원교회사연구소, <수원교구지역 본당 및 공소 교세통계표(2)>,
《상교우서》 2016년 여름호, 2016.

수원교회사연구소, <수원교구지역 본당 및 공소 교세통계표(3)>,
《상교우서》 2016년 가을호, 2016.

수원교회사연구소, <수원교구지역 본당 및 공소 교세통계표(4)>,
《상교우서》 2016년 겨울호, 2016.

수원교회사연구소, <수원교구지역 본당 및 공소 교세통계표(5)>,
《상교우서》 2017년 봄호, 2016.

수원교회사연구소, 〈수원교구지역 본당 및 공소 교세통계표(6)〉,
《상교우서》 2017년 여름호, 2016.

여진천, 〈한국 천주교 초기 평신도 지도자들의 신앙 특성〉,
《교회사연구》 제42집, 2013.

윤선자, 〈1940년대 일제의 한국천주교 통제양상〉,
《교회사연구》 제57집, 2020.

윤용복, 〈일제강점기 천주교 선교사들의 한국인식〉,
《한국학연구 62》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7.

《정조실록 33》 정조15년(1791), 11월 6일자.

《정조실록 34》 정조 16년(1792년), 2월 28일자.

《정조실록 34》 정조 16년(1792년), 3월 14일자.

《정조실록 43》 정조 19년(1795년), 7월 26일자.

조광, 〈조선후기 사회와 천주교〉, 《서울: 경인문화사》, 2010

조현범(2002), 〈일제강점기 조선 천주교회의 정체성〉, 《정신문화연구》
제25권 제2호(통권 87호).

장연환, 〈평택 천주교 역사〉 《평택시민신문》 2013년 9월 26일자, 2013

최선희, 〈1940년대 일제의 한국천주교회 통제 양상〉,
《교회사연구》 제57집, 2014.

최석우, 〈일제하 한국천주교회의 독립운동〉, 《교회사연구》 제11집, 1982.

천주교 수원교구 홈페이지 본당 현황(2022).

<https://www.casuwon.or.kr/parish/parish>.(2022. 8.31.검색)

2. 신문자료

《조선일보》 1953년 5월 8일자, 2면.

《조선일보》 1957년 8월 28일자, 3면.

《조선일보》 1994년 8월 6일자, 23면.

《평택시민신문》 2001년 3월 20일자.

《평택시민신문》 2001년 9월 1일자.

《평택시민신문》 2003년 5월 14일자.

평택문화연구 제5집

발행일 : 2023년 12월 30일

발행인 : 이보선(평택문화원장), 박성복(평택학연구소장)

발행처 : 평택문화원, 평택학연구소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비전동)

전 화 : 031-655-2002

팩시밀리 : 031-654-8807

인 쇄 : 나무기획

저작권자 2023 평택문화원, 평택학연구소

ISSN 2713-6884

※ 이 책의 저작권은 발행처와 저자에게 있습니다.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내용 및 사진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

※ 이 책은 평택시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특/집/논/문

평택의 고고학

평택의 고려시대 문화유적 발굴현황과 성과 / 김영숙

삼국시대 평택의 철과 솥 생산 / 차순철

일/반/논/문

평택 설화 자료의 현황과 과제 / 김은일

평택의 실학 -진위현 동천장 실학자 남하정을 중심으로- / 임원택

평택 농악 복식의 구성과 특징 / 임정미

서정리초등학교와 송탄의 근대교육 / 황수근

근·현대 평택지역 천주교의 교세 확장과 발전 / 황우갑